

MAXIM

KOREA

미드 <해리스 로>
Brittany Snow

SPORTS

롯데 자이언츠가 멸망하는 이유
카포에라로 몸 만들기
목숨을 건 공놀이



SUPER MATCH

MAXIM
+
꿈은 최강의
슈퍼히어로는?

STYLE

서울패션위크에 온 미녀들
봄총각의 피케 셔츠
똑똑해 보이는 안경

CLUB

제1회 MAXIM PARTY

GIRL'S DAY

Ver. 1
헤리

MILITARY

스마트 폭탄

DIGITAL

캐논을 압살할
6대의 카메라

MOTOR

정복자 RANGE ROVER
모닝 vs 스파크
Round 2

ICON

배우 김정태

미미 시스터즈
아광토끼
개그맨 김경진

2011년 5월호
정가 5,400원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

www.maximkorea.net

MAXIM

KOREA

미드 <해리스 로>
Brittany Snow

SPORTS

롯데 자이언츠가
멸망하는 이유



SUPER MATCH

MAXIM이
꿈은 최강의
슈퍼히어로는?

DIGITAL

갤럭시S 2가 온다
캠코더 비교 사용하기

CLUB

제1회 MAXIM PARTY

GIRL'S DAY

Ver. 2
지해

ICON

배우 김정태

MILITARY

스마트 폭탄

STYLE

봄총각의 피케 셔츠
서울패션위크에 온 미녀들

MOTOR

오프로드 정복자
RANGE ROVER
마초의 바이크

미미 시스터즈
아광토끼
개그맨 김경진

2011년 5월호
정가 5,400원



www.maximkorea.net

MAXIM

KOREA

미드 <해리스 로>
Brittany Snow

**GIRL'S
DAY**

Ver.3
유라

DIGITAL

캐논을 압살할 카메라 6대
갤럭시S 2가 온다

CLUB

제1회 MAXIM PARTY

ICON

배우 **김정태**

MILITARY

스마트 폭탄

미미 사스터즈
야광토끼
개그맨 김경진

STYLE

똑똑해 보이는 안경
서울패션위크에 온 미녀들

SPORTS

롯데 자이언츠가 멸망하는 이유
카포에라로 몸 만들기

MOTOR

정복자 RANGE ROVER
맛있는 차, 폭스바겐 **GOLF**
모닝 vs 스파크 Round 2
마초의 바이크

SUPER MATCH

**MAXIM이 꿈은 최강의
슈퍼히어로는?**



2011년 5월호
정가 5,400원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

MAXIM



KOREA

ICON
배우 김정태

MOTOR
맛있는 차,
폭스바겐 GOLF
모닝 vs 스파크 Round 2



SUPER MATCH
MAXIM
+
끊은 최강의
슈퍼히어로는?

STYLE
서울패션위크에 온 미녀들
봄충각의 피케 셔츠

MILITARY
스마트 폭탄

www.maximkorea.net
2011년 5월호
정가 5,400원

**GIRL'S
DAY**

Ver.4
소진

SPORTS
롯데 자이언츠가 멸망하는 이유
목숨을 건 공놀이

미드 <해리스 로>
Brittany Snow

DIGITAL
까탈스런 MAXIM의
캠코더 비교 사용기

CLUB
제회 MAXIM PARTY

미미 시스터즈
야광토끼
개그맨 김경진



MAXIM

KOREA

ICON

배우 김정태

DIGITAL

캐논을 압살할 카메라 6대
갤럭시S 2가 온다

GIRL'S DAY

Ver.5
민아

미드 <해리스 로>
Brittany Snow

SPORTS

롯데 자이언츠가 멸망하는 이유
카포에라로 몸 만들기
목숨을 건 공놀이

MILITARY

스마트 폭탄

미미 시스터즈
아광토끼
개그맨 김경진

MOTOR

정복자 RANGE ROVER
맛있는 차, 폭스바겐 GOLF
모닝 vs 스파크 Round 2
마초의 바이크

CLUB

제1회 MAXIM PARTY



SUPER MATCH
MAXIM이
꿈은 최강의
슈퍼히어로는?

STYLE

서울패션위크에 온 미녀들
똑똑해 보이는 안경

2011년 5월호
정가 5,400원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

www.maximkorea.net

발행인 / 대표이사 이혜성

전무이사 김경선 / 이사 양태웅 / 이사 원혜진 / 이사 소성혁

EDITORIAL / 편집부

편집장 부장 이영희 ye@maximkorea.net
 수석에디터 차영 고경희 koko@maximkorea.net
 에디터 차영 김진태 jt_tor@maximkorea.net
 과장 유승민 sm@maximkorea.net
 대리 김성현 psycho@maximkorea.net
 대리 김진옥 144@maximkorea.net
 주임 김희성 alce@maximkorea.net
 객원에디터 김다영 storm@maximkorea.net
 이봉훈 pap04@maximkorea.net
 정혜비 julahart@maximkorea.net
 아사시프트 박찬영/누리 nu@maximkorea.net
 조유림 new@maximkorea.net

DESIGN / 디자인

디자이너 주영 정지원 doldol@maximkorea.net
 사한 장미연 berrymae@maximkorea.net
 사한 이은화 eastlocust@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 기획 전략

이사 소성혁 so@maximkorea.net
 차장 김진태 jt_tor@maximkorea.net
 과장 신주빈 woobin@maximkorea.net
 과장 유승민 sm@maximkorea.net
 주임 최안영 joy@maximkorea.net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대리 김종국 jk@maximkorea.net
 대리 김진옥 144@maximkorea.net
 대리 홍승휘 soulmate@maximkorea.net

WEB SERVICE / 웹

팀장 서영민 orise@twon.com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교열 신성장 kshin0111@dsu.net

인쇄 · 원색분해 (주)라티타피레스

광고 매도 파주시 교하읍 삼사리 1번-1 인쇄인 이현순

유통 송주출판유통



발행처 Y&Y 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 MAXIM KOREA 빌딩 1~4층
 TEL. 02-323-182 / FAX. 02-6455-0193
 2016년 5월호 통권 제13호 / 등록일자 2009년 2월 30일 / 등록번호 마보 라-00290

MAXIM KOREA는 세계 30개국에서 발행하는 글로벌 남성 월간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 그룹은 2009년 1월 29일부터 대한민국(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Y Media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할 라이선스 계약자이며, MAXIM의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알파미디어 그룹과 Y&Y 미디어 외에 어떠한 제3자도 MAXIM의 브랜드마크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재 실은 글과 사진은 MAXIM 본지인 알파미디어 그룹의 (주) Y Media에 귀속되며 허락 없이 옮겨 쓸 수 없습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

JOSEPH MANDIGNE

CHIEF REVENUE OFFICER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NCOX

MAXIM INTERNATIONAL

INTERNATIONAL LICENSING DIRECTOR

MARIANNA GAPANOVICH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 DIGITAL ASSET MANAGER

MARIESA CONMAY

INTERNATIONAL FINANCE MANAGER

ERIK VANVOORHEES

DENNIS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4th Floor, New York, NY 10017,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XIM INTERNATIONAL EDITION / EDITOR IN CHIEF

USA JOE LEVY

ESPAÑOL-US HISPANIC ANDRÉ FÉLIX DIAZ ROJO
 Dominican Republic

UNITED KINGDOM BEN RAWORTH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FRANCE FRANÇOIS DE GUILLEBON
 Belgium, Switzerland, Canada, Québec

GERMANY MIKE BLEIBTREU
 Austria, Liechtenstein, Switzerland

CZECH REPUBLIC PAVEL VONDRAČEK
 Slovakia

SERBIA LAZAR JOVANOVIĆ
 Montenegro, Bosnia, Herzegovina, Fryom

TURKEY KAAN KUSTUTAN
 Cyprus

ITALY CARLO CROCI

PORTUGAL PEDRO JAVALOYES

RUSSIA SASHA MALENKOV

ARGENTINA GERMAN PITTELLI

BRAZIL ROMARIO OLIVEIRA

BULGARIA HRISTO ZAPYREIRO

GREECE GEORGE FOTINPOULOS

INDIA VIVEK PAREEK

INDONESIA TITAN HARINDA

THAILAND SIRIOTE PETCHJAMROANSUK

UKRAINE SASHA MALENKOV

국가별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maximkorea.net

copyright©2011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LPHA MEDIA GROUP Inc., the owner of the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monthly published by Dennis Publishing Inc. On Nov 21st 2009, Y Media Inc.(Korea) contracte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of MAXIM magazine, a world famous men's magazine. Y Media Inc. is the sole MAXIM licensee in South Korea and has an exclusive license right to publish, distribute, and sell a monthly Korean-language MAXIM magazine. No party but Alpha Media Group Inc. and Y Media Inc. are permitted to use the MAXIM trademarks or the MAXIM logos in Korea.

광고 문의 070-4010-9041, 9043, 9046 구독 문의 02-323-1182

기타 문의 joy@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 www.maximkorea.net |

84

걸스데이

5월 달력의 수많은 기념일보다 더 뜻깊은 날은 바로 걸스데이 12페이지에 달하는 그녀들의 깜찍함에 세상 모든 시름을 잊어버리자.

46 LOVE

그녀를 예열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것: 전화
전화... 전화...
누구 이름이더라?

82 ICON

김정태

현빈? 정동건? 원빈? 얼굴로 먹고 사는 영화배우는 따로 있었다 (세 포망)으로 관객을 시원하게 웃겨 줄 김정태 형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96 MANIMAL

동물보다 더 동물 같은 인간 군상. 이걸 보고 자신의 인간다움에 감사하며 여생을 살자.

98 SUPER MATCH
HERO TOP10

누가 핏먹는지, 히어로의 평소 옷차림은 어떤지, 가을이 해제되면 여자들은 누구인지 MAXIMO가 정리했다.

118 스마트 폭탄

포트리스 까재 우리보다 1억 배는 똑똑한 폭탄이 쏟아진다.

MAY SPECIAL

한국타이어 레이싱 모델

이보다 더 뜨거운 순 없다.
이보다 더 흥성할 순 없다.



FUN한
음악을
즐겨라

Real4D
이어편!

진동으로 즐기는 신개념 4D이어편



Real4D earFUN과 함께라면 **진짜음악**이 된다!

아이폰녀 김여희



Real4D
850S1

80S1



VIBE BS 홈페이지 리뷰업 기념 :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80S1를 드립니다.(행사기간: ~5월 31일까지)

VIBE^{BS}

1588-9439

이메일 www.echo-shell.com



112 브리타니 스노우

잘 키운 아역 배우, 열 성인 배우 안 부럽다. 미드 <해리스 로>에 출연 중인 브리타니 스노우의 새하얀 살결에 살포시 얇힌 린제리가 그것을 증명한다.

- 14 CIRCUS MAXIMUS**
그림 벨라, 애정운 살리는 집안 풍수지리, 이 중 맞으면 죽나? 주말에 뭐하지? 5월 사건 사고, 투니스와 치토스의 불편한 관계, 린스틱 얼룩 지우기
- 30 FITNESS**
브라질 전통무술 카포에라
- 32 24 HOURS TO LIVE**
스물아홉 막도록 한번도 연애 못 해본 남자 개그맨 김경진
- 34 RATED**
이평토끼의아빠똥 신작 게임, 옥보단 여주인공 열전 영화로 보는 남자의 길, 무대에 오른 아이돌의 성적표, 친숙 게임 전성시대 이달의 데뷔 음악
- 42 MUSIC**
장바버의 섹스랩, 이번 달엔 쉽니다. 대신 클래식러스한 미미 사스트즈 언니들을 소개합니다. 다행
- 44 SPORTS**
롯데 자이언츠가 삼실하는 이유는?
- 50 STUFF**
선 없이도 뺑뺑 타지는 불루투스 리시버, 새근한 그녀를 맛깔나게 찍어줄 카메라 총집합, 진짜 스마트한 갤럭시S2, 걸스데이 화보 촬영과 함께한 캠퍼스더 성능 비교기
- 123 IN DA CLUB**
제1회 MAXIM PARTY로 오라! 이태원 클럽메드의 향연, 하늘에서 쏟아진 섹시 천사, MAXIM 에디터라서 정말 행복해요.
- 128 STYLE**
소보더 화려했던 구경꾼, 2011~2012 F/W 서울 패션위크, 업그라운드 피케 셔츠, 똑똑해 보이는 안경, 필수 선블록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나?



the
BOOTH

10분 미스터리 더 부스

COMING SOON



FX 채널 방문하고
과워치를 받기

FX
남자의 모든 것

tcast

Echannel

SCREEN

FusionN

comf

FOX

FoxLife

FX

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0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LETTER FROM MAXIM

2011년 MAXIM 공개 채용에는 아프리카 메뚜기 때 같은 많은 인파가 몰렸다. 산처럼 쌓인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읽으며 MAXIM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여성 지원자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며 MAXIM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여성 지원자의 자소서엔 "이한 잡지인 줄만 알았는데 알아보니 정말 알한 내용이 많았다"는 내용이 지배적이었다. 이제 MAXIM 많이 사줄 모양? 응? 응? 물론 나를 흔란스럽게 만든 지원자도 있었다. 몇 가지 소개한다. 다른 청년 실업자들도 이 글을 참조해 하루빨리 '백수 탈출' 하시기 바란다.

1. 럭셔리 드림

"핵심은 대한민국 최고의 럭셔리 잡지로..."
"하일랜드를 지칭하는 매가진의 일원이 되
고자..."

도대체 무슨 잡지를 읽고 쓴 거야? 요즘 MAXIM과 더불어 다른 매거진도 입사 진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차 '찾아 바꾸기'와 Ctrl+X, Ctrl+V 신공으로 MAXIM에 입사하려고 시도했다가 고배를 마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다. 혹시 우리가 진짜 시간간 MAXIM에서 고품격 매가진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럴 우린 몰랐던 걸까? MAXIM이 럭셔리로 새 지평을 열고 있다는 걸 알려준 많은 지원자에게 감사 인사 올린다.

2. 변태 드림

"나 변태야. 나라도 변태지? 같이 변태짓 하자"
라고 어필하려는, 차마 줄거 적지 못한 자소서도 있었다. 애썼다. 애썼어. 하일게 볼사람구나.

3. 문물 드림

"대학 시절 해외에 배낭여행을 가서 다양한 나라
의 친구들과 문화를 교류하여..."

IMF가 끝나긴 끝난 모양이다.

4. 율야빠 드림

"외국에 총사하는 부모님 때문에 오랫동안
해외를 다녀와..."
"아버지가 XXX업 이사로 재직 중이시며..."

아버지를 뽐고 싶어한다. 자네 말고.

5. 나느님 드림

그 깊고 긴 자기소개서를 압축하면 "우치
뛰어난 재능과 능력과 재치를 가진 나느님이
MAXIM에 한번 지원해줄 테니 너무 감동받지
마" 정도 되었다. 아이쿠. 이거 감사해서 어찌
내 MAXIM 편집부에 신전이라도 차려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럴 공간이 안 된다.

그 외에도 편집부에 따끔한 일침을 준 지원자도 있었다(너 23살에 필기 시험장에서 보자. 읽는 내내 청년들의 반박반박한 아이디어와 날카로운 생각들을 들을 수 있어 행복하고 즐거웠다. 5월 호가 나오고 며칠 후 실제로 입사 지원자를 만나게 된다. 입사 진행의 꽃인 '실물 확인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들떠 일이 손에 안 잡힌다. 부디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길 진심으로 바란다. 입사 진행에 참가해준 많은 뜨거운 청년들에게도 감사의 감사를 전한다.



우리 이거 매달 할까?

편집장 이영미

편집장이 뽑았다!

이달의 스타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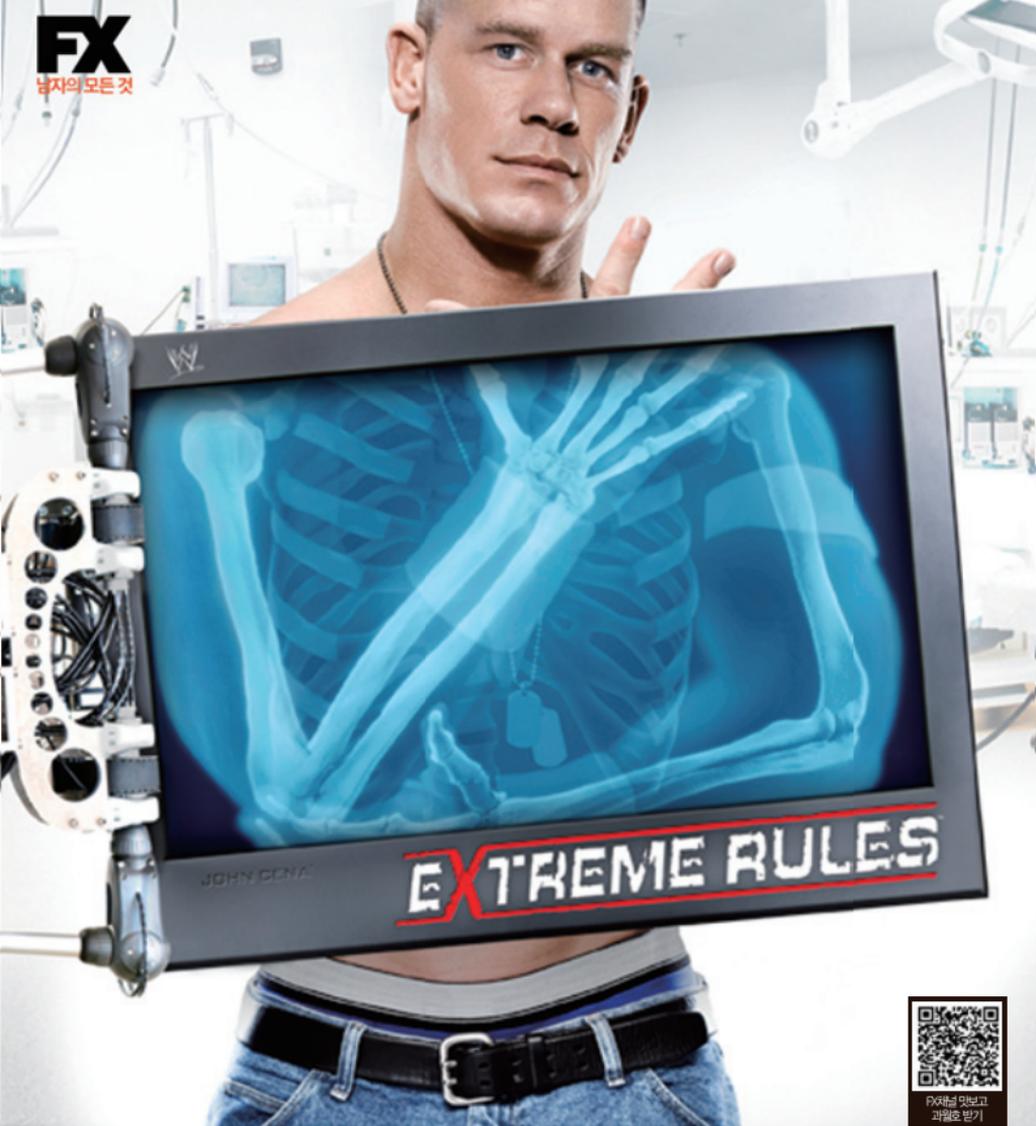
가슴에 뽀이 친뽀 들어간 미소녀 마우스 패드를 구입하여, 부드럽고 밀링밀링한 사내 분위기를 조성한 MAXIM 수석에디터 고경희. 실제로 그녀는 저 미소녀보다 더 예쁘대라고 쓰는 걸 조건으로 그녀에게 마우스패드를 선물받았다.

이달의 선의의 폐하자

대한민국에서 MAXIM을 가장 먼저 읽는 사람은 MAXIM 교필사 신선경 씨. 한 달에 한 번 우리와 함께 마그라 작업을 하는 그녀는 이번 호 교열을 마치고 조용하고 안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가사에 나온 '웃길하다'라는 말이 너무 웃겨서 혼자 계속 웃었어요." 몇 달 전 'MT(또는 마트) 가다'의 새 의미를 익힌 그녀는 오늘도 수침대에 새로 익힌 비속어를 토박토박 적어갔다. 올바른 국어 생활을 선도해야 할 그녀의 입에서 '웃길하다' 단어가 튀어나오는, 무척 안 웃질한 상황을 우리 매달 지켜보며 악간의 죄책감과 보람을 동시에 느낀다.



FX
남자의 모든 것



FX 채널 방문하고
과워치를 받기

5월 21일 [토] 밤 10시

tcast

Echannel SCREEN FusionN conf FOX FoxLife FX

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0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독자 사진 보내기



공시니스트 분량을 늘려달라

지방 대학에서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대학 강사입니다. 맥심에 나오는 전 쟁이나 군대 관련 기사, 공시니스트의 맥심 카툰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니스트가 디스인사이드에서 주목을 받은 게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재미있고 수준도 꽤 높은 웹툰 때문이었으니, 맥심 에디터와 공시니스트가 만나 전쟁, 일리타리, 역사에 관한 긴 파격 기사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나마 자유람 참 좋네요!

Greek God, e-mail 사연

"공시니스트 씨, 자작나무 티는 밤새가 여기까지 나네요. 자작, 자작." 이라고 쓰려다 혹시나 싶어 사연 보면 당시자에게 확인해보니 목소리가 이선균군인 진짜 교수님더군요. MAXIM이 소원 곧 들어드리겠습니다. 공시니스트여 팬들들과 김성현 에디터여, 그 핑크 빛 기분을 두드려라! 오늘은 너로 정했다.

안 먹어!

3월호 후렌치파이 기사 속 과거 먹는 법을 따라 만들어봤다. 마지막 작품을 따라하고 나서, 1년 동안 후렌치파이를 먹지 않기로 다짐했다. 몸과 마음이 더러워졌다. 남은 건 모두 회사에 기증했다.

홍배씨, e-mail 사연



후렌치파이를 썼구나.

자, 다음엔 또 어떤 과자를 능숙해서 끊게 해드릴까~ 김릴킬



귀면

M Letters



당첨

▲ MAXIM을 사랑하는 비키니걸스

친구들이랑 이트 휴가를 다녀왔어요. 바캉이 보이는 파란 바다와 수영장 딸린 호텔도 MAXIM 없인 한빈 없는 해병대죠!

개틀미너, e-mail 사연

아, 신은 잊고있던 바로 당신! (해후의 기쁨)은 아름다운 당신들에게 아무 쪽에도 쓸모없을 겁니다. 불쌍한 사랑 살리는 셈치고 선물을 인보하세요. 아래 독자 중 한 분을 직접 골라주시면 그분에게 책을 보내드립니다. 참, 여러분의 동의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드려야겠네요. 이거 보시는 대로 메일로 개인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해에, 해에, 해에.

A. "마누라가 도망갔소. 내 테크니컬 만족 못하겠다 하더이다." K.K.로, 스타트론 셋글
B. "이해 천연기념물을 넘어 마법사가 되려 하는 초자연 도태 슬로보입니다." 우니, 스타트론 셋글

C. "3개월 전 헤어인 여자 친구가 자랑 친한 친구랑 결혼하네요. 임신 8주입니다." 안교, 편지 사연

D. "BMW Z4 구입한 게 제일. 여친이 없어 대신 MAXIM에게 제일 먼저 자랑한 건 언저람!" 파치도도, e-mail 사연

남자의 피부는 비즈니스다

그의 비즈니스 아이템, 맨즈 클래식 더블 이펙트 비비크림



MEN'S CLASSIC
화장품 받기



자외선 차단 SPF40 PA++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UV A·B 동시 차단은 기본,
SPF40 PA++의 든든함까지



화이트닝

[미백 기능성 화장품]
칙칙한 피부를 맑고 환하게



트러블 방지

미소도 추슬뿔이 뽀루지로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세범 컨트롤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력과
피지 조절 기능으로
깨끗한 피부 유지

ACTIVE YOUTH OF STYLISH SKIN

행복하고 여유있는 삶과 성공에 대한 열정을 가진 당신에게 제안하는 All about style, 유니섹수얼의 진정한 그루밍을 Men's Classic이 지원합니다.



DORSODURO 1200



COMING SOON...

WAITING FOR CHALLENGERS. NUOVA DORSODURO 1200.

멈추지 않는 극강의 파워. 정교한 컨트롤. 무엇보다 완벽한 A.B.S와 ATC!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실현 불가능했던 아프릴리아의 트랙션컨트롤시스템(ATC)과 무한파워의 결합. 아프릴리아의 도르소두로1200은 어떠한 바이크도 완성시키지 못한 새로운 경지의 멀티퍼포먼스바이크를 실현시켰습니다. 듀얼스파크플러그, 유수냉파워냉각 4스트로크 DOHC V트윈엔진, 130마력, Ride by Wire, 브렘보사의 레드칼럼리퍼..... 이런 파워풀한 모든 장비의 움직임은 도르소두로1200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당시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완벽한 라이딩의 세계를 비로소 만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prilia®

SEXY! 벨라

CIRCUS

빅마마의 가창력에 육박을 더했으니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소!



일본

당신의 매력 포인트는?
잘 웃는다. 아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웃기기 쉬운
사람일 거대웃음!

별명은?

김후달. 길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다리가 앞
아서 활을 신으면 감당이 안 된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먼저 고백하거나 상대가 고백하도록 추파를 던진
다. 눈빛과 행동으로 좋아하는 티를 딱딱 낼 거다.

봄이 오면 마음이 설레나?

여자친구라 아낄 수 없다. 멤버끼리 농담 삼아 남자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슬프다.

러시아

당신의 매력 포인트는?
요리 실력. 못하는 음식이 없다. 그중에서도 닭볶음탕이
가장 자신 있다!

숨겨둔 개인기는?

다른 사람들 잘 따라한다. 빙의되는 수준이다. 내 안에 무
언가 있다웃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말 못하고 속앓이를 한다. 좋아하는 티는 내지만 좋아한
다는 말은 절대 먼저 못 꺼낸다.

요즘 고민은?

다이어트. 몸매 콤플렉스가 없었는데 화면에 예쁘게 나오
지 않아서 요즘 맹렬히 다이어트 중이다.

미유))
목걸이 오르시마
팔찌 에디터 소장
상의 감정색 스코와
김힐 모두 가이아

루시))
시스루 상의 클럽모나코
언더웨어
크레즈 캄바인 언더웨어
팔찌 오르시마
치마 탈걸
김힐 에디터 소장

MAXIMUS

BY 그릴체 PHOTOGRAPH BY ARC STUDIO WORDS BY 김혁성 FILM 김진욱
HAIR 해나 MAKE-UP 문선혜(아우라 02-542-0537) ASSISTANT 조유림



스마트폰
촬영하기



벨라 / 돈렛고

벨라는 이탈리아어로 '아름답다'는 뜻. 그 이름답게 신인 그룹 벨라의 이번 음반은 목소리가 약가처럼 어우러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드는지를 느끼게 해준다. 90년대를 풍미한 R&B 히트곡 '돈렛고'를 배짱 좋게 리메이크한 건 그만큼 노래 실력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빅마마, 버블 시스터즈의 계보를 잇는 실력을 그룹 벨라가 다행히 외모의 계보는 따르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자, 당신의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하라.

Q&A

화면보다 실물이 더 낫나?
그렇다. 화면에서는 사람이 보이더라, 난 결코 사람이잖대 웃음.

당신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까말스럼지만 예교도 많은 강아지. 친한 사람에게겐 예교가 많다. 하지만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금 섬섬해한다. 특히 화장실은 혼자 가면 너무 섬섬하다.

이성형은?

영화 (하-)의 이창재 책사하잖아. 그리고 이젠 좀 위험한 발언인데 "사랑해요~ GD"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좋아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그렇게 해본 적은 없다.

권해)

귀감이 본인 소장
듀가이어
팝미 오브사아
차미 담걸
킵힐 가이어

COOPERATIONS 오브사아(02-3446-8848) 가이어(02-3447-0388) 비비도(02-3447-7788) 클로버(02-3447-7788) 안네(02-3447-7788) 로(02-546-7764)

죽음의 공놀이가 오며, 아픈게



뼈와 살을 부리해주마.

ILLUSTRATION BY MORGAN SCHWEITZER

150km/h대 패스트볼을 맞으면 죽을까?

"투수에게 그대로 공을 던져 똑같은 아픔을 느끼게 해주고 싶을 정도다." SK 와이번스의 최정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아프긴 진짜 아픈 모양이다. 그럼 혹시 죽을까?

사실 150km의 공이 타자에게 미치는 힘은 28kg짜리 물체를 1m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받은 충격과 비슷하다. 관자놀이에 그 정도 충격을 받을 경우 두개골 골절, 뇌진탕, 뇌출혈 등이 올 수 있다. 투수가 던지는 강속구는 타수를 다치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 많지만 타자만 죽음을 이룰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오기요기
훈~ 해주세요.

아이고, 나 죽네!

죽은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130년의 메이저리그 역사상 투수의 공에 맞아 죽은 선수는 1920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타자 레이 채프먼이 유일하다. 그는 경기 중 언더 핸드 투수 칼 메이스가 던진 공에 관자놀이를 맞고 사망했다. 하지만 이후 선수들이 의무적으로 보호 장비를 착용하면서 레이 채프먼과 같은 비극이 재발할 확률은 비약적으로 줄었다. 즉 투수가 타자에게 레일 사구(死球)를 선물하는 것은 만화(메이저)에서나 나올 이야기라는 말

고장님, 이쪽입니다

확실하게 보내는 방법은 없다. 머리가 아니고 갈비대에 직격한 강속구는 죽음을 불러올 수 있다. 심장박동과 박동 사이 0.1~0.2초의 시간 안에 강속구가 가슴에 내리꽂히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작동하는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부정맥은 사망에 이를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러나 타자 여러분, 이상 죽일 마음은 투수의 사구에 보폭할 거면 투수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노리세요. 알겠죠, 정이 어린이?



사이드는 마구
원생생애

오늘 생수갈아주기? 땀 목욕...

랜디 웅의 비둘기 학살

2006년 그 유명한 '랜디 존슨 비둘기 살해 사건' 역시 강속구의 위험적인 면모를 여실히 보여 준다. 랜디 웅이 뿌린 150km/h가 넘는 강속구가 근처를 날아간 비둘기를 맞춰 죽사시킨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난 화요일이 190억 분의 이라고 한다. 해당 것들이 비둘기 목욕이 타자듯 놀랄만한 모습은 다시 봐도 정말 충격과 공포 그 자체다. 죽은 비둘기는 고이 묻어주었다고.



추억의 비둘기 목욕

작은 공이 더 많다

하기 픽

최고속: 190km/h대

이아스하키의 슬랩샷은 얇은 나무편을 뚫을 정도로 파괴적이지만 하기 샷수는 전신을 보호 장비로 감싸기 때문에 실제 사망하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리 단순하던가? 2002년 광운대학교 최승호 선수가 경기 중 목에 맞아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62세의 스웨덴 아이스하키 심판도 뜻밖에 픽을 맞아 사망했다. 관중석에 있던 캐나다 소년이 픽에 맞아 죽은 사고도 있었다. 이아스하키 링크에도 뽕뽕경 하나 덩어져야겠네.



골프공

최고속: 300km/h대

시원한 드라이버샷은 전좌반호부를 뚫을 정도며, 제대로 맞으면 골프공은 사람의 머리뼈를 관통할 정도로 위험적이다. 그러나 '까' 갤러리들이 타이거 우즈를 미친놈이라고 욕하기도. 골프장 안에만 들어서면 침묵을 지키는 거다. 타이거가 자기 머리에 사탕하키 구멍을 뚫어 놔 봐 주서라.

타면엔 골프공으로
가다. 타이거가 자기 머
리에 사탕하키 구멍을
뚫어 놔 봐 주서라.



오늘따라 공이 수박만 해네

서클럭

최고속: 330km/h대

배드민턴 서클럭의 강 스매시를 라켓이 아닌 얼굴로 받치는 것도 위험천만하다. 코에 맞으면 코뼈 골절 관데에 맞으면 관데 골절 눈에 맞으면 실명할 수 있다. 2002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배드민턴 은메달리스트 손승호 선수 역시 서클럭에 눈을 맞아 왼쪽 눈 시력을 잃고 각각 아시안수술을 받았다.



오!하
100원!

OVALE™

OVALE™ Industry는 유권 내의 약국체인을 3,000개 이상 보유한 이탈리아 LIFE™ 사와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담배 생산사인 중국 JOYE TECH™ 사, 그리고 한국의 ㈜잔티코리아가 공동 투자하여 새롭게 론칭한 전자담배 기업입니다.

행복 습관
행복 시작

우리 아이들의
개끗한 미소를 지키는

행복한 습관



Ovale Korea

(주)잔티코리아
www.ovalekorea.com

elips™



※ 모든 브랜드에서 1세 미만 흡연에 대한 판매가 금지되어, 어린이 흡연 금지에 유의하십시오.

MAXIM WANTS YOU!



MISS MAXIM
콘테스트 현재 상금

2011 MISS MAXIM CONTEST

1. 예선 통과시 MAXIM 한국판 화보 모델로 활동!
2. 단계마다 높아지는 온라인 콘테스트 상금!
3. 34개국 MAXIM이 경합을 벌이는 **MISS MAXIM 세계 대회** 참가 후보 자격 부여!

(※ 세계 대회 입상에 따른 특전은 MAXIM 미국 본사가 제공합니다.)

- 지난 MISS MAXIM 세계대회 입상자는 거액의 상금과 함께 뉴욕의 유명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하는 특전을 누렸다. 당신에게도 기회가 있다!

● 참가 신청 방법

1. 참가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2. 자신의 이름다운 몸매와 섹시함을 잘 표현한 사진 20장을 업로드한다.
3. MAXIM 독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쓴다.
4.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른다. 끝~

- 나이 직업 등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지만 남자는 받지 않는다.
- 네네인으로도 참가 가능하다.
- 통통해도 좋다. 자신감이 넘치는 여자가 아름다운 벨
- 등 하는 Tip? 당연히 섹시한 사진이 절대 유리하겠지?

● 특전

2011 간격으로 열리는 온라인 예선 콘테스트에서 MAXIM 독자들로부터 가장 뜨거운 호응을 얻은 참가자는 MAXIM 잡지 화보 촬영의 기회가 주어지며,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매 회차 예선 콘테스트 우승자는 2011 MISS MAXIM 준결승 콘테스트에 자동 진출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MAXIM 홈페이지(www.maximkorea.net)을 참조하라.

[문의] 에디터 김희성 070-400-8886
alice@maximkorea.net





Got MAXIM?



경고 ①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앱스토어에서만 그립니다. MAXIM은 폐양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은 아니어도 내 가족, 이웃까지도 물리게 합니다. 아이패드용 MAXIM에는 중독성 물질인 불용영상, 미공개컷, 독한농담, 우수암컷, 때깔기게, 교미사실, 독점해법, 거친수컷, 폐인!게임, 총질잡질, 프로운동, 새만차량, 오드바이, 만취음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국내 유료 아이패드 매거진 중 매출순위가 부동의 1위인가 봅니다.



애정운 살리는 집안 풍수지리

이 정도면 사치 멀쩡한데 왜 여친이 없을까? 풍수지리에 답이 있다고 한다. 하 어떤 밀저야 본인이나까 무슨 애긴지 들어나 보자. BY 김희성 ILLUSTRATION BY 전백



① 흰 종이로 장식책 뒤편으로 태극 문양을 그려 방에 붙여놓으면 질투심이 사라진다. 태극에는 기를 안정시키는 힘이 있다.

② 침대 옆에 스탠드를 두면 애정운이 상승한다. 당신의 집에 갑자기 여자 사람이 들어닥쳤을 때도 유용하겠지.

③ 꽃은 화력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정열(情)을 높여주니 연애운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무조건 생화여야 한다. 조화는 풍수에서 볼 때 죽은 기운을 내뿜기 때문에 매우 불길하다. 아아, 나는 십 수 년간 어버이날 부모님 가슴에 조화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때를이런 일인가!

④ 귀찮게 하는 이상이 있다면 큰 개를 길러라. 개 모양의 장식품을 현관에 놓는 것도 좋다. 단. 용띠, 개띠들은 개나 개 조각상과 공함(空)이 안 맞으니 피하도록 여기에 선인장을 함께 놓으면 효과가 더 크다.

⑤ 분홍색은 연애를 부르는 색이다. 분홍색 장옷을 입고 자면 자는 동안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겐 듣키지 않는 게 좋겠지?

⑥ 권태기에는 붉은색 요리가 효과적이다. 풍수에서 붉은색은 지극과 정열을 나타낸다. 붉은색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 잊고 있던 사랑의 감정이 불끈불끈 되살아난다. 괜히 비싼 돈 들여 스테이크 싸는 게 아니다.

⑦ 날카로운 물건은 어두어나 놉두면 다친다(응?). 풍수에서 날카로운 것은 살기(를 나타내므로) 칼이나 가위류는 아무 데나 놉두면 어두어든다. 이 일로 다투게 된다. 같은 안 보이는 곳에 두도록.

⑧ 혼자 산다고 집 안에 이불 한 개만 덩그렇게 깔아놓는 건 평생 슬로로 살겠단 거다. 작은 탁자라도 하나 사서 이불 옆에 놉두면 애정운이 쑥 올라간다.

⑨ 페트병 페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프라이팬이나 냄비 페로 먹는 건 애정운에 작이다. 동그맹형 하나를 대워 먹더라도 그곳에 보기 좋기 좋기 떨어야야 고자질을 면한다. 잊었네!

①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장난감이나 인형을 버려라. 뽕이 아니다. 29년 평생 연애 한 번 못해본 개그맨 김경진은 이쁜 호 인타투에서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인형을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피규어들은 이제 그만 보내주자. 응?

② 벨트, 넥타이를 부부나 연인이 함께 사용하거나,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두면 한쪽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다. 바꿔 말해 지금 여친이 지갑이면 벨트를 그녀의 허리에 돌려주거나 이부데나 풀어 차비(차비)하면 된다. 가다.

③ 바닥에 매트를 깔은 애정운이 상승하지만 집의 풍격과 맞지 않는 고급 매트는 그나마 있던 애정운마저 빼앗아간다. 마편, 신발, 이불 등은 화려한 매트는 이불과 같듯을 부르지 무한한 걸 깔아라. 사실 단칸방 원세살이에 고급 매트는 좀 거시기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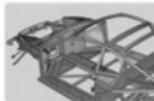
Drift Your Soul **SPIRRA**



이드림

스피라는 미드를 위한 레이아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드를 위한 엔진과 변속기가 차량의 중심에 위치하여 시차감 없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높은 완성도와 세밀한 핸들링 및 정확한 반응으로 움직이는 스포츠 드라이빙을 추구하는 스피라에게 이드림 레이아웃이 새로운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프레임

스피라는 달린 차량에 적용되는 모노코크 구조가 아닌,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프레임은 생산 공정이 복잡하여 일정한 무게 증가 및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여 스포츠카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카본 비드

스피라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카본 프레임입니다. 카본 프레임은 초강력인 동시에 가벼운 무게를 가진 뛰어난 강도를 확보해 줍니다. 카본 프레임은 인공적으로 제조되는 탄소섬유입니다. 우수한 강도를 확보하고, 내열성도 내열성이 뛰어나서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수제 슈퍼카 탄생

장인의 손으로 빚어낸 자신감!

전세계에는 유수의 명스포르츠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대수 세계 5위
자동차 생산 역사 55년의
자동차 강국 대한민국을 대표할
정통 스포츠카는 아직 없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세계의 명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국가대표가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스피라를 도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 뭐하지?

좋아친 날씨에 비해서 감절은 심심해진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생각은 MAXIM이 했으니 당신은 그저 따라만 와라. BY 김광민

주중에 X재지게 일하면 주말에는 뭔가 그럴듯한 일이 생길 줄 알았나? 당신에게 '대했' 하며 웃어주는 여자는 LG 나쁘다고 쓰고 했다고 읽는다) 상당원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신발을 패션의 핵심 척도도 당신은 어찌 배워치들 입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과감히 이태원에서 바우에게 들머보는 건 어만나? LG가 없는데 그곳은 프라임이 난무하는 헬트는 장소다. 당신이라고 박진정처럼 '백'에 마친그릴라가 되지 말란 법은 없지



구원이 영만이다. 허투른 선대를 구어려면 나이트가 잔라. 하지만 본인 말발이 영화 (아바론)의 초판이 수준이려면 집어치우고. 1년 신문을 발취해 줄이라도 하나 집어라. 돈은 날려도 시간 날려는 안 해라!

어찌피 그녀도 당신만큼 토요일 밤을 그늘 날라기 싫을 거다. 솔 췌진 걸치고 당신과 그녀의 마우스까지 물어입체를 시전하면 배가 타고 같이 누는 밤이 곧 찾아온다.



YES

YES

YES

멋지구리한 신발 정도는 갖고 있나?

NO

떡은 먹고 싶는데 마뜩한 설의 장소가 떠오르지 않나?

NO

떡차프곤 감정이 클라익스에 달했는데 운 좋게 켈라너를 하나 주했나?

NO

온몸이 육정으로 들끓고 있나?

START

슬칙히 대답 안 하면 "개라기!"

남는 건 시간밖에 없나?

현금 다발 묶은 밧을 고사하고, 먹고 죽을 돈도 없나?

그래도 외출은 가능하디?

뭘 그만해나. 편의점에서 최고급 티슈 하나 장만해라. 모티브에서 당신을 바라보며 거친 숨을 내뿜는 그녀와 호흡을 함께 하도록 쌓여가는 휴지통처럼 당신의 주말은 시그러다!



정말 아무 것도... 아무 것도 없나!

엄...그래도 집에 케이블 TV 정도는 있었지?

다행히 집에 게임기나 처마실 액주가 있나?

답이 없다. 당신의 상황은 아이유가 신물선을 달았다는 말만큼이나 충격적이고 슬픈 상황이다. 그저 하늘을 탄양이로만



열혈 야구 매니어로 변신해라 4경기를 땀만 재봐. 재재방까지 사수하면 주말은 거머도 나지 않을 거다.



당신의 열정을 심체를 게임에 쏟으라! 게임 도중 흡입할 때쯤엔 주말 밤을 하룻길 불태우는 건 일도 아니지?



OD MUSICAL COMPANY, CJ E&M and PHOENIX ENTERTAINMENT Present

Book, Music & Lyrics by JIM JACOBS and WARREN CASEY



QR코드
타겟하기



단 한 순간이라도 지루하다면 그리스가 아니다!

No.1 뮤지컬 그리스

2011.4.8 ~ 6.12 한전아트센터

Special Event

No.1 패키지 :: VIP석 3매 ~~21만원~~ → 12만원
:: R석 3매 ~~18만원~~ → 9만원

(필요일공연에 한함)

예매 | 오픈리뷰 1588-5212 | 인터파크 1544-1555 | 맥스티켓 1544-0113 | 비씨라운지 1577-4388 | 문의 | 오픈리뷰 1588-5212

[제작] OD 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협찬] LOUNGE



MAXIM KOREA

2권 이상 무료 배송
배송비 합계 기준 인터넷 최저가

MAXIM을 인터넷 서점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면?
 지난 호 MAXIM을 보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MAXIM DIGITAL CONTENTS

그대가 진정 MAXIM의 매니아라면
www.maximkorea.net으로 당장 달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다!

- 수시로 타지는 홈페이지 이벤트와 콜라보는 선풍 세례
- MAXIM 그화일 화보와 웹페이지 다운로드 서비스
- 감지보다 저렴한 가격의 MAXIM 매거진 보기
- 촬영장의 생중계가 살아 있는 MAXIM 영상 화보 무료 공개
- 감지에는 없는 마중개 화보 및 가사 감상
- 연예인보다 색다른 MAXIM 여성 독자 모델들의 화보 감상



CIRCUS

THE ONE KILLS ALL

세상에는 2, 3, 4...를 압도하는 'ONE'이 있다. BY 유승민

1



MONOKINI

어름에 수영장 눈팅을 즐겨본 이들은 다들 한번씩 느껴졌지만 비키니보다 더 남심을 자극하는 수영복이 있다. 비키니가 투피스라면 이것은 그 투피스를 교묘하게 연결시켜놓은... 이름하여 '모노키니'다. 모노키니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MAXIMO 모른다. 아마 가리고 있는 천 조각이 두 조각, 세 조각이 아닌 단 한조각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

2



INTEL i3-2100

인텔이 최근에 내놓은 차세대 보급형 프로세서 i3-2100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요 프로세서 한 놈의 성능이 전 세대의 상위급 프로세서였던 마러 47개짜리 쿼드코어 CPU 못지않기 때문이다. 반면 쿼드코어 프로세서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고 전력 소모도 한결 줄었다. 그런 면에서 미소녀 9명을 한 보따리에 쓸어담아 일석구조를 실현한 소녀사대를 인텔 i3 프로세서의 광고 모델로 사용한 것은 아주 뜻깊었다.

3

THE ONE IMPACT

남자 하나를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단시간에 세너 명을 거둔히 해내는 중이 필요하다. 맛이 약한 저타르 담배를 피우면서 줄담배를 물어뜯는 애연가에게는 '종이 같은' 저타르 담배가 필요하다. 적지 않은 1mg 담배들이 급연초인지 담배인지 모를 맛만 갖 맛만 갖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Y'들 중에 압도적인 'Y'이 하나 있다. 초저타르 담배 브랜드인 THE ONE은 타르 3mg 담배처럼 깊고 진한 맛을 내는 1mg 담배 'THE ONE IMPACT'를 내놓았다. 그것도 단단한 하드 필터를 탑재한 채

담배잎이 식물 상태일 때 맨 위쪽에서 가장 많은 햇빛을 받아 두꺼운 담배잎을 '임팩트 리프(Impact Leaf)'라고 하는데, 더 원 임팩트는 이 임팩트 리프만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셀 농안 모아서 만든 1mg 담배라는 얘기. 그래 우리가 찾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

이오, 썬!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각, 이웃까지 영향을 줍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니트로필라민, 니켈, 탄산, 비닐 크로라이드, 베스,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스승의 쿨직한 은혜 및 품 놀라기

부처반신

어린이 (만드는 날)

5월!

사랑, 동심, 자비가
넘친다. BY 김성현

스승의 날 - 스승님 몸으로 사랑을 배우시다

1. 우리 생명을 만들자꾸나

올해 2월 충남대 농업생명과 A교수는 10명의 여학생 허리를 감싸는 건 기본이고, 중국인 유학생 2명에게 떡볶이를 강요했다. 스승의 자나니 몸사(??)이 불편했던 여학생들이 학교에 장계를 요구했다. 그러자 관대한 교수님은 그들의 사인을 찍은 후 전자우편을 보내 협박하는 걸로 하하 같은 스승의 은혜를 베풀었다.



2. 종마의 여제자 사랑

자신이 종마라고 자랑하는 영국의 체육교사 드레이크는 아직 젖바레나 나는 14 세 여자들에게 중독성 강한 톨툴이 맛을 보여줬다. 에라이, 색을 뵈 어린 제자 2명은 그에게 푹 빠졌고, 비디오 촬영을 하러 흔쾌히 응했다. 붙어먹던 제자의 친구까지 건드려 보복나지 않았어도 그는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학교생활을 즐겼을 거다.



3. 이견 성추행이 아니야

2009년 11월 울산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맡은 교사가 같이 근무하는 기간제 여교사를 성추행했다. 그는 "부루스 한 번 땀고, 술이나 한 잔 다져라"고 권유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드립을 날렸다. 남자 생강가인 성희롱 톨툴이에게 빼앗겨 헛헛거리 할 수 있었던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생강가 성추행 개념도 모르니 어가기 없다.



어린이날 - 엄마, 비행기 우리친애 노수카 묻았어!

1. 어린이날 기념 대난투!

2009년 롯데와 SK 경기가 펼쳐진 어린이날이었다. 이전 경기의 빈발 시비로 롯데는 박재홍을 응징하려 했다. 여러 차례 그를 노린 공이 날아갔으나 놀라운 회피 실공을 발휘한 박재홍은 무사(?)했다. 격분한 롯데팬은 어린이날임을 망각한 채 경기장에 문란을 투척하며 폭주했다. 경찰의 도움이 없었다면 SK 선수단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지 못할 뻔 했다.



2. 잊지 못할 어린이날

2009년 어린이날 에어쇼를 찾은 어린이들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수원 공군 비행장에서 열린 에어쇼 도중 특수비행팀의 '볼레오' 항공기 대가 추락하는 장면을 라이브로 목격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속도가 빠른 상하이러 비상탈출을 할 경우 관람석으로 추락할 것을 우려해 죽는 순간까지 조종석에 집은 조종사의 실상상인 정신은 눈케 실만 하다.



3. 어린이 낚시 대성공

2009년 어린이날을 홍보를 위해 만든 대형 풍선이 오히려 어린이들을 공경했다. 전북 일성군 우수 의경공원의 대형 풍선이 어린이를 낚을 기세로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에 육한 어린이들이 다가가지 풍선의 이빨을 놓치지 않고 기세 좋게 타졌다. 그 덕에 4명의 초콜링은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어린이날을 두 번 다시 잊지 못하게 되었다.



석가탄신일 - 부처님도 이런 맹종에게 배를 자비는 없다

1. 돈 내야 하법!

50대 기파 스님이 머리 하나는 잘 골랐다. 작년 10월 침원과 거제에서 외국인들 고용한 마차지업소를 방문해 자신의 단체에 기합하면 불법영업을 고발하지 않겠다고 벌을 물었다. 피라리니 꺾은 머리도 그렇듯한 일벌에 업소 주인 14명은 1천30만 원을 갖다 바쳤지만 확실치 스님 코스프레는 신뢰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임은.



2. 몸보시를 하거나

올해 2월 나이 자गत이 차먹은 50대 기파 스님이 마상잔자를 자신의 속사로 유인해서 성폭행했다. 아버지의 병환이 잠구에 싸서서 그런 거라는 드립도 황당하네 이걸 치료해주겠다고 말을 성폭행하는 건 무슨 미친 짓인가? 맹종의 논리대로라면 아픈 아버지와 떡을 찾아야 하지 않은개 그래도 나를 스님을 연기하면서 남녀에 차이를 뒤셔나. 쫓.



3. 날 화나게 하지마!

올해 2월 50대 스님이 격투게임도 아는데 여신도의 징계 난입했다. 방범침을 제거한 맹종은 여신도의 코를 깨무는 등 수차례 가력했다. 게다가 이를 말리던 여신도의 발을 겸사겸사(?) 강제 추행했다. 여신도와 친밀한 관계여서 이런저런 도움을 했는데 여신도가 뺨을 까니 열을 받아서 그랬다나 어쨌다나. 부처반신해서 싸다구를 해



HER! 헐! HER!

그녀들이 말하는 나보다 가슴 큰 그 남자



가슴 없애기

➔ 내가 만난 능력자 소년

클럽에서 만난 미소년. 이야기가 잘 통해 MT로 이동했다. 그의 섬세하고 민첩한 손놀림으로 유제이탈 직전 그가 외이ச்ச조를 벗었을 때 정신을 되찾았다. 오목이 솟아있는 두 개의 구멍 그 곳을 빠져나왔다. 적어도 나보다는 작아야 하지 않는가?

K(22세, 대학생)

➔ 주부반에 가입하세요.

한 달 내내 잠수인 해래는 회원에게 평평을 권유했다. 온순하고 말이 없던 그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불러 불러 큰 소리로 화를 냈다. 가슴이 커 부끄러워 일반 수영복을 입을 수 없다는 것. 이렇게 말해 버렸다. "주부반으로 옮겨드릴게요." 다시 그를 볼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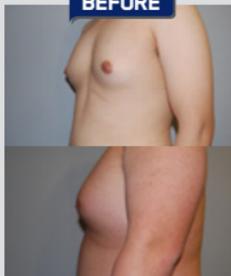
P(27세, 수영 강사)

➔ 가슴이 정말 몽글했다.

플리토니 사령관 해오던 우리. 번지 점프 도중 그가 작고 반짝이는 다이아를 손가락에 끼워줬다. 박한 감동에 으스스하기도 그를 끌어안았다. 그런데 뎅 걸? 감정으로 몽글해 진 것은 그의 가슴인가? 큰 가슴이 느껴진다. 그를 버릴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C(31세, 회사원)

BEFORE



AFTER



여자는 가슴 달린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유증이란 '여성형 유방'의 줄임말이다. 쉽게 말해 비대한 가슴을 가진 남성이 이러한 여유증 환자라고 할 수 있다.

싸고도 덩이변 3대가 멸망한다.

문제는 많은 병원들 중에서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 여유증 수술을 결정할 때 흔히 비유증을 생각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짙 비용의 병원일 경우, 몇 주간 특수 환자복을 입고 피통을 차고 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추가 비용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따라서 관리 소홀로 재발할 경우에도 무료로 수술 할 수 있는 병원이 좋다.

제때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짝 펴라

여유증만 전문으로 시술하는 병원을 찾아!

실루엣 성형외과의 윤상엽 원장은 이런 고민 많은 남성들을 위해 여유증 전문 센터를 따로 운영, 환자는 수술비용 이외에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수술 후 여유증이 재발하더라도 무료로 재수술이 가능하다. 상담 예약 시 초음파 진단은 무료인 것도 특징!

최소 절개와 최다 수술 케이스

실루엣 성형외과는 국내 3,500명의 최다 수술 케이스로 압도적인 '시술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첨단 의료 방식으로 2~3mm로 최소 절개하여 시술하는 것도 다른 병원과의 차별점. 너저분한 실 대신에 인체용 본드를 사용함으로써 수술 부위가 깨끗하고 수술 후 사귀기 가능하기 때문에 청결하게 관리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원이 필요 없이 당일 수술, 당일 치료로 추후 다시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 다른 병원에서 환자들이 재수술을 하기 위해 실루엣 성형외과를 찾았다고 하니 수술의 안정성과 테크닉, 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다.

남성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27년째 여친이 없는 이유를 너의 뒀한 성격 탓으로 돌리며 마인드 컨트롤에 올인하고 있다면, 닥치고 손전화가 들려 옆에 쓰인 번호로 연락하자. 중요한 건 마음이 아니라 예쁜 마음을 잘 담아줄 탄탄하고 평평한 그루터다. 실루엣 여유증 센터에서 말 못할 고민을 말끔히 없애 버리자.



윤상엽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전분야: 가슴성형, 여유증, 함몰유두, 유두축소, 복부성형

- 현 서울이산병원 성형외과 외래교수
- 현 실루엣 성형외과 대표원장
- 서울이산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 서울이산병원 유방클리닉 임상강사 역임
- 분당 수도병원 성형외과 과장 역임
-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이음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국제이음성형외과학회(SAAPS) 회원
- 성형외과학회 유방연구회 회원



http://www.gynecomastia.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52-15 실루엣 빌딩
4.5층 실루엣 성형외과(여유증 센터)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100m 앞
TEL. 02-3443-1180 / 02-3443-1280



치토스

언젠간 먹고 말 거야!

치토스를 만드는 회사, 어디라고 알고 있나? 오리온? BY 유은



치토스 神話

치토스는 우리나라 과자에서 같이 밥을 한 학생 그였다. 과자로 치면 새제자들 된다니까.

재혼이 잘못인가요

과자판의 월드 스타 치토스(미국 프리레이)는 당신이 기억하는 대로 우리나라에선 오리온 제과 상표를 달고 나왔다. 하지만 지금 슈퍼에 가서 치토스 봉투를 잘 한번 살펴봐라. 오리온이 아닌 롯데제과 상표를 달고 나온다. 대형 마트에 가면 다른 봉지에 담긴 미국 치토스(좌측)가 또 있다. 대체 치토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리지널 미국 치토스는 우리나라 치토스보다 훨씬 느끼하고 짭짤하며 더 자극적이다. 롯데와 오리온이 싸우는 통에 치토스 맛이 영 신통치 않다 싶으면 미국 치토스는 어떤가? 백태지 같은 당신 입맛에 나름 편함을 준다. 요새는 대형 마트에 가면 미국 치토스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맛은 그대로라니까!

오리온이 치토스와 결별한 건 이미 7년 전 거다. 프리레이가 사의 치토스를 국내에 들여와 대박을 거둔 오리온은 치토스를 해외로 수출까지 하려 한다. 치토스를 세계에 유통하는 프리레이(미션)은 용납할 수 없는 노릇. 뼈저리게 시전한 합작만능에는 결국 종으로 차리고 치토스는 한동안 한국에서 자취를 감추고 만다. "음, 치토스 이름 따위 이제 필요 없어"

이제 롯데가 놓인 오리온은 '투니츠'라고 이름만 바꾼 치토스를 내놓았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투니츠가 뭔지 잘 모른다. 명명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다.



투니츠가 뭐임? 아쪽이 진짜 치토스!

2006년, 치토스가 2년의 공백을 깨고 롯데 치토스가 나타났다. 우주공간이 된 치토스 판권을 롯데제과가 리버라운드한 거다. 맛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오리온이 거둔 만큼의 대박 히트는 없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여전히 치토스가 오리온 스타일인 줄 알고 있다는 거. 어쩌면 롯데는 치토스의 상표가 롯데나 오리온이 그런 거 아예 관심이 없길 바라는지도 모른다.



一. 한 학 최초의 사형성 과자

"한 봉디 데" 최초로 사형성을 자국하는 과자가 등장했다. 2007년의 과자 8나 더 붙었다고 준비들은 추석부터 중독자처럼 치토스 병문권을 귀찮아 한 박스에 한 봉지 품고 있는 '한 봉디 데'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날엔 인생 막장이라도 한 듯 기분 좋게 데미 슈퍼마켓으로 뛰어 간다.

二. 두 학 광기의 따조 사태

"이이 수순배를 따조에 당전하고 말았어요" "대환은 내년에 가고 일단 등록금으로 따조를..." "올해 국경 예식은 따조 때에 10주..." "따조를 내놓으면 유령사태는 미할 수 있을 거임" "유권자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따조를..." "같은 예물은 역시 따조를..."

따조를 깨치고 과자는 그냥 버리는 게 전혀 이상한 풍경이 아니었다. 이듬해 9시 뉴스 데스크에서는 '따조에 미쳐 치토스를 버리는 행태'를 비판하는 지령에 이르렀으나 이미 따조에 마쳐버린 전 국민은 따조를 대동령으로 추대할 기세였다.

三. 세 학 농심 격침

따조 광기에 휩싸인 준비들이 치토스를 사든 데 야광이든 자신은 달진하는 사태에 이르자 민심은 과자계의 조종명 '농심 새우깡' 미쳐 치토스에 따라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과 긴장에 휩싸였다. 결국 새우깡의 20년 이상은 신성 치토스에 의해 무너지고 만다.



BLIND TEST

그래, 과자 먹으면서 큰 회사들 싸움까지 신경써 뭐 해? 그저 맛있는 게 행이지 사람들은 뭐 할말을 때려할 '치토스'를 먹었다고 드 볼까? 굵구리며 이전에 저쳐졌던 MAXM 편집부에 롯데 치토스와 오리온 투니츠를 먹였다.

	롯데 치토스	오리온 투니츠
만들장 이영미		
에디터 고경희		
에디터 강상민		
에디터 김진숙		
에디터 김희성		
디자이너 장지현		
디자이너 장미라		
디자이너 임민하		

결론: 75%의 사람이 투니츠를 가리켜 "내가 알고 있는 치토스"라고 말했다. 역시 롯데 치토스가 맛은 치토스의 맛인지 몰라낼 수는 없나 보다.

그럼 가장 맛있는 2? : 당 빼고 MAXM 편집부 전원이 투니츠나 롯데 치토스보다 미국 치토스가 제일 맛있다고 답했다. 하우하게까지.

영광가득 광라지!

Miracle★

뮤지컬 <미라클>

작/연출 김태린

대학로 미라클 씨어터 1관

2010년 3월 1일 ~ OPEN RUN

평일 20:00 / 토,일(공휴일) 16:00 19:00(월 심)

일반 30,000원 대학생 25,000원 청소년 20,000원



미라클
공짜로 보기

<미라클>

SINCE 2003

2000회 돌파 !!!

15만 관객이 확인한

대학로의 스테디셀러 !!!



**양배추 쓰고 돌아다니느라
창피했던 그녀는... 다리가 아파
집에 가야겠다고 투덜거린다!**

DO 먼저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니 그녀를
당신 집에 초대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굵은 소금으로 아랫에서 위쪽으로 다리
전체를 마사지한다. 혈액 순환이 잘돼
부기도 빠지고 피부도 매끄러워진다.

DON'T 그녀의 신발을 바꿔 신는다.



**간신히 공원에 도착해 산책을 하고
있는데... 뜨거운 햇볕에 그녀의
머리가 익어간다!**

DO 양배추를 뜯어 그녀의 머리에 씌운다.
양배추가 마르면서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비직 마를 때까지 양배추를 씌워놓을 것. 머리
전체를 감싸야 효과적이다.

DON'T 찬물에 그녀를 목욕시킨다. 당신의
눈과 손은 호감하겠지만 그녀에선 혈액순환
장애가 찾아온다. 목욕을 시키려면 30℃
정도의 따뜻한 물을 스프레이 분사하여 몸을
구석구석 뒤아줄 것. 구석구석.

**양배추 쓴 모습이 웃겨 인증샷을
찍으려 하는데...**

더카 건전지가 다 닳았다!

DO 건전지가 하나라면 망치나 돌로
몇 번 두드리고, 건전지가 두 개라면
건전지를 깨내 양극과 음극이 서로
반대쪽에 오도록 놓은 다음 양손으로
10~15초 정도 문지르면 한동인 더
사용할 수 있다. 역시 음악의 조화는
좋은 것이어

DON'T 허를 갖대낸다.

**이제 다리는 안 아프지만...
눈에 소금이 들어갔다고
장정거린다!**

DO 파를 가져와서 파의 파란 부분을 그녀의
눈에 갖대낸다. 잠시 후 눈물과 함께 이물질이
나온다.

DON'T 호~ 불어준다친도 빼는 데는
오히려 이 방법이 좋을 수도 있겠다.



**소금은 빠졌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결국...
그녀의 코까지 막혀버렸다!**

DO 마름 적당한 크기로 잘라 그녀의 코에
끼워놓고 10분 정도 기다린다. 흐르는 콧물을
멈추는 데도 효과가 있다.

DON'T 그냥 입으로 숨 쉬려고 한다.



THE END

저 새끼랑
짖어?



MAXIM INSIDER

MAXIM을 보면 자다가도 딱이 생긴다! 곳곳에 숨은 선물을 찾을 준비가 됐나?

퍼줄 때 가져가라고!

GIFT LIST

도루고 페이스 세이빙 젤(20ml) /
남성화장품 맨즈클래스 데일리 폼 클렌저 /
프리아덤 스타일 필름 '올라가드' 체험권 /
MAXIM 과월호 및 6개월 정기 구독권 /
유지겸 (미라클) 티켓 / 유지겸 (그리스) 티켓 /
(오월엔 결혼할까?) 티켓

그 외에도 MAXIM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넘친다!



MAXIM 트레저
헌트~

MAXIM 5월호 속 광고와 기사에 박힌 QR 코드를 주목하라. 촬영 현장을 담은 영상은 물론이고 각종 이벤트와 선물이 곳곳에 숨어 있다. MAXIM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에서도 선물을 찾아내 즐겨찾기 하하라. MAXIM은 오늘도 우리 독자님을 데리러 만지기 위해 불철주야 마블방을 파고 있다. 언젠가는 MAXIM에 현금대비를 캐낼 수 있지?

문: www.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Maxim

MAXIM에 등장한 스타의 폴리로이드 사진을 원하나? 그럼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세상에 공짜 따윈 없는데

- 1 MAXIM 5월호를 구매한다.
- 2 가장 재미있게 읽은 기사를 3개 고른다.
- 3 자신의 블로그(이메일) 또는 트위터에 "MAXIM 5월호 BEST3"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관련 이미지를 첨부할수록 당첨 확률은 상승권을 높고 차승는다!
- 4 [블로그나 트위터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그녀의 사진을 적어 reader@maximkorea.net으로 메일을 보낸다.]
- 5 다음 호 MAXIM에 자신의 이름이 당첨자 명단에 올랐는지 눈에 붙을 커고 확인한다.

4월의 승리자는 MAXIM을 믿는 이철현 독자다. 차유람 선수의 폴리로이드 사진이 당선을 찾아갈 테니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가방에 스피커가!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피델레오 스테레오 백을 MAXIM 독자에게 쓰겠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해서 댓글글로 신청하거나, reader@maximkorea.net에 피델리티 스테레오 백 이벤트 응모란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라. 자세한 사항은 아래 QR코드나 잡지 뒤 쪽 브레드 뉴스를 참조하도록.



스테레오 백 받으러 고고씹!



BEAT THIS CAPTION



일 아이미아미!

이달의 도전과제



WINNER
자난 달 우승자

"이렇게 때리는데 왜 그리로 넘어가는 데?" - 아루xyz

도전과제를 골뎀히 분석해 뺨을 맞는 각도와 넘어지는 방향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낸 점을 높이 샀다. 불꽃 싸락신을 운운으로 채점한 이가 아래부터 삼번의 찾기 힘드 인도였다. 이 사진을 보면서 묘한 위화감을 느낀 오 예디터의 공감을 해소해달기 때문에 우승자로 뽑힌 건 아니 니 오해하지 말 것용! 이달에는 귀여운 걸스튜디오의 예디 영이 주인공이니 캐주얼한 재미의 밀몽선을 기대해졌다.

응모하기

- 1 걸스튜디오의 해피기 손가락으로 당선을 지켜봐! 한 달은 무엇보다도 솔직한 캡션은 배려
- 2 응모는 우편으로 (2~8세 사육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408입니다. 이메일은 captor@maximkorea.net 또는 캡션 달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를 하면 됩니다.
- 3 가장 MAXIM스러운 밀몽선을 내는 독자들께 [러시 술다나 버디베뉴를 선물로 주겠다. 뿌앙뿌앙! 나노 나노]



AND LOSER...
그리고 패배자들..

> 안아영 불러는 안돼 - 김원강

안아영 불러는 사수하기 위한 갈래원은 높게 사지란 '혹의 인간' 장사의 부재가 아쉽다.

> 유승민 나 이해해 바지에 똥이내고!

- 유승민오빠

자책(우기) 타는 냄새가 어찌기 난다. 그걸 고질적으로 고가 뻥 건 통이 어찌었다.

> 나도 못해 네 오발말! - 최영준

밀몽선을 달라고 했지 그해 상상을 하러곤 하지 않았습 니다. 독자님즈

SMOKE



ARE YOU HARD ENOUGH?

뻣뻣한 남자는 담배도 좀 뻣뻣해야 한다. BY 유유민

뻣뻣을 때 단단해야 할 것이 아니라 호를가린다던 배는 이도 참 인망하다. 설마 뻣뻣 물림을 령해지고, 푸글푸글해지는 게 당신 것 얘기는 아니겠지?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 리는 헛소리나 할 건가? 뭐? 무... 부러지기도 한다고?

뻣뻣지 않아야 할 것들



1. 뻣뻣 더 호를가려!

"비아그라, 시알리스, 자에나, 요새 좋은 약 많이 나와 있다." 침이 묻어서 눅눅해진 모양이 찌르러지고 당연히 뻣뻣도 좋지 않다.



2. 뻣뻣 나면 입에 위가 물어!

"남의 입에 묻히는 건 매너 문제다." 엄지손톱으로 밀러 끝을 살짝 핏기런 서 재를 뺏다 보면, 눅눅해진 필터 겹침이 벗겨져서 입에 붙기도 한다.



3. 뻣뻣 부러졌어!

"19 중 불러주게" 뻣뻣도 마찬가지로 담배를 피우다 보면 필터는 더 뻣뻣 축축해진다 두 조각으로 나뉘어 필터가 쪼개지면서 부러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HARD FILTER의 양대 산맥

그래서 담배에도 하드 필터가 필요한 거다. 뻣는 물건은 무엇이든 단단해야 맞지.



THE ONE IMPACT

누구보다 단단한 남자 바로 당신. 담배 또한 우주에서 가장 단단한 것으로 물어야 하지 않겠나? 국내에서 시판 중인 담배 중에 가장 단단한 '하드 필터' 담배는 의외로 자타공인 담배인 '더 원 임팩트'였다. 입에 물 때부터 비벼 가는 순간까지 필터가 뒤틀린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더없이 깔끔한 직면을 즐길 수 있다. 재떨이에 버린 공초비지도 다른 공초보다 반듯하고 뻣뻣하다. 개암이 끝나도 수그리들이는 재차려.



KENT HD

'더 원 임팩트' 외에 다른 하드 필터 담배로는 KENT HD가 있다. KENT HD는 속이 빈 하드 필터를 채택하고 있어 '공간 필터'라고도 불린다. 처음에 불었을 땐 '더 원 임팩트' 만큼이나 딱딱한 느낌을 주지만 반쯤 피우다 필터가 침에 젖으면 그 형태가 구겨져 가나 함량이 찌그러진다. 속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하드' 할 이 다소 부족한 KENT HD에는 대신 향신료 성분도 들어있다.



보충수업 시간

브라질 전통무술 카포에라

물구나무를 서지 못하는 당신에게는 사람 같지도 않아 보였지만..



카포에라 고수 김영인

누나, 패리지 마세요!

카포에라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한다.

1800년대 브라질에 잡혀온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만든 무술이다. 음악과 함께 수련하기 때문에 리듬감 있게 비쳐진다. 초가에는 낮은 자세와 느린 움직임이 특징이었지만 최근에는 화려한 발차기와 다양한 테크닉이 더해졌다. 전통을 고수하는 그룹, 현대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그룹 등 종류도 다양하다.

카포에라는 언제 시작했나?

올해로 9년째다. 카포에라의 독특한 모습에 흥미를 느껴 시작하게 됐다.

남자가 배우면 어떤 점이 좋나?

몸의 유연성과 근력을 한류에 키울 수 있다. 2~30대 남성이라면 음악과 함께 즐겁게 배울 수 있어 금상첨화다.

카포에라의 대련을 브라질어로 조구라고 표현한다. 사람들이 주위를 원호로 둘러싼 공간을 '조구'라고 부른다. 조구 안에서 두 선수는 상대방에게 공격하지도 최대한 경쾌하게 대련을 펼친다. 상대에 따라 움직임의 강도도 달라진다. 자도자의 하위인 조자터프턴 대련이 뛰지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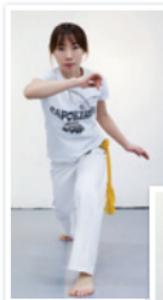
사도 에이류이지 캄파스를 주고받고 있다.



한 사람은 머리를 바닥에 댄 공격자세 헤드스탠드를 하였고, 다른 사람은 파리푸조 자세를 날리는 중이다. 따로 놓고 있는 줄 알았어

배움의 시간 기본 동작부터 꾸준한 연습하면 당신도 <철관>의 예다가 될 수 있다.

오빠 뭐라고?
할 안 돌려



✓ 징가
기본 스텝으로 좌우로 이동하면서 발는다. 모든 동작의 시작과 끝이며, 다른 동작과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 에스카바 리메라우

기본 회피 동작으로 자세는 낮추며 상대의 킥은 계속 주셔야 한다.



✓ 에스카바 지코스타
에스카바 리메라우와 비슷하지만 징가 자세에서 뒤로 파하는 동작이란 점이 다르다.



이게 레알 헤드스핀이잖!



✓ 메아루지 캄파스
손을 바닥에 짚은 채 상체를 낮게 회전함과 동시에 발도 회전하며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 회피동작처럼 보이지만 빠른 공격 속도와 데미지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킥 기술이다.

지금은 4시 55분



✓ 파리푸조
제자리에서 점프해 몸을 회전시키고 동시에 두 발로 공격하는 기술이다.



✓ 깨다지 횡스

몸을 낮추어 공격을 회피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는 자세다. 허뿔!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눈성형! 남성 눈 확대술로 가능하다!

BY 유승민
PHOTOGRAPH BY Y TEAM

정말 작은 눈이 매력 있나요?

결혼적령기인 직장인 송홍중(가명, 32세)의 가슴아픈 이야기! 최근 몇 년의 여성들과의 만남에서 항상 '작은 눈이 매력적이네요'라는 얘기를 들었다. 평소 눈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콤플렉스가 있었던 그는 이런 일들에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당장이라도 수술을 하고 싶지만 혹시나 쌍꺼풀이 생겨 느끼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너무나 걱정만 앞선다고 한다.

승송현, 권상우, 소자섭은 쌍꺼풀이 없다?

잘생긴 꽃미남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쌍꺼풀이 없이 큰 눈'이다.

요즘 작은 눈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자는 물론이거니와 남자 또한 눈은 자신감의 상징이다. 눈이 작거나 계슬초래하면 인상이 부드럽지 못하며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남성들이 눈에 대해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눈의 경우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치유보다는 확실한 치료인 수술이 제일 빠른 방법이다.

하지만 누가 알아볼까? 혹은 남자가 무슨 수술을 이라는 생각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 눈 확대술로 쌍꺼풀 없이 자연스러운 큰 눈이 가능!

남성 눈성형에 대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김진 원장은, "쌍꺼풀 수술을 원치 않는 분들을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티가 나지 않는 눈 확대 수술이다"고 한다.



김진성형외과 김진 원장은 "남성 눈성형의 경우 자연스러운 모양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성 눈 확대술을 통해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눈은 감고 있다더라도 눈꺼풀에서 수술 흉터를 발견하기 어려워 화장을 하지 않는 남성에게는 매우 반가운 사실이다"고 강조한다.

김진 원장에 따르면 남성 눈 확대술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술개념에 대한 이해와 많은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

"일반적인 쌍꺼풀 라인을 낮게 잡는 속쌍꺼풀 수술과는 달리 남성 눈 확대술은 눈꺼풀 피부구조의 교정을 통해 눈꺼풀의 뜨임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안구노출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드물게는 눈꺼풀을 차켜드는 힘을 함께 보강해주기도 한다"고 강조한다.

눈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너무 변한다거나 성형한 티가 나는 것이 두려워 수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눈을 충분히 확대시키면 쌍꺼풀은 생기지 않는 눈 확대술 방법이 있다. 쌍꺼풀은 없지만 시원하고 큰 눈을 원하는 남성이라면, 남성 눈 확대술 문의를 통해 달려진 내 눈을 보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김진 원장
의협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성형외과

전화번호: 02-3345-4514
<http://www.meddoctor.co.kr>



안구안정 및 견출



5%까지 떨어졌다. 우리 들어오고 나서 망했다는 소리 많이 들었다.

최근 <빅패>에서 거지 '말승' 역할을 맡았는데, 어떻게 배역을 따냈나?
진짜 거지 같아서 캐스팅됐다. 그런데 거지 대장이 포도청 고나눔로 직업을 바꿔 드라마에서 잠갔다. 직업을 바꿀 땐 생각을 좀 하고 바꾸면 좋겠다.

연기해보니 어떨었나?

의상이 거지 옷이라서 겨울에 너무 추웠다.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질려서 슬프다.

즐거보는 TV 프로그램 있나?

<해피투게더>, <감성장>, <한남만>. 그런데 나는 인기 프로그램엔 안 나오고 시청률 한 자리 프로그램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을 때 나를 한 번씩 쓰는 것 같다. 아직까지 잘 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다.

살면서 해본 일 중에 가장 미친 짓은?

원숭이 뺨를 핏어하는 UCC를 찍었는데, 그 원숭이가 플루에 걸린 원숭이었다. 변종 플루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웃기라고 핏어 먹었다. 그리고 자동차시장에 맨몸으로 들어간 것. 몸이 폐수처럼 피부병으로 엄청 고생했다.

살면서 들었던 가장 상처받은 말은?

이름이 김경진인 여고생이 "내가 왜 당신이고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로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나?"라고 남긴 병영록.

당신이 죽으면 누가 가장 슬퍼할까?

부모님(엄 박영수) 사장님, 박 사장님 이외로 정이 없어서 슬퍼할 거다. 방송에서는 웃기려고 노예 계약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잘 챙겨준다.

꼭 전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게 있나?

비스 샐러드며. 딱 한 번 기뻐했는데 맛있었다.



모태슬로 김경진

29세까지 (연애) 못해본 남자. BY 김희성 ILLUSTRATION BY 이은학 ASSISTANT*박영일*누리

+ 자, 어떻게 죽고 싶나?

무대에서 죽고 싶다. 거짓말이고 24시간이라도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다가 죽고 싶다. 스물하홉 먹을 동안 아직 연애를 한 번도 못해봤다.

하지만 트위터나 미니홈피에는 미녀들과 같이 찍은 셀카를 종종 올리던데? 딱 거기까지다. 거의 말도 안 한다. 내가 '사진 한번 찍을래?' 하고 같이 찍은 짓뿐이다.

수령 알람 청다래도 당신을 좋아한다고 했다.

좋아하면 뭐하네 안 만나주는데. 어떻게 하다가 연락하게 됐는데 비쁘다고 혼련해가 한다고 하더라

강예빈, 구지성과는 무슨 사이인가?

강예빈과는 추석 때 문자하는 사이. 그리고 나 이제 구지성 안 좋아한다. 여의도에 있는 수많은 여자 중 '명일' 뿐이다.

죽기 전에 괴롭히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군대에서 날 괴롭혔던 고 촛가루 선임병. 중학교 때 구레나룻 꺾은 산생님. 나 못생겼다고 악물리던 친구들..

뭐라고 놀리던가?

쿵이 록 튀어나와서 '미녀'. 애들이기도 놀라서 암이한테 성형을 해달라고 졸랐더니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해준다고 해 전교 5등까지 했다. 코를 고 치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코

보다는 눈이 문제. 눈보다는 차가 교정을 먼저 하고 오라고 해서 결국 못했다.

원래 개그맨이 꿈이었나?

원래 영화를 하고 싶어서 동남을 튀기면서 돈을 모았는데 사람들이 "니 영화 쓰래기?"라고 해서 과감히 포기했다. 그러는 중에 20년 동안 개그맨이었던 형이 같이 시청 보자고 해서 갔다가 그 형은 떨어지고 나만 했다.

도대체 시합장에서 무슨 짓을 한건가?

미친 착하고 할 수 있는 거다했다. '지킬 앤 하이드' 흉내도 냈는데 "역대 공채 사상 나가 제일 웃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하지만 내가 들어오고 나서 17%이던 <개그> 시청률이 석달 만에

♡ 오월의 신부? 부러우면 지는거다!



공연으로
5월 데이터

싱글녀들의 속마음을 리얼하게 파헤치는 연극 <오월엔 결혼할꺼야>의 발칙한 리서치 결혼을 하고 싶은, 혹은 하고 싶지 않은 2030 여우(女友)들의 영글한 속내는 무엇인가요?

20대 초반



- YES -

- 남자들이 원하는 건 아이돌! 어릴수록 좋아한다!
- 쪽쪽뿜방 S라인 몸매 만들어 '취직' 가는 것이 최고!
- 상위 1% 현빈 같은 사람이라면 지금당장 OK!

- NO -

- 최소 10명 정도 사귀고 난 뒤에나 답할 수 있을 듯.
- 지금은! 잘나가는 커리어우먼이 되어야하는 시기!
- 웬 결혼? 생각조차 안해 봤는데? --;

- YES -

- 계란 한판? 생각만 해도 싫다 -_+그 전에 끝내겠어!
- 나보다 못한 친구가 먼저 결혼하는 꼴은 못보지!
- 늙어서 아이 낳으면 고생만 한다드는데...ㅠ_ㅠ

- NO -

- 조금만 더 기다리면 키, 돈, 능력 모두 갖춘 남자 만나지 않을까?
- 아직은! 결혼보다는 연애만 하고 싶다!
- 결혼자금도 없는데 무슨 일부터 하고~돈부터 벌고!

20대 후반

30대

- YES -

- 외로운 것도 이제 지친다....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다.
- 친구들이 남편 & 시댁 & 육아 얘기만 해서 짜증난다. 그냥 나도 해 버리고 말지! <_<
- 여태까지 뿌린 축의금, 돌잔치 전부 회수해야지!

- NO -

- 결혼하고 싶어도 이젠 남자가 없다. 제길...꺼져버려!
- 현실에 찌들기보다 화려한 골드미스로 남겠어!
- 이미 늦었다.....귀찮기도 하고 -_-a

♥ 참여는? 연극발전 카페 <http://cafe.naver.com/thebestplays> go!

♥ 확인은? 5월 20일 '연극발전 카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5월 15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확인!우왕!어하세요~

♥ 혜택은? 추첨을 통해 2030 링크로를 100% 연극 <오월엔 결혼할꺼야> 관람기회를 드립니다!



오월엔 내가 먼저!

결혼할꺼야

동승아트센터 소극장 ~2011.6.6(mon)

예약 문의: 1544-1565 www.thebestplay.co.kr 문의: 021-766-6007

작: 김효진 | 출연: 윤영민, 배정화, 장경희, 최대실, 김남애

(왼쪽) 롱 드레스 제이미란벨
(오른쪽) 골드 망글 제이미란벨

!야광토끼!  임유진

RATED MOST WANTED

홍대출 아광토끼가 들려주는 관능적인 음악에 몸을 맡기면 그곳이 바로 댄스 플로어!

BY 김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공경희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ASSISTANT 조유림



‘홍대 인디 여가수=청순한 홍대 여신’이라는 진부한 공식을 벗어났다.

별 생각은 없다. 아직 ‘내가 유행’이라고 딱 잘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

‘아광토끼’라는 이름은 어떻게 탄생한 건가?

토끼 목걸이, 실버나인 패밀리와 인형 등을 많이 모았더니 친구들이 ‘아광토끼’라는 이름을 붙였다.

〈플레이보이〉의 토끼는 색시의 상징이다. 그렇다면 아광토끼의 토끼는?

차차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나도 기대 하고 있다.

이름처럼 밝아 되면 등용이 확신되는 아형성 생물인가?

작년까지는 음반을 내면서 세 마음, 세 옷으로 살려고 자정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착한 아인이 오히려 번식했다. 오빠라는 유지선이 되고 싶어 더 부지런하게 사는 건지도 모르겠다. 정작 노래는 정들지 못하는 밤에 많이 만들었다(웃음).

음반 제목이 〈Seoulite(서울라이트)〉다. 당신이 보는 서울 아형은 붉은 네온 십자가가 지배하는 식악한 풍경만은 아니었나 보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늘 더 큰 세상을 꿈꿨다. 그래서 20대 초 중반엔 외국을 전전했다. 서울로 돌아오면 나 자신이 패치처럼 느껴졌다. 음반 작업도 미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묘한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는 바람에 미국에 있는 프로듀서와 이메일로 연락하다 서울에서 음반을 만들었다. 그때 시카츄렐, 사랑처럼 도사도 인연이란 게 있던 걸 깨달았다. 어차피 나도 ‘Seoulite(서울사랑)’ 아닌가. 그렇게 생겨났다. ‘Seoulite(서울라이트)’도 더 디어리워 보이더 재밌음.

말랑말랑한 노랫말과 대비되는, 세련되고 동화적인 시무드가 인상적이다. 의도했나?

의도하지 않았다. 자신의 음반을 객관적으로 보는 건 사실 어렵다(웃음). 그래서 이런 평가가 오빠로 신선하고 재미있게 느껴진다.

‘댄스 비트와 유연한 시무드가 공존하는 아련한 일

렉트르 팝사운드’라는 전문가의 음반 평은 너무 어렵다. 당신 음악은 한미도?

나도 한미도로 설명하지 못하겠대(웃음). 대신 장르 는 무엇이라고 부르면 상관없다.

‘검정차마의 카보디스트 출신’이란 타이틀을 자랑해 리가는 커녕 오히려 검정차마를 적극 활용했다. 검정차마에 아광토끼가 뭘 할 거라는 부담감은 없었나?

오히려 검정차마에게 미안했다. 그를 너무 판매(?)하는 건 아닌지 고민 생각까지 했다.

검정차마는 2008년 걸작 데뷔해 가요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모던록 밴드다. 2010년 제7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모던록 음반상을 수상했다. 김철 및 나는 시무드에서 시카츄렐 노랫말이 잘 이루어진 중독성 있는 음악이 매력적이다.

당신이 검정차마보다 잘하는 걸 한 가지만 말해달라. 쇼케이스에서 검정차마의 조효일이 한 말따따나 북음밥에 설령을 넣는 건 빠고!

억울하다! 그때 만든 건 북음밥이 아니라 데리야키였다. 그런데 내가 검정차마보다 얼굴은 좀 낫지 않나(웃음).

쇼케이스에서 ‘데이트할 때 뛰어 나가려고 하이하일 대신 운동화를 신는다’는 당신의 말에 흥분한 솔로 수컷이 많았다. 이상형을 공개하라!

데이트할 때 뛰어 나가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2배는 더 신난다. 이상형은 웃을 때 귀여운 사람. 성격이 예뻐한 편인데 이런 날 다 받아주는 사람이면 공상형화하면 그런 정말 이상형일 뿐이지.

인디 레이블도 아닌 독립 레이블 소속이다. 활동하다 보면 불편사항이 쏙될 거다.

음반을 제작하는 데 예산처럼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서 기획사나 레이블이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유 지선이 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많아 매니저는 필요해서, 마음 맞는 곳이 있다면 들어가고 싶다. 원래 계획은 세우거나 거절하는 걸 잘 못한다(웃음).

악플에 시달린다고 들었다. 가장 인상 깊은 악플은? 아직 유명하지 않아서 악플이란 건 없었던 얼굴이

못생겼다는 댓글이 가장 슬펐다.

MAXIM의 인터뷰 섭외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

“을 것이 왔구나라” 아광토끼의 콘셉트가 원래 ‘섹시’였다. 농담 삼아 ‘MAXIM을 찍어야지’라고 말했는데 집 중 첫 인터뷰로 MAXIM과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정말 놀랐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club.world.com/reonbunny를 방문해주세요!”

접수 완료

아광토끼는 뭐 하는 토끼야?

아광토끼는... 검정차마의 카보디스트 임유진의 솔로 프로젝트다. 2010년 검정차마의 조효일이 미국으로 떠나고 후 본격적으로 음반 작업을 시작했고, 지난 3월 데뷔 앨범 〈Seoulite〉를 발표했다.

아광토끼의 추천 음악 일련연 자스타스의 신보 (시벨리아제이션), 공연은 역시 아광 토끼만 한 게 없다.

아광토끼에게 북극곰이런? 맨얼굴이 먹 먹서 부러운 존재



COOPERATIONS www.maxim.com 02-7631-7634



게임 영상 보기



피칭갑 접속과 동시에 당신의 5월은 로그아웃될 거다. by. @성민

온라인 게임이 떴세!



솔저 오브 포춘

기종 PC / 장르 전략 FPS

제퍼사 드래곤 플레이

추천 영상: 영웅난 FPS 게임이 질린 게이머 경쟁 게임 (5분야담, @야) **한디미로?** (솔저 오브 포춘)의 온라인 버전 **별점 ★★★★★**

PC판 (솔저 오브 포춘)은 출시 당시 충격적인 그래픽이라고 쓰고 시지 절단이라 읽는대로 미니마를 앙신했다. (솔저 오브 포춘 온라인) 역시 마찬가지다. 총을 맞는 것으로는 게임 오버가 되지 않는다. 몸과 팔다리가 이별하면 핸디캡은 생길 지라도 게임 진행은 쫓 가능하다. 그러니 게이머는 테라리스트와 융병 중 한쪽을 골라 나머지 녀석에게 지옥행 티켓을 끊어주는 일에 매진하

면 된다. 최근 서비스된 게임치고 요구하는 컴퓨터 사양이 높지 않아서 누구나 같은 PC방을 가지 않고 집에서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던 게 강점이다. 최적화도 잘 돼서 진행 속도도 만족스럽고, 회관하게 피칭갑을 하는 전투 장면은 게임의 긴장감을 한층 높인다. 당신이 (솔저 오브 포춘 온라인)을 플레이한다면 더 이상 어설픈 플레이를 할지라도 다는 좀비에게 총질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 일은 없을 거다. (서든어택) 급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 게임을 위협할 FPS 게임을 찾기는 어렵다.

다크 블러드

기종 PC / 장르 전략 액션 RPG

제퍼사 엑트즈 스포츠

추천 영상: 게임의 손익 온라인에서 로그아웃 게이머 경쟁 게임 (연호전파야) (로스트호크) **한디미로?** (다크 블러드)의 3인용 버전 **별점 ★★★★★**

'형님 게임'이라는 별명처럼 성인 남성 게이머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딱딱한 세상을 사는데 굳이 게임에서까지 머리를 싸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다크 블러드)에 몰인 중이다. 전략 액션 RPG를 주장하는 게임답게 적들을 때려잡는 소맛 하나는 끝내준다. 몬스터를 한 곳에 쓰그리 모아 일방 타치는 사냥도 신났는데다 조차 방법이 간편해서 다양한 연계기로 공보를 만드는 재미가 끝내준다. (다크 블러드)에 빠지면 출근시간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게임에 열

중하게 되는 이유다. 별다른 스타마 케팅을 팔치지 않았음에도 PC방을 죽음장은 직장인이라고 쓰고 PC방 죽음이라고 읽는 데에게 의한 게임으로 떠올랐으니 재미에 대한 걱정은 접어라, 그리고 하나 대 게임계의 물을 더럽히는 시끄러운 초콜링을 찾아볼 수 없던 것도 (다크 블러드)만이 가진 매력이다. (안서)



PSP 게임 3종 세트

소니는 NGP가 나오기 전에 PSP로 흥을 샘내다

슈퍼로봇대전 Z 파제

'슈퍼로봇대전'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불타오르는 게임 덕후가 없을 거다. 이번에 PSP로 출시된 (슈퍼로봇대전 Z 파제)는 20주년 기념작답게 그동안 모습을 감췄던 로봇들은 물론 열혈 용자들의 대표주자 그랜라간까지 온갖 슈퍼로봇들이 총출동한다. 아쉬운 건 그래픽보다 읽은 게임 볼륨. 남자 주인공이 혼자 아싸싸는 값싼 설정 때문이다.

SNK 아케이드 클래식 제로

당신이 80년대에 태어난 올드게이머라면 여기에 탈재민 게임 중 하나를 즐겨본 추억이 있을 거다. 콧물 칠칠 울머 오막실에서 죽자 실자 매달린 게임을 다스림 PSP로 옮겨는 재미가 쓸쓸할 거다. 우라역기면 연봉, 아치비산다는 게 다 추억을 재민, 삼행 우라역기며 사는 것 아니냐.

어신전쟁 페르소나2 직

한글화가 끝났지만 (페르소나2)를 생략하고 담담했던 큰 큰 다진다. 리메이크된 (어신전쟁 페르소나2 직)은 시스템 자체가 친화하지 않을뿐더러 다소 매력 없다. 전작을 즐긴 황학의 팬이라면 상심했겠지만 (페르소나 시리즈)를 처음 접한다면 손스러운 때문에 거부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것만 극복할 수 있다면 나름 즐기기 괜찮은 RPG다.

옥보단 여배우 열전

살내움을 맡은 순간, 이름이니 내용이니 하는 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네.



여고편 보기

안 추워요?

"아유 ㅎㅎ이랑함~ ㅎㅎ~"



전설의 시작
옥보단, 1995



주홍

이름이 주홍인 흥공배우라는 것외엔 더 이상 아는 게 없다. 1편에서 남장여자
로 잠깐 등장했던 그녀의
극중 이름은... 아무튼 기
억하는 건 뒤처기를 부르

는 저 요사스러운 고양이새끼!

사기의 역습
옥보단2-옥녀심경, 1997



이러진

주인공이 사귀는 말에 혹
했다가 오고 사기의 모습에
놀랐었지. 오히려 정조대를
차고 애간장 태우더니 끝날
무렵 놀라운 섹스신을 펼
친 심저 사기외도 불어

역전 이러진의 영영이 무브먼트가 인상적이었다.



1995

VS.

2011



왜 안 나오나 했다

옥보단 3D, 2011년 5월 12일 개봉



하라 사오리

3편이 아닌 3D다. 여주인공은 일본 AV 스타 하라 사오리다. 탐스러운 가슴과 요
사스러운 눈빛이 매력적이다. 그 외 섹스로운 여배우들이 다수 등장한다. 이름도 모르
고, 성도 모르지만 상관 없다. 3D로 눈 앞에서 흔들리는 가슴과 엉덩이를 보는 것만
으로 충분하다. 옥보단 전매특허인 쇠사슬신마저도 친화했다. 중국 본토에선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아서, 이걸 보고 중국에서 흥공과 대만으로 관객들이 몰려와 이미
<색, 계와 (이비타) 스코어는 기쁘히 돌파했다. 이 영화가 조선통돌이를 얼마나 뽀
뽀하게 일으킬 수 있을까?



무조건
살고 본다.

[미세타]
4월 20일 개봉



스스로
전설이 된다.

[삼국지명왕 권유]
5월 19일 개봉

이달의 신작

남자의 도

깜깜하기만 한 중간고사, 비참한 애인, 취업 낙
방, 짝사랑하는 친구... 모든 게 엉망이다. 이 밖
엔 세상, 당신은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



인간이길
포기한다.

[엑스맨
: 파스트 클래스]
6월 2일 개봉



인간의 한계
를 넘는다.

[법정스님의 의자]
5월 12일 개봉
[바보야]
4월 29일 개봉



신이 된다.

[토르]
4월 29일 개봉

1 <나루토>의 사쿠라

일편단심 민들레 나루토 따위 접어둔 채 나쁜 남자 사스케만 죽여라 죽어다니는 진상(?) 캐릭터 만화든 현실이든 대세는 나쁜 남자다.

2 <블랙 록 슈터>의 블랙★록 슈터

일라스트 캐릭터로 출몰해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졌으니 나름 출세했다. 스토리의 개연성 따윈 밥 말아 드셨으니 그저 푸른 불을 눈여겨 보고 있는 소녀 정도로 알아두자.

3 <성검의 블랙스미스>의 세실리 랩벨

이건 뭐 기사라는 여자가 칼 만드는 도공보다 약하니 이걸 어쩔... 하지만 글썽한 가슴과 메이드복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의상은 참으로 마음에 든다.

4 <내일의 요이치>의 이카루가 카고메

그녀를 귀여워할 순 있었지만 사모하면 곤란하다. <내일의 요이치>에 등장하는 엄청 귀여운 막내 동생이다. 이런 캐릭터를 보고도 허약대면 전 정말 오덕사도도 아니다.

5 <에반게리온>의 소류(사키나미) 아사카 랑그레이

<에반게리온> 파에서 신나게 폭주해버린 츠데레 아사카 랑그레이! 수많은 오덕들의 마음을 흔든 그녀의 발차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6 <뽕뽕뽕 뽕로로>의 패티

<뽕뽕뽕 뽕로로> 37에 출연한 보라색이 완전 질 어울리는 매력적점 핑크 소녀 여성스러

운 의외로 달리 달랄한 성격으로 뽕님 추종자의 사랑을 한눈에 받았는지?

7 <레로의 사역마>의 루이즈

명문가 바라질 공작가의 상속녀 웨이크고, 츠데레의 아이러니다. '사교려원, 이 통개야!'라고 떠들며대지만 교육 한 번 안해주면 불이 뿜개지며 힘을 알아버리는 귀. 귀요미다.

8 <늑대와 황신묘>의 호로

이런 늑대라면 언젠가 인간이기를 포기할 자신이 있다. <늑대와 황신묘> 인가의 8월은 그녀 덕분이란 데 100원을 건다. 늑대 귀도 모에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는지 이미?

9 <강각의 레기오>의 페리 로스

츠데레의 대표주자 중 하나. 성질만엔 냉정하고를 박살(?)개는 미스녀가 당시에게만 수줍게 손을 내린다고 생각해 봐라! 살살 녹을 걸 이미?

10 <동방프로젝트>의 플라망

귀여운 얼굴에 속으면 곤란하다. 당시의 증증 증. 조부 나이에도 밀착하는 48세의 여자 캐릭터다. 하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모습을 유지한다면 그 정도 나이(뽕)이 가볍게 웬?

11 <로자리오와 펠리아어>의 시라리쿠 미조레

초쿠네가 쓴 신문 기사를 읽고 팬이 되어버린 소녀. 이 기사를 읽고 내 팬이 되어준다면 그것 신문기사보다 1000배는 재미있는 덕택일 기를 힘을 기르쳐 주겠다.

BONUS TIME

오늘따라 잉여력이 넘쳐 흐르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이 사진에 등장하는 여자 캐릭터의 정확한 이름과 출연한 애니메이션 제목을 정리해서 reader@maximkorea.net 으로 보내는 독자 중 1명을 신장해 MAXIM! 준 비한 소소한 선물을 증정하겠대. 빨리 지킴지!





신인답지 않은 가수들의 1집 음반

BY 김광현

그들이 1집 음반을 이제야 내놓았던 사실이 놀라울 정도다.



①) 별맛 가사의 화성향

①)가 들려주는 멜로디는 수준급이다. 외국 트렌드를 따랐든, 적당히 남의 노래를 베꼈든 듣는 사람한테 거스러기 가다. 문제는 병신 듣는 가사다. 맥락도 없이 지껄어듯 붙여놓은 유영진의 가사 때문에 노래를 듣다 멀리가 날 지경이다. '뉴 예베오'의 MR 버전만 따로 듣는 이가 있을 정도니 말 다했다. 문제는 유출된 타이틀곡 '피노키오'의 가사 수준이 '뉴 예베오' 만큼 병신력 듣는다는 데 있다. '마리부터 발굴까지 스캔해 장정원랑' 이래니 ①)의 파포먼스터가 얼마나 대단할지 몰라도 적어도 음악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음반도 ①) 지못미다.

추천 ①)의 음악에 가사 따위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이가 대체 **☆☆☆☆☆** (유작비디오는 **★★★★☆**)



옥성달빛

근래 보기 힘든 젊은 차차들

옥성달빛의 매력은 한디로만 편안하다. 살기 딱딱한 세상에서는 사랑과 이별 모두 피곤함의 연장선 상이 아니던가. 그녀들의 음악을 듣다 보면 '지름 살'과 '있는 당의 모습도 나쁘지 않으니 그냥 그리 살' 아도 괜찮다'며 등을 톡톡덕덕해주는 기분이 든다. 문제는 아니 음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1집 정규 음반이 오해의 거대기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녀들이 진땀까지 대쉬 음반에서 제대로 된 흥판을 때려낼 수 있을까? 1집 수록곡 '정말 고마워서 만든 노래'를 들은 팬들이 옥성달빛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지 여부가 궁금해진다.

추천 살기 딱딱한 세상에 유쾌히 잘살기 필요한 사람
가 대체 **☆☆☆☆☆**



박재범 유자선을 탐한 댄서

2PM의 활천은 댄서이자 라디였던 박재범이 솔로 음반을 냈다. 이런저런 구설로 2PM에서 강퇴당했었던 미국에서 유명 유자선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영상이 화제를 일으켜 자연스럽게 유자선으로 말을 바꿔 댄트. 그는 (테이크 어 디퍼 록에서) R&B, 힙합, 댄스 등을 소화해 유자선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럴 생각이었으면 2PM 시절의 복근은 숨겨야 한다. 유자선도 되고, 아이돌 시절의 인기도 얻고 싶다는 욕심이 눈에 발려서인지 보기 거북하다. 하지만 주는 노래를 보여처럼 따라 부르면 아이돌 댄서에서 진짜 댄시 가수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만큼은 높이 사겠다.

추천 박재범의 몸만 보면 가슴이 쿵쿵거리는 사람중가
가 대체 **☆☆☆☆☆**



이영미

정규 음반에 대한 집착

뮤지컬 배우로 이미 최고 지리에 오른 그녀가 다소 늦은 30대의 나이에 정규 음반을 발표했다. 배우라는 타이틀을 떼고 가수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고 싶다는 의지를 담았다. 뮤지컬 배우로서의 짬뽕 덕분에 노래 중 한디는 배우 유준상, 조승우는 물론 가수 선배인 리사 역시 음반 작업에 참여했다. 아이들의 획일적인 기획 음반과 비교했을 때 통성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가 뮤지컬 배우의 연장선상에 서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그녀가 지향하는 이은디, 아소리처럼 음악 색깔이 뚜렷한 뮤지션이 되려면 아직은 길 길이 멀다.

추천 뮤지컬보다 뮤지컬 O.S.T가 좋은 사람
가 대체 **☆☆☆☆☆**

이런 소식도 있었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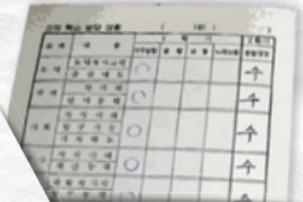
1 비디아가 이번 일본 지진 사태로 인한 공연을 전격 연기했다. 01엔진 측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본을 들리지 않으면 돈이 되지 않는 공연의 불모지(가)라는 거다. 사실상 취소된 이번 공연 때문에 해외 한 쪽의 리얼리티의 사진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이도 있디가?



2 우리나라를 내한하는 유자선이 악스코리아를 찾는 번드가 늘고 있다. 올림피체조경기장급의 공연이 아니라면 옆에 아 좋은 이웃을 선택한다. 이번엔 내한하는 예이브릴 라빈 역시 마찬가지. 다음 악스코리아에 온다했디로 물어온 건가?



3 올여름 당신의 영혼에 톡 스피릿을 불어넣을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라인업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1차 라인업 유자선의 대표곡을 들을 수 있다. (태양과 동시엔 흥대 씬을 들을게 한 '이레키노'의 주인공 10cm부터 브릿팝의 원조이자 재강성 후 첫 내한 무대인 스위트D. 여기에 자랑할 수 있는 리듬과 최고의 영성이며 자랑하는 케이팝 브러드스리니 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노군.



스타들의 공연 도전 그 성적은?

이그아, 부모님 도장 받아와라임 BY 김민숙

요즘 뮤지컬과 연극에는 TV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연예인-전-현직 아이돌들이 중형무대 활약하고 있다. 오일, 중간소자 통치표 발송의 달을 맞아 가정 동지 표를 만들어 보았다. 점수를 받고 한없이 칭찬해줄 스타들을 떠올리니 가슴이 아프지만 앞으로 더 분발하길 바란다. 오일은 푸르구나~ 우리들 세상~

	<p>그래서 제 견적은요?</p>	<p>내 친구 니가 다 먹었지?</p>	<p>우리 아만 안 될 거야.</p>	<p>간 때문이야.</p>
학교에서 가정으로	<p>강혜정 </p> <p>연극 (프루프)에서 전체 수완자를 잘 표현했습니다. 타 학우에게 차기교정 만으로 얼굴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생형 기대감을 조정할 수 있으니 엄격한 지도 편달 바랍니다.</p>	<p>솔 비 </p> <p>치킨 600리를 스타프에게 솔 정도로 종이 크며 몸도 큼니다. (이)중 체육관에서 코치를 받았음도 불구하고 성적은 신통하지 않습니다. 기능성은 있는 학생이니 분발을 요합니다.</p>	<p>안테니 </p> <p>기분이 심한 편이려 수업에 따라 공연마다 연기 성적이 편합니다. 초기작 (복합동산)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생 교육이 필요합니다.</p>	<p>옥주현 </p> <p>(이)다)에 이어 (몬테카리스토)를 뛰는 무리한 일정이 지극히 떨어졌습니다. 몸보신을 무릅쓰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웃고 잔 때문입니다. 갠</p>
	<p>몸색에서 정복해요.</p>	<p>허브, 꼭 해야 돼?</p>	<p>나는 아너 사관원</p>	<p>그래, 이런 막대(명인)야!</p>
학교에서 가정으로	<p>정수현 </p> <p>스녀 합창단 경력 덕에 가무에 뛰어난 기량을 보였습니다. 단지 금발이기 때문에 (금발이 나무레)에 출연했다는 말이 있지만 믿고 싶지 않습니다.</p>	<p>심은진 </p> <p>애교가 넘치지만 밝은 성품이나 연기에 받을 애용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위대한 캣츠)에서 노래방 발성을 구사하니 음악 지도가 절실합니다.</p>	<p>김준수 </p> <p>(천국의 눈물) 좌석이 가득 찰 정도로 교우들의 신랄이 두텁습니다. 준수가 할 평가리간만 해도 수업이 즐겁다는 여학생들이 80%에 이르므로 교사 평가를 거부합니다.</p>	<p>문근영 </p> <p>모자람 없는 연기를 보이며 병방아에도 불구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합니다. 무용 과목인 (클로저)에서는 오로지 연기에만 충실한 것이 아쉽습니다. 봉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합니다.</p>

공연 관계자 C양의 일갈

10년 동안 한산한 연극판을 구름 공연기획사 회장을 만났다.



Q. 공연계에 있어 부모 캐스팅을 어떻게 생각하?

A. 개연자가 있지만 연예인 때의 개연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공연에 스타가 없으면 흥행이 성공하지 못하는 쓸쓸한 공연계의 현실과 맞물려 벌어진 일이다. 어떤 관례가 되어야 하나.

Q. 점수를 매긴 스타들은 어떤가?

A. 저 중 경 정도는 평범히 싸가지고 없고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래도 대우받은 거라 있으니 꿀하게 이르는 한다.

Q. 성적이 좋으면 흥행이 잘 되?

A.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성적과 흥행은 반비례.

Q. 늦게 평가하는 배우가 있다면?

A. 역시 문근영, 성적이 호평이다. 시이준수도 계속 시도하는 모습이 좋다. (이)중 체육관 공연을 위해 몸을 만든 솔비나 유지칼에서 비교적 오래 활약 중인 옥주현도 성공한 축에 든다.

Q. 공연을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한 마디 하자면?

A. 잠시 쓴다는 마음으로 생각 없이 공연을 선택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 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아무리 스타 마케팅을 해도 연기기를 못하면 관객들이 다 안다.

Q. 당산은 아이돌이 나오는 공연은 잘 보지 않겠구나.

A. 뭐 자주는 안 본다. 참 시이준수님 빼고 하얏~ 하얏~.



전설이 될 음반
들으러 가기



미친 존재감의 대표주자 미미 시스터즈

누군가의 얼굴이 아니라 스스로 전설이 되기 위해 우리 곁을 찾아왔다.
WORDS BY 장혜미



MAXIM 독자가 듣고픈 이야기

MAXIM에 음악 칼럼을 쓴 지도 반년째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MAXIM 독자가 흥미롭게 읽을 글을 쓰려고 나름 노력과 공리를 했다. 그 과정에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사람은 오래전 군대에서 만난 고창 동기 후임이었음을 고백한다. 그들도 내 글을 재미있게 읽을까? MAXIM의 명성에 누가 되는 원고는 쓰고 싶지 않았

다. 누가 뭐래도 MAXIM은 오박을 다녀올 때 가장 환영받는 '시체 물품' 위 아니던가? 비록 줄문이지만 '빨래 후 날아놓은 '브레이브맨' 팬티'보다는 '홍승'뿐송하길 원했고, 독자에게 휴가 복귀 신고를 받는 '행보관'의 색소보다 '상큼하게 느껴지길 바란다. 5월호 소재를 고려해서 고민했다. MAXIM 독자가 가장 듣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 결론은 역시 여지다. 프로다운 음매와 보편적인 포스트 독자를 사로잡는 건 작업 모델이나, 걸그룹, 인기 탤런트의 화보로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여성 뮤지션의 새 음반에 대한 글을 쓰는 거다. 자신의 음악을 멋지게 소화하는 진짜 '맛진' 언니들의 얘기를 말야.

장기하보다 강렬한 미미 시스터즈의 데뷔

고민 끝에 고른 한 장의 음반은 흥대 썬에서 단연 화제를 모은 미미 시스터즈의 (미안)하(지)만... 이런 전설이 될 거야. 장기하와 얼굴들에서 신버너의 콘셉트와 시크한 무대 매너로 일단 보면 절대 잊지 못하는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던 그녀들이다. 말이 큼직한 선글라스로 얼굴의 반을 가리고, 가끔 노래를 거든 걸 제의하면 목소리도 쉽게 들을 수 없던 그들이 자신의 음반을 만든다는 소스에 많은 이가 반신반의했다. 미미 시스터즈가 그간 보여준 건 어디까지나 이미지와 콘셉트였기 때문이다.

달력으로 미친 존재감을 보여준 그녀들

무대 밖에서 미미 시스터즈가 보여준 유일한 존재감은 엉뚱하게도 '탁상 달력' 프로젝트였다. 무슨 얘기냐고? 그녀들은 자신들을 주인공으로 찍은 12장의 콘셉트 사진으로 2010년 달력을 제작했다. 1월부터 12월까지 담은 12장의 사진은 그녀들이 직접 고른 '이달의 추천곡' 분위기에 맞춰 장소, 소품, 의상을 세심히 준비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를테면 4월의 추천곡은 1988년 발표된 최아부 황기와 탑송의 '검은 여인'이다. 이 사진에서 그녀들은 장기하와 함께 자장면을 먹고 있다. 외로운 영화들이 자장면을 먹는 4월 14일 블랙데이가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8월 추천곡 The Q2의 '해변가에서'에 맞춰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한 반트지



한 디자인의 원피스 수영복이라고 쓰고 오리지널 엄바 수영복이라고 읽는대를 입었다. 산울림의 '외출'을 추천하는 9월 달력에서는 빨간 전신 트레아닝복 차림으로 동네 대중탕에 나오는 모습을 연출했다. 흥대 썸 아티스트로는 전우후우한 이 프로젝트로 미미 시스템즈는 강렬한 콘셉트를 드라마틱과 동시에 우리나라 예전 음악에 대한 그녀들의 우한한 애정을 드러내는데 성공했다.

찰떡궁합 프로듀서 하세기와의 존재 2

미미 시스템즈의 달력을 책상에 두고 틀날 때마다 그녀의 추천곡을 찾아 들은 이라면 데뷔 음반 《미안 하지만... 이젠 전설이 될 가요의 흐름이 자전스럽다》고 느낄 것이다. 프로듀서로 참여한 일본 출신 록 뮤지션 하세기와 요헤와의 찰떡궁합 덕분이다. 하세기와의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우연히 산울림과 신동현등 우리의 예전 곡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 한국에 건너온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실력과 뮤지션이라 한국에서도 엘리 스피아스, 황신해밴드, 뜨거운 감자 등 이름만 대면 이는 유명 밴드의 고정 세션 등을 거쳐 지금은 동경하던 산울림의 리더 김강원밴드에서 리더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음악 세계만 이야기해도 자원이 모자랄 정도니 이름 해두자 중요한 건 한국의 옛 음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놓고 봤을 때 하세기와 요헤아만큼 미미 시스템즈의 첫 음반에 어울리는 사랑을 찾기 힘든 거만 사실이다. 실제로 이번 음반을

사실상 '프로듀서 하세기와의 음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음반이 딱 맞는 프로듀서를 만났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최고의 평가다.

**MAXIM은 미미 시스템즈의
하회 촬영을 검토해줄지 바란다.
이 언니를 상당히 글래머시다.
공연장에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믿어도 된다!**

버릴 것 없이 풍성한 데뷔 음반 3

인트로와 보너스 트랙을 제외하면 총 5곡이 수록된 이만한 음반이지만 중량감 넘치는 게스트 뮤지션의 면면을 보자면 한순간도 소홀히 들을 수 없는 음반이기도 하다. 데뷔 음반에서 한국 록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별' 등을 한자리에 모은 그녀들의 저력은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걸까. 김강원 선생님이 친히 자신의 곡 '다이너마이트 소녀'로 참여했고,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크라양닛과 합연한 '미미'도 반갑다. 서울전자음악단과 함께한 16분 44초짜리 사이키델릭 '우주여행2010년 미미의 탁상 달력 중 5월의 추억 음악이었다' 역시 흥미를 들 수 있는 멋진 곡이다. 해비 블루스 록 밴드로는 단연 우리나라 원 록

인 로다음30의 흥겨운 업템포 곡 '대담해주오'도 인상적이다. 로다음30의 리더인 베타랩 뮤지션 율봉주가 음악 인생 최초로 여자 가수에게 제정한 곡인데도 이것이 화제가 되지 못할 정도로 애그기티브와 들을 거리가 풍부한 음반이 바로 《미안하지만... 우리는 전설이 될 가요다》.

전설이 될 것 같아서 미안해 4

탄탄한 프로듀싱을 바탕으로 훌륭한 연주자를 적재 적소에 배치한, 영리한 복고 취향의 밀도 있는 데뷔 음반이 어 정도면 '전설'이 될 요강은 충분하다. 그런데 왜 '미안하다'는 것일까. 음반을 들으며 곰곰이 생각했다. 그간 어떤면 박제조차 되지 못한 우리나라 실력파 산재 가수와 뮤지션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을까? 해방 전후부터 50년대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60~70년대 가수 중 극소수를 제외하면 그들의 실력과 끼를 음미할 수 있는 음반이나 라이브 공연 자료 가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미미 시스템즈의 추천곡은 벅스 뮤직이나 멜론처럼 친숙한 음원 사이트가 아닌 80년대 가요 전문 음악 방송 14리는 사이트를 이용해 들어야 한다. 반면 미미 시스템즈는 '시절을 잘 만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소수자와 프로듀서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데뷔 음반을 발매했다는 미안함이 있을 타이틀에 반영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사 그랜드 해도 그 미안함은 그녀들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몫으로 남아야 하리라.





오늘도 삽질이야?



난 어제도 삽질했어.



먼

제



곧



나?



부산갈매기 여러분들!
이게 다 롯데의 양승호 감독 때문인 거 아니죠?
WORDS BY 박정형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롯데 자이언츠

올해 롯데 자이언츠의 시즌 출발이 영 별로다. 롯데는 개막 2주가 지난 현재(4월 18일 기준) 4승 1무 8패로 7위에 올라 있다. 사실 작년에도 롯데 자이언츠는 개막 후 13경기에 6승 7패를 기록했다. 하지만 작년과 경기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게 문제다.

신임 감독의 막가파식 투수 운용

제리 로이스터 전 감독은 13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3.5

명의 투수를 마운드에 올렸는데 신임 양승호(51) 감독은 평균 4.5명의 투수를 소모 중이다. 매 경기 1명의 투수를 더 쓴다는 건 팀의 입장에서선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현재 롯데는 발매 야구로 유명한 SK 와이번스(평균 4.0명)보다 투수력 남비가 심하다. 삼성가상 롯데 불펜의 평균 자책점은 4.24에 달한다.

새로운 불펜 노예 고원준

지난 한 주(4월 12~17일) 고원준(21)은 7중이닝을 공 111개로 틀어막는 무실점 호투를 선보였다. 선발투수



리엔 한 주에 이 정도 야닝과 투구를 소화할 수 있다. 충분한 휴식과 준비 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반면 구원투수는 늘 긴장상태로 볼펜에서 대기한다. 선발투수급 야닝을 책임지면 숫자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피로가 누적된다는 얘기다. 고원준의 현재 보직은 구원투수. 그것도 보호받아야 할 팀이 보송보송한 1990년생 투수다. 하지만 양승호 감독은 쿨하게 12일 두산 베어스전 3승 야닝 39구, 14일 두산전 10승 25구, 그리고 17일 LG 트윈스전에서 3승 야닝 47구를 던지게 만들었다. 롯데 팬이라면 투수축사의 아이론 강병철 전 롯데 감독의 악몽이 떠오르고

도 노름 상황이다.

야구는 선발투수 놀음

야구는 선발투수가 마운드에서 오래 버텨야 한다. 그 래야 구원투수의 위력도 배가된다. 특히 롯데는 볼펜의 깊이가 두꺼운 팀이 아니라 선발투수의 목이 더 육 중요하다. 패넛레이스는 시즌당 133경기를 치르는 경영의 묘가 필요한 장거리 마라톤이다. 하루 이틀하고 접는 단기간이 아니다. 시즌의 밑그림을 그린 후 중간중간 변화를 주는 걸로 흥분하다. 매 경기 끝날 때마다 팀을 뒤집고 복연고 관련하다. 바로 양승호 감독처럼 말이다.

단점을 극대화하는 알 수 없는 선수 운용

경영의 기본은 장점의 극대화. 야구팀도 마찬가지다. 롯데 역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팀이다. 하지만 양승호 감독은 장점을 키우기 보다는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20홈런 타자보다 2할 7푼을 치더라도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난 이가 팀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더니 3할 중반의 타율을 기록한 타자에게 번트 지시를 내리고, 35세 지명타자에게 수비 연습을 시켰다. 팀의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이라면 심 보 양보해서 이해해줄 수 있다. 그런데 양승호 감독이 원하는 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다. 한순간에 체질 개선이 된 모습을 보기 원

하는 감독 아래서 선수는 혼란스럽고 팀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마진을 남겨야 하는 스포츠

야구는 마진을 남겨야 승리하는 스포츠다. 단기전에서는 작전 야구의 감정이 발휘될 수 있지만 133경기나 되는 장기 레이스는 결국 특질이 좋은 팀이 우승을 차지한다. 버릴 게임은 확실히 버려야 한다. 이게 야마야구와 프로야구의 가장 큰 차이다. 승리를 위해선 자기는 야구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롯데는 자기는 그보다만 집중을 내서 승리하는 패턴이 익숙한 팀이다. 장기 레이스에서 롯데의 밭출이 된 건 벵트가 아닌 장타였고, 볼펜이 아닌 선발이었다. 양승호 감독은 롯데의 장점을 되집어볼 필요가 있다. 롯데는 결코 야구야 아니다. 사실은 이 정도면 흥분하다. 승리의 롯데가 되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로이스터 시절의 병신 같지만 멋진 롯데 야구로 돌아가라. 그럼 적어도 포스트 시즌 진출은 감할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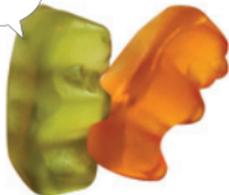




그녀의 몸을 예열시키는 방법

전_화? 누구.. 이름이더라?
BY 에디터+6 IMAGES Dreamtime

처음 필깁습니다.



- > 남자는 1년 365일 하고 싶지만 언제든 할 수 없고, 여자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매일 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당신에겐 그녀를 하고 싶게 만드는 무기가 꼭 필요하다. 혹시 '전화'라고 들어봤나?
- > 흔하들 전화를 침대 위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로 한정짓지만 넓게 보면 그녀에게 빠꾸기를 날리는 그 순간부터 엑스칼리버를 쏘기까지 모든 행위가 전화에 포함된다. 한마디로 전화는 섹스를 위한 국민의례 같은 거다.
- > 다짜고짜 널으려고만 하기에 "너는 전화도 모른다"며 징색 했더니 전화가 누구냐고 물던 남자가 있었다. 전화는 당신이 예전에 만나서 퐁골던 여자 이름이 아니라 삼입하기 전에 온몸 곳곳을 애무하면서 우리 몸을 예열하는 거다.
- > 아무리 그래도 남자는 삼입만 잘하면 된다고 여기는 수컷도 많지만 서서히 가열되는 여자의 신체 특성상 전화만 잘해도 '섹스킹'이 될 수 있다. 먼저 전화에 굶은 그녀들의 불만부터 물어볼까?

20% 부족했던 전희

너무 살살해서

그가 온몸에 부드럽게 키스를 퍼부어주면 정말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든다. 정말 고맙긴 한데 조금만 더 세게 해줬으면 좋겠다. 까져 보일까 봐 믿도 못하겠다.

123세, 대학원생

EDITOR SAYS

흥분하면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평소 보다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동안 좀 더 거칠게 애무하고 싶었는데 그랬던 그녀가 한참 달아올랐을 때 공격하는 거다. 그래도 그녀가 별 말 안 한다.

정작 중요한 데를 빼먹어서

목덜미부터 차차 아래로 내려오다 그중에서 딱 멈추더라. 그 아래는 더럽다는 걸까?

52세, 간호사

EDITOR SAYS

우리 몸에서 가장 유일한 부분이다 보니 입을 대기가 꺼려지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참고 그녀의 깊은 곳까지 정성스레 애무해준다면 그녀는 당신의 다음 번 섹스를 손꼽아 기다리게 될 거다. 다른 남자들이 가려는 일을 해야 당신이 특별해지는 거다.

진짜 그만해서

한 번은 너무 좋은 나머지 나도 모르게 “그미안~” 이라고 외쳤는데 진짜 스름해버리더라. 어... 이게 아닌데.

22세, 쇼핑몰 운영

EDITOR SAYS

“그민” 하는 것의 앞에 그녀를 배려해준다고 진짜 알겠나? 여자는 가끔 Yes를 No라고 말하기도 한다. 섹스할 때는 더욱더 웃고 Yes와 No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일러달라? 미안하다. 사실 우리도 우리의 진짜 마음을 잘 모르겠다.

기브 앤 테이크

헬리오 먼저 해주나 싶었는데 “자, 이제 나 차례”라며 침대에 발리랑 누워버리더라. 그 이후로 그가 하는 애무는 ‘되돌려받기 위한’ 애무 같아서 받아도 흥분되지 않는다.

32세, 취업 준비생

EDITOR SAYS

그녀의 애무를 받기 위해 그녀를 먼저 애무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너무 더 내주는 마라. 여자도 그녀를 달아오르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그녀를 애무할 때만큼은 헌신이 그녀의 육체를 탐닉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랬을 때 당신은 애무의 목적을 훨씬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녀가 좋아 하는지 모르겠다 다음 아이를 참고하자.

전희가 가장 좋았어요

조루자관 권한아

여태껏 전희만으로 몇 번이나 날 그렇게 흥분시킨 건 그가 처음이다. 조루자관 그냥 용서하기로 했다.

23세, 바텐더

EDITOR SAYS

했지? 애무를 잘하는 남자는 조루도 용서하고 싶은 게 여자들의 속직관 심정이다. 사이즈가 큰 것도 좋고 오래하는 것도 좋지만 그중의 제일은 전희를 아는 남자다. 전희로 오르 가슴에 몇 번 도달하다 보면 사이즈가 작거나 빨리 끝나도 덜 속상하다. 그녀에게 삼입은 목적 이전엔 여자처럼 삼입은 다양한 섹스의 방편 중 하나일 뿐이다. 과장 좀 보태면 고쳐도 ‘섹스마신’으로 불릴 수 있다는 얘기가.

부비부비

같이 샤워하다 장난으로 내 몸을 그의 몸에 갖다뒀는데 평소엔 느껴보지 못한 감촉이 느껴졌다. 거품이 묻어 있는 상태로 서로의 몸이 미끄러지는 기분이 상당히 묘했다.

122세, 교사

EDITOR SAYS

온몸에 오일을 바르고 하는 섹스가 당신의 로망 중 하나지만 언제 취급 받을까 봐 망설였어? 걸으려는 놀리는 척하듯 태어난 사실 여자들도 새로운 시도를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먼저 말할 용기가 없을 뿐. 처음부터 오일은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우선 샤워할 때의 비누 거품으로 그 미끄러운 촉감을 충족되게 만들어라.

안다리 후리기

젓타스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의 손가락이 다리 사이로 들어왔다. 실은 건 아니었지만 민망하고 쉬워 보일까봐 그를 밀쳐냈다.

21세, 대학생

EDITOR SAYS

‘손’이 먼저 나가면 심중핀구 그녀의 디펜스로 가로막힐 거다. 애무는 일과 손가락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녀와 호흡을 맞추자. 키스를 할 때 숨어서 그녀의 다리 사이로 당신의 허벅지를 밀어붙여봐라. 그녀의 다리 근육이 당신의 허벅지를 꼭 조여올 거다. 진도 빼는 데 최고의 기술!

진작 할걸

남자가 가슴을 애무해주는 좋은 거 나도 있는데 가슴이 작아 매만 파하기만 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난 작은 가슴이 좋아. 큰 건 멍청해 보여”라고 해서, 만 명씩 가슴을 오븐했다.

32세, 웨딩플래너

EDITOR SAYS

유니크 스타일도 인생엔 여자들이 있다. 당신이 손만 살짝 대려 해도 가슴을 하는 건 스킨십을 싫어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몸에 콤플렉스가 있어서일 가능성이 크다. 그녀의 옷

전희에 대한 수컷들의 오해 당신은 그동안 잘못 살아왔어!!!



너 똥 피우나?

키스를 했는데

Q. 나이트에서 만난 그녀와 MT까지 가게 됐는데 키스하러 저를 지시만 받아냈어요. 그런데 분명 제 마음에 드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그랬던 걸까요? 아님 키스를 싫어하는 여자도 있나? - 옥수수 정자람-

A. 당신이 애무를 아무리 잘해도 키스만 쏙 빼면 어떤 여자들도 분명 당신의 사랑을 의심할 겁니다. 하지만 원 나이트 러브 이기가 어렵습니다. 키스는 사람이 진정했을 때 하고 싶다는 여자 나름의 신성한 줄 같은 게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여자들은 키스 따위 생각과도 일회성 패턴과 뒤끝 없이 섹스만 즐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키스를 빼면 어떤 그녀가 당신을 호감으로 몰까 봐 억지로 키스를 시도했다면 어떤 그 수고를 가늠해 달어도 좋습니다.



건포도는 싫어요

Q. 드디어 핑크빛 유두를 만났어요. 그런데 젓작지 않아서 뻘뻘 유두가 깨져나가고 하더라도 칭찬도 빼놓지 않아요. -온몸이나당대-

A. 가슴 애무를 받는 핑크빛 유두 색깔과 상관관계는 아직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대체 그녀와 얼마나 오래 만나려고 여친 유두 색깔까지 관리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녀도 남 같은 유두 색깔은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애무를 도맡아 해주는 당신이 아쉽게 여친이 떠났지만 그로 조금씩 해서 개 지루 할 수 있을 때 믿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말도 많았어요? “이따기 통 댄다.”

처음들 가만히 떠올려보면, 유난히 긴 차이를 입고 다니다면 각신에 자신이 없는 거고 활달한 상의를 즐겨 입었다면 가슴에 자신이 없는 거다. 그녀가 주로 어디를 그리고 다니는지 파악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칭찬해줘라. 초등 학교 때 배웠잖아?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건 바램이 아니라 햇볕이 더그람 좋은 거거든란다.

섹스의 날

섹스하는 날짜를 미리 정해놓으니 흥분이 좀체 가시질 않았다. 만나자마자 내가 먼저 올라탔다.

52세, 홍보대행사

EDITOR SAYS

허와 입을, 손을 사용하는 것만이 전하라는 편견을 버려라. 야기도 일했지만 전하는 섹스는 허까지 이뤄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만나기 몇 시간 전 '우리 이분이 빨리 보고 싶다' 류의 문자를 날려라. 그녀와의 관계가 처음이 아니라면 좀 더 음탕한 문자도 상관 없다. 당신과 만나기도 전에 이미 그녀의 몸이 뜨거워져 있을 거다.

전화의 여운

회사 부하 직원과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됐다. 둘만의 술자리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날따라 어땀나는 분위기가 조성돼 그의 집까지 가게 됐다. 평소 내 말에 복종하던 그가 침대 위에서는 돌변해 내 몸 곳곳을 거칠게 애무했다. 그런데 왜 그 이상은 해주지 않는 걸까?

H29세, 호텔리어

EDITOR SAYS

당신에게 마음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일당을 심하게 해서 미안했다던 이계 직행이다. 전하로 그녀에게 환호한 기분을 여러 번 선사하고 난 뒤 가시지 멈추는 거다. 참기 힘들 거라는 거란다. 하지만 눈 딱 감고 그녀를 그냥 둘래보라. 감질 나서 그녀가 먼저 당신을 원하게 될 거다.

인간 모닝콜

그의 집에서 지는 다음 날엔 일람시계가 따로 없다. 내가 잠에서 완전히 깨 때까지 그가 내 몸 곳곳을 애무해주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격렬한 섹스를 하는 덕분에 회사에 종종 늦는다.

D27세, 카피라이터

EDITOR SAYS

웬지 불만이다. 야, 편집장님이 이거 보시면 안되는데

마성의 다리 마사지

하루 종일 힐싱고 다니느라 피곤한 다리를 주물러 줄 테니 잠깐 들어왔다 가라는 말에 후해 그의 집에 놀러 갔다. 다리를 주물렀던 그의 손이 자연스레 엉덩이로 올라가는데 이미 내 몸은 플릴 대로 플러져 저항할 수가 없었다. S22세, 대학생

EDITOR SAYS

마사지는 그녀를 침대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최고의 미끼 주위에다 마사지에 누인 여자 어떤 거다. 하지만 괜히 어슬프게 하면 본전도 못 찾는다. 곳방방이 맞지 않고 그녀를 K시키려던 아랑케 마사지가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그녀의 몸을 깨우는 법 아주 간단히, 필요한 것만 알려줄게.



1. 먼저 긴장된 그녀의 몸을 이완시켜야 한다. 양손을 이용해 등의 가운데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둥글게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문지르면 잠자든 신경이 해리를 깨어난다. 길고이 예민해진 그녀는 이제 조금만 자극에도 쉽게 반응할 거다.

2. 예민해진 그녀의 등을 이완엔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준다. 이완에도 원을 그리면서 문지른다. 척추를 따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꾹꾹 눌러준다. 피리피리한 느낌이 들 거다.

3. 자, 이제 그녀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자연스레 엉덩이를 문지른다.

4. 매직스틱으로 그녀의 G자켓을 마사지한다.

EDITOR'S TIP

마사지를 하는 동안 그녀의 예민한 그곳엔 실수로라도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0분 정도 여게 등, 다리 엉덩이 주변을 감질나게 하면 야이 오를 때로 오면 그녀가 당신을 먼저 담질지도 모른다.



"술지 잘한다"

아이패드 뒀다 뭐 하나, MAXIM 안 보고?

※ 앱스토어에서 [맥심], [MAXIM] 을 검색하세요!



iPad / iPhone
MAXIM 출시 완료

iPod

iPad에서 동영상, 고화질 확보를
확려한 인터랙티브 기능과 함께
시원한 화면에서 즐겨라!

iPhone

iPhone에서 하나의 통합된
App으로 MAXIM을 만나라!
무료 과월호가 짝짱하다!

MAXIM 아이패드 독자를 위한 SPECIAL GIFT

“무료 앱만 받아도 선물이 쏟아진다!”

이벤트에 응모한 독자 중에 **매월 50명**을 추첨하여 아래 선물을 마구 쏘겠다.



선물1
뮤지컬 <그리스>
R석 티켓 2장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선물2
공연을 볼 수 없는
독자에게겐?



MAXIM iPad가 나오기 전까지의 과월
호 8권 패키지를 보내주매 한 권도 빼
놓을 수 없잖아?

OR

응모 방법

1 앱스토어에서 MAXIM 아이패드 App
을 받는다.

2 아이패드로 MAXIM App을 열고 있
는 사진을 아무거나 찍는다.

- 예 -



3 010-5199-1182로 사진을 첨부한
MMS를 보낸다.

1. SENNHEISER / MM550

귀를 덮는 MM550의 공격한 헤드폰 패드와 젠하이저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외부소음을 잘 차단한다. 덕분에 음악을 감상하기도, 통화하기도 좋다. 게다가 블루투스 리시버의 음질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도 반할 만한 시운드가 인상적이다. 헤드 부분이 접히기 때문에 휴대성도 뛰어난 맨 히지만 헤드폰이 꽤 많이 생겼을 수컷이라면 뽀빠는 피하는 게 좋다.

문의 www.sennheiserkorea.co.kr kr 02-711-9125

가격 60만 원대 후반

장점 밀고 쓰는 젠하이저산재 헤드폰 음질
단점 영감이 끊기지 않는 가격
추천 블루투스 리시버로 본격적인 음악 감상을 하고픈 사람

2. SONYERICSON / MW600

눈에 확 들어오는 장점은 FM 라디오. 최대 3대까지 연결 가능한 블루투스 패어링이다. 최대 20일 이상 대기하는 배터리는 조루 걱정이 없다. 블루투스 리시버에 3.5mm 잭이 있어 번들 이어폰 대신 본인 마음에 드는 이어폰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가격/패드 소니 에릭슨인 걸 감안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

문의 www.xperia.co.kr 1588-4170

가격 10만 원대

장점 FM 라디오 지원 이어폰 교체 가능
단점 색이 덜한 블루투스 리시버라니, 이거 뭐임?
추천 블루투스와 유선 리시버를 혼용하고픈 사람

3. MOTOROLA / K2

통화 기능, 그중에서도 음성을 또렷하게 전달하는 걸 목표로 삼은 제품이다. 어치피 한쪽 귀로 듣는 음악 때와 고만고만한 수준이라면 K2처럼 한 노란 패는 스타일의 블루투스 리시버도 나쁘지 않다. 다른 건 몰라도 지금까지 모토로라의 블루투스 리시버는 최고의 성능을 보여준 못해도 평균 이상의 퀄리티는 유지해줬으니 말이다.

문의 www.motoland.com 02-6084-7818

가격 미정

장점 또렷한 음성 전달
단점 기능이 너무 심플한 것도 죄
추천 오래지 통화를 위해서만 블루투스 리시버를 사용하는 사람

WIRELESS IS ALWAYS GOOD!

STUFF

빵빵한 블루투스

선 없이도 빵빵 터지는 블루투스 리시버를 한자리에 모았다.

BY 김광현 PHOTOGRAPH BY ARC STUDIO

1

2

3



4. MOTOROLA / S10-HD

생활 방식 기능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게다가 튼튼해서 운동할 때 막 굴러도 괜찮다. 하지만 볼륨 조절이 조금 번거롭다는 단점은 상관이 가솔란다. 그것만 제외하면 아무도 아랑으로 그만이다. 음악만 들을 수 있게 생겼지만 통화 기능도 지원한다. 통화 기능이 백 안쪽스러운 편은 아니지만 말이다. 무엇보다 남는 액센트 스타일의 리시버에서 처음 경험에서는 개인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뚜렷하게 갈릴 거다.

문의 www.mymotoland.com 02-6084-7818

가격 10만 원대

▶장점: 당시의 우수 모뎀을 견줄 생활 방식 기능

▶단점: 착용감이 별로

▶추천: 운동할 때 이어폰 선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는 사람

5. PLANTRONICS / M1100

통화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마이크로 3개를 장착해 통화할 때 큰 소리로 떠들 필요가 없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 O3 덕분에 주변 소음도 अच्छ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음성 안내는 물론이고, 아이폰과 함께하면 배터리 잔량 체크도 가능하다. 사소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보청기 스타일의 블루투스 리시버가 싫은 이라면 혹할 만하다.

문의 www.lskynetworks.co.kr 1577-7186

가격 10만 원대

▶장점: 목소리가 작은 사람도 OK

▶단점: 다소 불편한 조작감

▶추천: 아이폰용 블루투스 리시버가 필요한 사람

6. ZABRA / STONE II

블루투스 리시버의 대표 주자 자브라가 내놓은 스톤 II는 음성 명령은 기본이고, 그간의 관례를 자랑하듯 통화 품질과 착용감은 다른 제품을 압살할 수준이다. 그래서 블루투스 리시버인 주제에 음악 및 비디오 감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생긴다. 한 번 충전하면 최대 10시간의 통화, 7일(7일) 대기 가능한 넉넉한 배터리 역시 매력적이다.

문의 www.ganet.co.kr 02-756-9910

가격 10만 원대

▶장점: 블루투스 리시버 본체에 충전

▶단점: 비싼 가격, 호불호가 갈리는 보청기 스타일 디자인

▶추천: 블루투스 리시버를 온종일 갖고 있어야 하는 사람

블루투스란?

반경 10~100m 거리 안의 전자 기기를 무선으로 엮어 제어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규격이다. 2004년 이후 버전 업을 거쳐 2009년에 버전 3.0이 발표됐다.

3.0은 전송 속도가 최대 24Mbps로 대폭 향상돼 PC는 물론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기기 간의 대용량 파일을 주고받는 일이 가능해졌다. 내장 전력 관리 기능으로 전력 소모는 오히려 줄었다. 갤럭시S2처럼 고사양 스마트폰은 블루투스 3.0을 채택했다.

블루투스의 모노/스테레오 구분

블루투스의 모노는 일반 리시버처럼 왼쪽 방향에서만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다. 통화만 가능한 녀석을 모노, 통화와 음악 감상이 동시에 가능한 녀석을 스테레오로 구분한다. 그러나 당시의 블루투스 리시버가 귀의 왼쪽만 커버하는 워싱턴도 'A2DP(Advanced Audio Distribution Profile)'를 지원한다면 음악 감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던 예이다. 일했어?

SHOOT! SHOOT! SHOOT!

“넌 내가 찍었어!”

마음에 드는 여자라면 열 번은 찍어야 수컷이제

BY 김상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조유림 FILM 빅텐트=리
MODEL 아재은 HAIR 고준영 MAKE-UP 조희라/베베스튜디오 02-548-7870

COOPERATIONS 기아(G2-3447-1098) 칼빈클라인(K2-3447-7725)
아디다스(A2-3447-770) 프래디, 프래디 더클럽, 타이월퍼(G2-546-7784) 핑크팬티(O2-3443-1703)
제이이엔젤(O70-8347-7834)

FUJIFILM

FINEPIX X100

복고풍 디자인에 속지 마라. DSLR이 부담지 않은 APS C-SIZE의 1230만 화소 센서를 탑재한 성능은 발군이다. 사진 좀 찍는다는 전문가도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후자는 렌즈는 또 렷한 색감을 제공하고, 와이드 앵글 촬영 역시 문제없는 훌륭한 녀석이다. 라이카 M3와 맞먹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사고 싶은 카메라!

가격 159만 원
문의 www.fujifilm.co.kr 080-210-1111

APS C-SIZE란?

APS(Advanced Photo System)는 후지필름, 코닥, 니콘 등이 새롭게 만든 표준 규격 사진 시스템이다. 이 중 'C-SIZE'는 기존의 35mm 필름과 똑같은 화면 비율인데 기본 사이즈(36x46)의 좌우를 자른(2:3) 거라고 보면 된다. 오케이?





촬영장 엿보기



비즈 장식 인소매 티셔츠 가이아
쇼츠 캘빈클라인인
액세서리 모두 제이미앤벨
슈즈 가이아



화색 비즈 장식 인스퍼티 프레임 더글립
액세서리 모두 제이미앤벨
슈즈 핑크린

SONY CYBERSHOT TX100V

2개의 렌즈 없이도 3D 사진을 만들어주는 마술사 같은 녀석이다. 똑딱이 주제에 초당 60프레임으로 풀 HD급(1920×1080)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다. 1620만 화소 센서는 기본이고, GPS와 컴퍼스 기능으로 사진 찍은 시간과 장소, 방향까지 기록이 가능하다. 날찍한 3.5인치(의 터치스크린은 거들 뿐이다. 오호~! 소니, 카메라에서는 아직 죽지 않았군!

가격 50만 원대 후반
문의 www.sony.co.kr 1588-0011

OLYMPUS XZ-1

XZ-1은 확실히 똑딱이 카메라계의 머이다. 비록 1,000만 화소 센서지만 F8-25 렌즈 덕분에 흔들림 적은 때깔 좋은 사진을 뽑아낸다. 잠사 기능도 그럴싸하며, 똑딱이 주제에 배경을 날려버리는 아웃 포커싱 기능도 갖췄다. 그렇다고 DSLR이나 하이브리드형 카메라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니 오해하지 말자. 서브로 쓸 수준급 똑딱이 정도라고 보면 된다.

가격 50만 8천 원
문의 www.olympus.co.kr 1544-3200



파란색 바람막이 프레임
소츠 탭블클라안진
목걸이 제이미앤벨
슈즈 에디터 소장



보라색 민소매 티셔츠 아디다스
소스 칼빈클라인인
핑크 제이엔젤
슈즈 가이아

PENTAX OPTIO S1

성능이 아무리拔군이라도 디자인이 구린 제품엔 영혼을 팔 수 없나? 그렇다면 소녀시대의 노랫말처럼 "반짝반짝 눈이 부신" 일루미늄 보디를 가진 S1이 적절하다. 입맛에 맞게 크롬, 블랙, 그린 색상을 고를 수 있고, 렌즈 주변 색상도 보디에 맞게 짝맞추는 센스라니 1400만 화소, 광학 5배줌, 손떨림 보정 기능을 탑재했으니 일상을 기록할 뿐 나는 카메라를 찾는 사람에겐 딱이다.

가격 미정
문의 www.pentaxkoreaservice.com
1588-2708

페이스북 라이프 업그레이드 와이파이는 꿈이다. 그 걸 좀 씹어본 디카를 소개한다.

SAMSUNG / SH100
요즘엔 캐나 소나 와이파이를 달고 있다. SH100은 와이파이에 접속해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나 페이스북 등 사진을 업로드하는 사이트에 바로 올 수 있다. 갤럭시S가 있다면 SH100의 무선 리모트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 길 가다 우연히 만난 연예인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자랑하고 싶어 발을 동동 구르는 인간에게 적합하다.

원색 민소매 티셔츠 타이일피커
 액세서리 모두 제이미앤젤
 레깅스와 슈즈 모두 가이아



PENTAX OPTIO WG-1

생긴 대로 논다. 티프한 모양새답게 1.5m 높이에서 떨어져도 멀쩡하고, 영하 10°C의 온도에서 버티는 건 쟁이다. 방수 되냐고? 썩 수심 10m까진 끄떡없고, 수중에서 2시간 동안 촬영 할 수도 있다. 내구성 하나는 카메라계의 베어 그릴스 형님이랄까? 새로 산 카메라를 하루 만에 걸레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당시 톨툴이만큼 작은 물건(?)도 콧속까지 확대 촬영할 수 있지만, 사진 속 톨툴이가 원래 크기인 양 착각하면 그때부터 피곤해진다.

가격 미정

문의 www.pentaxkoreaservice.com 1588-2708

NIKON COOLPIX P500

디자인 색깔은 기본이다. 이 녀석이 정말 대단한 건 36배 광학줌 기능이다. 야구장 외야석에 앉아 타석에서 신나게 선풍기 스윙을 해대는 선수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물론 줌을 최대로 당기면 사진에 어느 정도 노이즈는 생기겠지만 그래도 그게 이단기 이제 차이더더 사진을 찍겠다고 부끄러워하며 자책까지 다 가갈 필요가 없어졌다. 와우!

가격 40만 원대 후반

문의 www.nikon-image.co.kr 080-600-6600

트레이닝 자지와 쇼츠 모두 아디다스
슈즈 게이머





캠코더 비교 체험기

MAXIM 스태프 2명이 테스트를 빙지해 캠코더를 들고 걸스데이 화보촬영 현장을 습격했다.
작고 만만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손맛이 꽤나 좋던걸. BY 김상민 FILM 이론학 박한영투러



캠코더 비교영상
보러가기



SAMSUNG HMX-H300

이 녀석은? 광학 30배 줌이 가능한 스나이퍼 스타일의 캠코더

Good

1. 작고 가벼운 덩치(228g)라 휴대성 UP
2. 광학 30배, 최대 디지털 300배 줌 지원
3. 초보지도 수준급 촬영이 가능한 사상능
4. 직관적인 메뉴 화면과 나쁘지 않은 터치 감도

Bad

1. 작고 가벼운 덩치 때문에 배터리 용량 DOWN
2. 기대보다 별로인 일부 촬영 모드 노이즈가 심하고 손떨림 보정 기능이 별로라서 최대 줌 촬영시 삼각대는 필수
3. 수동 조작해야 하는 렌즈 캡. 이동할 때 렌즈에 흠이 날 우려가 있음



MAXIM 스태프 **박군이** 직접 써 보니!

촬영 현장의 조명이 어두워 노이즈를 피할 수 없었지만 생각보다 정도가 심했다. 특히 줌 기능을 사용했을 땐 캠코더 화면이 춤을 추는 줄 알았다. 렌즈 캡이 수동이라서 촬영할 때마다 일일이 개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역시 번거로웠다. 대신 줌 조작 버튼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편하고, 부팅시간 17개약 228g 정도의 무게라 촬영과 동시에 다른 업무를 볼 수 있을 만큼 휴대성은 만족스러웠다. 박대리는 3시간을 채 못 버티고 퇴근하므로 장시간 촬영 계획이 있다면 유의하자.

한마디로

"다루기 쉽고 휴대성이 좋은 입문용 캠코더"

가격 599,000원

문의 www.samsungimaging.co.kr 1588-3366



PANASONIC HDC-TM900

이 녀석은? 하이엔드 다카 같은 느낌의 캠코더

Good

1. 밝은 렌즈(F1.5-F2) 덕에 어두운 곳도 선명한 촬영 가능
2. 당신을 영화감독으로 만들어 줄 디지털 사바타 기능 탑재
3. 1080 영상을 5시간 이상 저장 가능한 넉넉한 32GB 내장 메모리
4. 강력한 손떨림 보정 기능 덕에 수전중 한자도 O.K.

Bad

1. 복잡한 인터페이스, 메뉴얼 숙지 없이 사용 불가
2. 라이트 유저를 위한 소소한 기능걸러 필드 부재
3. 5시간 촬영이 불가능한 조루 배터리(100분 내외)
4. 정체를 알 수 없는 디지털광학이 아니라 700배 줌의 존재



SAMSUNG HMX-H300



PANASONIC HDC-TM900



MAXIM 스태프 이군이 직접 써 보니!

어두운 조명에도 선명한 화면을 찍을 수 있던 게 놀랐다. 덕분에 걸스데이의 미소를 캠코더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담았다. 먼 거리의 줌인 촬영이라고 쓰고 도촬이라 읽는지도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기능을 숙지하지 않고 무턱대고 사용하다가만 멸망 크리에 빠진다. 인터페이스가 불편한데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파악이 어렵다. 메뉴 버튼 조작도 마찬가지로 캠코더를 조금만 움직여도 "배터리 너무 빠릅니다" 라고 말해줘니 초보자는 당황하기 쉬울 것 같다. 무엇보다 박 대리가 1시간 40분이 지나면 조기 퇴근하기 때문에 촬영은 모두 그 안에 해쳐줘야 한다는 게 은근히 부담이다. 억울하면 예비 배터리 하나 더 사는 파나소닉의 압박이 느껴진다.

한마디로

"성능은 만족스럽지만 다루기 까다로운 준전문가용 캠코더"

가격 1,599,000원

문의 www.panasonic.co.kr 1588-8452



REAL SMART PHONE

카피캣의 오명을 씻어줄 삼성의
구원투수 갤럭시S2가 온다.

BY 김성현

Samsung
Exynos
4210
PROCESSOR



삼성 갤럭시S2에 기존 스마트폰에선 볼 수 없는 **틸트, 플레밍** 기능을 탑재했다. 틸트는 화면을 2점 터치 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터치점을 움직여 확대,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이다. 플레밍은 위젯이나 아이콘을 추가할 때 1점 터치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면 화면이 전황되는 기능이다. 이 외에도 음악이에 탑재했던 전화를 뒤집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턴오버 기능을 추가했다.

▶ 갤럭시S2가 '스마트한' 5가지 이유

- 1. 디스플레이: 4.3인치 슈퍼 아몰레드 플라스**
슈퍼 아몰레드 액정은 색감이 도드라진 데다 펜타입 방식의 한계로 텍스트 가독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갤럭시S2의 슈퍼 아몰레드 액정 플라스는 픽셀 구조를 개선해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했다. 역시 디스플레이의 무은 삼성이다.
- 2. CPU: 듀얼 코어 엑시노스 1.2Ghz.**
벤치마크 풀인 스마트벤치 2011의 테스트 결과, 갤럭시S2의 듀얼 코어 엑시노스 1.2Ghz는 갤럭시S보다 3배 이상 향상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 정도면 플래시가 찍힐된 사이트도 무려 흐르며 매끄럽게 돌아가는 수준이다.
- 3. 배터리: 1650mAh**
듀얼 코어 CPU를 탑재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에 갤럭시S2보다 번강소인 휴대폰은 모토로라 아이리크스1930mAh뿐이다. 하지만 모토로라 아이리크스는 두께가 10mm가 넘는 데 비해, 갤럭시S2는 고작 8.9mm에 그친다.
- 4. 동영상: 1080p 재생 및 녹화**
갤럭시S2가 720p 동영상 재생 및 녹화가 가능했다면, 갤럭시S2는 1080p 동영상 재생 및 녹화가 가능하다. 테그라2가 고화질 포맷(MKV)을 재생하지 못해 동영상 고차리의 소리를 듣는 것만 대조적이다.
- 5. 램: 1GB**
갤럭시S2의 램은 넉넉한 1GB이다. 게다가 메모리 입출력 시 오류가 적은 대신 속도가 비인모비전 방식은 과감히 포기하고, 알기 속도가 대폭 향상된 웹SD 방식은 채택했다. 그외에 여러 율리지업된 백업임은 이제 찾아볼 수 없던 얘기다.

블랙&화이트 리스트

제가 부른 '블랙&화이트'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고갱님!



● 화이트리스트

이통사의 전산망에 단말기의 고유 번호(MEID)를 등록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은 제도. 통신사가 단말기 선택권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와 통신사가 덩합해서 출고기를 놓이는 사례도 많았다. 그래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려면 약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 블랙리스트

분실·도난 등의 문제가 있을 때만 통신사의 전산망에 고유 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다. 블랙리스트 제도에서 소비자는 원하는 단말기를 구입한 후 입맛에 맞는 통신사를 골라 쓰면 된다. 한마디로 유심 전환 곳에만 통신사 신청 쓰지 않고 휴대폰을 쓸 수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제도다.

● 왜 난리인가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휴대폰을 마트에서 물건 사듯 구매해 유심 전환 곳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단말기 통제권을 빌미로 시장을 휘둘러왔던 통신사의 파는 줄도, 애플이나 삼성처럼 단말기 제조사의 목소리가 커질지는 걸 의미한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X했던 얘기지.

SMART LIFE UPGRADE

with **MAXIM**



COMING
SOON!

MAXIM에서 Galaxy S2를 질러라!

스마트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면 MAXIM과 함께 하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를 참조할 것

Galaxy S2 (가칭)

엑시노스 듀얼코어 1.2Ghz
안드로이드 2.3 (생강빵)
1GB 램 / 내장16,32GB
최대 32GB 외장메모리 지원

4.3인치 슈퍼아몰레드플러스
전면 200만 화소, 후면 800만 화소 LED 플래시
1650mAh 대용량 배터리
블루투스 3.0



2011 SEOUL MOTOR SHOW

MAXIM이 뽑은 BEST CONCEPT

Mercedes-Benz / F800

그린 모터쇼' 달게 메르세데스-벤츠는 친환경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F800을 선보였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란 엔진 구동력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내리막길의 운동에너지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정용 전기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하는 전기차라는 뜻이다.

30km 이내의 거리는 휘발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기로만 주행할 수도 있으며, 전기로 뽑을 수 있는 최고 속도는 12km/h나 된다. 이제 강행복로나 올림픽대로의 전기차 진입 금지 표지판이 없어질 날도 머지않았다.

연비가 무려 34.4km/L라고 하면 역시 어느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처럼 약해빠진 건 아닐까 의심할지도 모르지만, 저 열굴 생각이란 봐도 어딘지 모르게 한 4000억에 제로백은 47초쯤 될 것 같지 않아? 이 미래적인 콘셉트카가 서울 모터쇼에서 유독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단지 화려한 디자인 때문만이 아니다. F800은 O.S 클래스의 다음 모델을 출시하기 위한 실험체라는 소문이 퍼다하기 때문이다.



Mercedes-Benz
The best or nothing.



MOTOR

MAXIMO이 선정한 모터 퀸

BEST 24

2011 서울 모터쇼가 수많은 사전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멋진 자동차들은 이미 인터넷에서 질리도록 봤을 거고, 우리 수컷들을 궁극해 미치게 만드는 또 한 가지 바로 모터쇼의 꽃이었던 각 자동차 브랜드의 레이싱 퀸이다.

BY 유승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MAXIM KOREA

가장 훌륭한 모델들을 선별하던 건 바로 PEUGEOT. 무조건 "그런" 모터쇼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전세계 자동차 제조사 중 가장 차은 이션(이벤트)을 베풀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2011 SEOUL MOTOR SHOW

MAXIM 모델을 째해라



한정된 지면 때문에 모티프를 빛낸 그녀들을 한 명 한 명 모두 독자의 식탁에 올릴 수 없어 무척 아쉽지만, MAXIMI 심사숙고 끝에 에디터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24명을 추렸다. 즐겁게 둘러보고 있나? 다 보고나서 가장 재미를 기승 띄게 만드는 모델을 1명 골라라! 그럼 우리가 다음 달 MAXIM에 그녀의 환상적인 화보를 끼여어 주겠다!!!



참여하기

방법1. 가장 맘에 드는 모델의 사진 번호를 골라 MAXIM 편집부로 문자를 메러라(010-5989-1182)

방법2. 문자 메시지 값이 아깝다면 지면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한 후 댓글을 남겨라.

선물도 준다!

당신이 지목한 모델이 최다투표의 명예를 안게 된다면?

1. 그녀를 지목한 독자 중 10명에게 최근 1년간의 MAXIM 과월호 12권 패키지를 선물로 보내주겠다!



2. MAXIM은 이미 자신의 책장에 다 꽂혀있다고? 이런 기특할 데가 과월호가 필요없는 독자에게는 연극 (인들레 비람도어) 티켓을 2장 선물할 테니 화창한 봄날, 공연 테이트를 즐겨라!

- 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 일시: 2011년 5월 14일(토) 오후 3시



3. 당신이 선택한 그녀의 HOT한 화보를 찍어 다음달 MAXIM에 살아주겠다!



CHEVROLET

11

HONDA



11



12



13

INFINITI
INFINITI
Inspired Performance



14

VOLKSWAGEN



15

LANDROVER



16



WHO'S THAT GIRL?!



다음 달 MAXIM
환영 모델 고르기



<p>SSANG YONG</p> <p>17</p>	<p>KUMHO TIRE</p> <p>18</p>	<p>대체 이 차자는 누구지? 어서 알려주세요!</p> <p>SUBARU</p> <p>19</p>
<p>AD MOTORS</p> <p>20</p>	<p>CADILLAC</p> <p>21</p>	<p>JAGUAR</p> <p>22</p>
<p>PORSCHE</p> <p>23</p>	<p>RENAULT SAMSUNG</p> <p>24</p>	<p>메디타의 초이스</p> <p>25</p> <p>일산 쿼터스에 총 출동한 메디타들이 뽑은 1위는 바로 르노삼성 부스의 여신 모델 이재은이었다. 우리는 서울 모터쇼에서 돌아온 즉시 그녀를 MAXIM 5월호에 실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화보를 보고 싶으면 52페이지로 고고생!</p>



2011 NEW RANGE ROVER 4.4 TDV8 VOGUE

원래 귀족들은 이름이 좀 길다. 재수 없게.

BY 유승원 PHOTOGRAPHS BY ARC STUDIO
COOPERATION JAGUAR LANDROVER KOREA

1억 5,490만원



SENSUOUS MACHO HUGE OVERWHELMING



☞ 감성을 움직이는 기계

‘저 차는 참 멋있게 생겼다’

옛날에 랜드로버를 알기 전엔 그랬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에디터 또한 20대가 되고 나서야 랜드로버가 세계적인 명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식이 크게 바뀐 건 아니었다. ‘저게 랜드로버야? 엄청 비싼 차지. 그래도 여전히 디자인은 참 고리타분한 것 같아.’ 그 때 그렇게 느꼈던 이유를 서론이 넓은 지금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간단하다. 랜드로버는 아예 그 나이에 드러바버를 겨냥한 자동차가 아니었던 거다.

나이를 먹고, 튀기보다는 정장길 원하고, 클래식을 이해하게 되고, 타인의 시선보다는 실수를 추구하게 된 어느 순간 랜드로버가 마음 속 깊은 곳의 로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랜드로버를 몰아볼 기회는 없었다. 기를 낸 내는 자동차 전문 에디터라는 직함을 단 후 핏수가 쌓이면서 별의 별 차를 다 몰아봤지만 유독 랜드로버와는 지독히도 인연이 없었다. 그러던 중 새로 나온 랜인지로버 44 Vogue 시승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것도 드라마 <로열패밀리>에서 자성이 타고 다니는 바로 그 차.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에서 키를 받고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차 아래에서 발 받침대가 스스로 밀려 나온다. 랜인지로버의 전기가 중간 발 받침을 만들어야 할 만큼 높은 건 아니다. 하지만 이 자동 계단은 드러바버의 마인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평소 같으면 키를 누르지마자 문을 열고 뛰쳐 올라갈 것을 이 자동차 계단은 드러바버를 받낼듯 천천히, 여유로운 동작으로 운전석에 오르게끔 만든다. 한 쪽 무릎을 치켜들고 아딘가를 붙잡은 채 올라타는 게 아니라, 좁은 보폭으로 한 순간에 품위를 잃지 않고 운전석에 안착하도록 만든다는 말이다.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면서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정잡은 신사의 얼굴을 하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감성을 움직이는 기술이다.

☞ 메트로섹슈얼을 거스른다

거대하다. 승합차를 제외하면 타 본 SUV 중의 가장 거대한 느낌이다. 눈부시게 흰 덩치는 거대한 몸집의 흰 북극곰을 연상시킨다. 운전석 사이에 펼쳐지는 풍채가 너무 좋아 길을 꼭 채우는 기분이 드는 나머지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땐 어디 한 군데 굽히진 않을까 조바심이 든다.

랜인지로버 보그는 몸집 만큼이나 육중하다. 무게가 3톤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녀석이다 (2715kg). 하지만 랜인지로버의 구동계가 그 육중한 몸집을 도로 위에서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이는지를 느껴보면 이 곰의 파워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곰이 둔한 외모와는 달리 실제로 엄청나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처럼 말이다. 고유가 사대로 접어들면서 너도나도 다운사이징을 하는 것이 유행이다. 어떻게 하면 연료의 소모를 줄이고, 경량화하며, 콤팩트한 자동차를 만들 것인가가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화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으로 치면 점점 더 남성성을 잃고 메트로섹슈얼이 될 것을 강요 당하는 현대 남자처럼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랜드로버는 우직하리만큼 자신을 잃지 않는다.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면서도 철저히 더 ‘강한’ 짐승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했다. 중전 버전 보그의 최대출력 272마력은 333마력으로 높아졌고 최대 토크도 66kg·m에서 71.3kg·m로 더 강해졌다. 9.6km/L의 낮은 연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다. 굉장히 정확한 타겟팅이다. 랜인지로버를 찾는 드러바버는 기름값을 아끼려고 랜인지로버를 찾는 게 아니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연비 또한 8.8km/L였던 구형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 연비가 10km/L 이하의 차에 무조건 저효율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이도 있었지만, 실제로 랜인지로버의 운전석에서 그 파워를 느껴보면 9.6km/L라는 숫자가 오히려 고깝게 느껴질 거다.



표지예요?

➔ 길 같은 거 필요 없어

많은 SUV를 타봤지만 과연 그 중에 진짜 험한 오프로드를 제대로 해쳐 나갈 수 있는 파워를 가진 SUV가 몇이나 될까 싶다. 레인지로버 보그의 계기판과 센터 콘솔에 붙어있는 복잡 다양한 오프로드 설정 기능들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도 해쳐나갈 준비가 되어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무려 다섯 가지 지형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사막, 진흙탕, 눈길, 산속 등 어떤 지형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다이얼 조작 한 번으로 서스펜션이

위 아래로 꿈틀꿈틀 움직이며 길 아닌 곳을 뚫고 나갈 채비를 갖춘다. 마치 번신 로봇에 타고 있는 기분이다.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해 있을 때 괜히 한 번씩 서스펜션을 최대로 올렸다 내렸다 해 봤다. 주변에 서있던 운전자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구경을 하는 게 느껴진다. 마치 당장이라도 몬스터 트럭으로 번신해서 앞 차를 밟고 올라갈 것처럼 보이니 무리도 아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오프로드 능력 '제왕'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아무 망설임 없이 붙일 수

있는 차는 흔치 않다. 극한의 속도를 추구하면서도 과속 방지턱 하나 제대로 넘지 못하는 스포츠카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거친 오프로드의 영역 같은 자동차이면서도 서로 얼마나 다른 영역의 기계인지 지금까지는 머리 속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프로드 '제왕'의 교배를 직접 잡아보고 나니 비로소 피부로 와 닿게 느껴진다. 스포츠카와 오프로더의 차이는 F와 랠리만큼 다른 세상이라는 걸



제원표

엔진 형식	V8 Turbo Diesel
배기량	4,367cc
공인 연비	9.6km/L(45급)
최대 출력	313마력
구동 방식	4WD (퍼퓸타임 4륜구동)
변속기	자동 8단
최대 토크	71.3kg·m
최고 속도	210km/h
제로백(0-100km/h)	7.8초
공차 중량	2,715kg

▶ 싸움 붙이고 싶은

에디터처럼 직업적으로 자동차를 몰아보고 리뷰를 써야 하는 입장에서 중간차기쯤 하는 차를 만나면 그 차만의 특색 그 차만의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하지만 가끔씩 이런 절대 강자를 만나면 장점을 찾아내는 게 무의미해져 버린다. 장점이야 아치비 10레이저를

넘게 싸도 될 만큼 많고 그만큼 차 가격도 비싸니 좋은 게 당연하다.

최강의 야수를 얹어놓고 친사를 놓아놓는 건 의미가 없다. 대신 호적수와 맞붙여놓고 최강자를 가려내고 싶은 본능이 꿈틀댄다. 남자란 그런 거니까. 전성기의 크로캅과 브룩 레스너를 붙이고 싶듯이 말이다. 오프로드의 제왕 레인지로버와 감히

맞설 수 있는 건? 아마도 그 상대는 허머(HUMMER)가 될 거다. 굳이 비유를 한다면 이미 신사디온 과수 크로캅이 레인지로버, 새나운 야성을 온 몸으로 발산하는 브룩 레스너가 허머 아닐까? 두 오프로드 과수를 나란히 놓고 오프로드 대결을 시릴 수 있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남자들이 경행할 수 있는 최대의 로망이 될 거다.

기아 모닝 vs 쉐보레 스파크



구매기 2탄

"스파크 사원, 모닝 사원, 오늘은 제군들 신발 검사기 있겠다. 동작 그만"
BY 유승민 PHOTOGRAPHS 고정희, 김성현, 박한빛, 모니 MONEY 사장



PRESS

안면 사원 스파크
MAXIM
KOREA

MAXIM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장기간행물입니다. 등록번호 2000000

지난 달 MAXIM에 입사한 인턴 에디터 스파크 군과 모닝 군을 공개한다. 한 참 신입사원 연수를 받으며 잠시 에디터로서의 엿지를 키워나가는 중인 두 신참에게 예고없이 불시에 신발 검사를 실시했다.
"자기들 둘, 오늘은 엿지있는 에디터로서 얼마나 TPO에 걸맞게 수조를 초이스 했는지 한번 보기로 할까?"

PRESS

안면 사원 모닝
MAXIM
KOREA

MAXIM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장기간행물입니다. 등록번호 2000000

➔ 신발 검사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삼선슬리퍼를 신으면 노출자가 되고, 차림이 좀 후질구레해도 신발이 남다른데 훌륭한 빈티지가 된다. 사람의 신발도 이 정돈데, 자동차의 바퀴는 말할 필요도 없었지?

D 휠 캡
어디서 짚신같은 걸 신고 나타난 거지? 에디터로서의 에디터두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소위 강동 휠이라 불리는 이 휠 캡은 도저히 참피해서 신고 다닐 수가 없다.



타이어
클론타이어 솔루션 싸고, 이 타이어에 대한 설명은 클론타이어 홈페이지 어디에도 나오지 않다. 단종된 지 오래된 건가? 다른 차시리즈가 일반타이어로 분류되어 있는 걸 보니 보급형 저가 타이어인 듯.

B 휠 캡
자넨 그래드 좀 낮군. 어디 가서 쪽팔리진 않았어. 하지만 베스트는 아니니까 앞으로는 더 분발하도록.



타이어
한국타이어 올티모 H724. 연료 절감, 방음 능력이 좋다. 실제로 순정 타이어를 장착한 상태에서 두 녀석을 비교해서 골아본 결과 승차감과 노면 소음에 있어 스파크보다 모닝이 현저히 정숙하고 안정감이 더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여분 신발

준비성 있는 에디타리엔 불시에 신발이 못 쓰게 되었을 때 같이 신을 여분 신발을 하나쯤은 가지고 다녀야겠지? 네네 둘 다가뵈을 연다. 실새!



F년 신발 어디다 팔
이막았나? 스파크
의 적재함 아래를 열어보
니 여분 휠이 들어있어야
할 공간은 마련되어 있는
데, 정작 바퀴는 없다. 기본
사람 구매자에게 템포리
휠도 줄 수 없다는 간경 안
전성을 최대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세보레 스파크가
비상시에 사용할 바퀴도
없다니. 대실망이다.

템포러리 휠타이어는 바퀴에 문제가 생겨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정비소까지 이동하기 위해 임시로 사용하
는 휠이다. 이 녀석을 타고 신길 주행을 하다가 타이어에 펑크라도 나면 끔찍없이 조난당할 수 밖에 없었다.

A오 다행히 모닝에는
깨끗한 템포러리 휠
타이어가 고이 담겨져 있다.
멀리 갈 때에는 재는 좀 불안
하니 네가 좀 수고해 줘야겠
다. 요즘은 모닝뿐 아니라 고
급 승용차도 정식 스페어 휠
이 아닌 템포러리 휠이 들어
있다. 바퀴 한 짝 무게가 만만
치 않기 때문에 정식 스페어
휠을 싣고 다니면 그만큼 연
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참고로 귀차니즘의 확산으로 에디타리 다른 차로 템포러리 휠을 무려 한 달 가까이 굴러보지만 큰 문
제는 없었다. 그냥 신발이 하나 짝짜매도 보니 보기가 좀 그럴지는 거? 하지만 휠 무게가 달라서 주행시 불균
형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따라 하시는 마라.



결국 새 신발을 사 신겼다

뭇난 자식한테 딱 하나 더 주게 되는 법이다.



패션 감각 제로인 신입 때문에 MAXXI이 초스텝 소리
를 들을 수는 없는 일. 결국 새 신발을 사서 신기로 했
다. 아. 역시 쓴 게 비자책이란 건가? 얼마나 차이 난다고
휠 구경은 순경과 동원한 1인칭이 힘로 같았다.
요즘 MAXX처럼 경차를 사고 휠만 바꾸는 이들이 많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범하는 실수가 있다. 조
금 더 뽀나게 한딩시키고 휠 구경을 늘리는 것이다. 아
바당도 카다만 휠에 스포츠카에나 쓸 법한 얇은 타이
어를 장착한 경차를 본 적이 있을 거다.
어떻게 되나고? 일단 휠이 커지면 차 높이 똑 떨어진다.
오르막에서 한치 비탈길 뿐 아니라 연비도 엄청 나빠
진다. 안 그래도 낮은 파워는 더 낮아진다. 경차의 최대
강점인 고연비까지 포기할 게 아니라면, 선택의 대구경
휠을 탈거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게다가 휠 구경이 달라
지면 타이어도 새로 사야 하는 건 설명할 필요도 없겠
지?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
라.

STAR OF 2011 SEOUL MOTOR SHOW

MAXXI이 붉은 서울 모터쇼 최고의 이슈메이커



이번 서울 모터쇼를 찾은 관객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끌
었던 건 바로 자이언트 모닝이다. 좌사시 귀여운 모양이
기대해준 것 더 귀여워 진다는 사실. 이런 진짜 차도 아
니고 콘셉트카라 불려야 할 지 어쩐지 모였지만... 모
티쇼에서 인기가 높았던 콘셉트카가 종종 양산해오는데
는 좀 감동했을 때 자이언트 모닝의 양산을 바라던 너무
큰 욕심이었지? 경차 모닝을 끌고 다. 내신 차선 경
도 힘들고 그 외에도 몇 달 못할 설움을 겪었던 모닝 드
어 이바를 위해 기아에서 모닝의 콘서트 트랙 버전을 생
산하길 기대해 본다.



PARK

GOLF 1.6 TDI BLUEMOTION





제원표

배기량	1,598cc ¹
공인 연비	21.9km/L(1등급)
최대 출력	105마력
굴림 방식	앞바퀴 굴림
변속기	자동 7단
최대 토크	25.5kg · m
최고 속도	190km/h
제로백(0-100km/h)	11.3초
공차 중량	1,665kg

HERE

새로 나온 골프 블루오션이 하도 먹어 준다 길래... 먹어 왔다.

BY 유승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MODELS 김희성, 김영석 COOPERATION VOLKSWAGEN KOREA

→ 블루모션

'블루모션' 지구를 푸르게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MAXIM 에디터가 푸른 지구를 위해 친환경적 차를 타던 당은 기름값 때문에 친환경 차를 만다. 차 이름은 '골프 블루모션' 이라든가 골프 싸게오셔로 자였으면 참 좋았겠지만 차를 팔아야 하는 폭스바겐엔 입장에서 그런 줄 곤란했을 거다. 그나마 광고가 친화적임을 달고 나온 20세 상반기의 연비 행렬엔. 바로 골프 블루모션이다. 차, 다같이 따라해 보자. "블루+모션" (오해 마라. 광고 아니다). 폭스바겐은 MAXIMO에 광고를 하지 않는다)

사실 골프 블루모션이 세상을 더 블루하게 만든다고 하면 구리지만, 세상을 조금 더 탁하게 만든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핵심은 역시 연비다. '새로 나온 골프 블루모션의 연비는 리터당 21.9km 같은 흔해빠진 소릴 하려는 게 아니다. 공인 연비야 네이바에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고,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운전했을 때에 나오는 거 하는 거다.

일찍 보면 골프 블루모션 말고도 연비 좋은 차 참 많다. 특히엔 리터당 연비가 20km 넘는다는 차가 너무 많아서 골프 블루모션의 연비 21.9km/L가 팽팽하게 보일 정도다. 하지만 다른 자동차들이 연비를 말할 때 항상 속 빼놓는 얘기가 있다. 바로 '자동차연속기'를 택했을 때의 연비'다. 참고로 같은 1600cc의 어떤 차는 23km/L가 넘는 가끔할 연비를 전면에 내세워 광고를 해대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허상을 알게 된다. 23km/L는 사실 '수동변속기' 상태에서만 나온 수치고, '자동변속기'를 택했을 경우 공인 연비가 8km/L까지 내려가버리기 때문이다. 오세 솔직히 누가 '수동변속기' 상태로 차를 출고하? 참고로 자넨달에 MAXIMO에서 구매할 경차 스포츠도 '연비 21km/L'에 혹해서 신 개 큰데, '자동변속기'를 선택하고 나니 이전 연비가 17km/L 된다. 기름 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무려 4km/L 떨어진다.

골프 블루모션의 21.9km/L라는 숫자가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은 리터당 기술적으로 볼 때만 나오는 이론상의 숫자가 아니라, 누구나 오토로 그냥 몰아도 저 숫자가 나온다는 거지.

→ 공회전 0

최근 자동차 전문지 (잡지)에 한국판에서 골프 블루모션을 가지고 실제 연비 테스트를 한 바 있다. 한 번 주유로 해남 땅골마을과 부산을 찍고 서울로 돌아오는 프로젝트. 이들이 이틀간 실험한 결과에 따른 실제연비는 무려 리터당 24.8km/L 게다가 실제 연비가 공인연비 (21.9km/L) 이하로 떨어졌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응, 가능하다. 비결은 바로 '오토 스탠트/스톱 시스템'이다. 엔진의 연료 효율성' 개조' 갈라짜는 게 아니라 골프에서 '공회전'이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버려 '냉각연료를 0로 만들었다는 대담한 발상'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오세 가아프터에서 '차가 멈추면 기동도 멈춘다' 라고 하여 회계를 모으고 있는 바로 그 기술 말이다.

참답답에 위치한 폭스바겐 코리아 건물에서 이 녀석을 끌고 나와 생각없이 도로를 주행하던 중 빨간 신호를 보고 차를 세웠다. 순간 '피리리' 하고 시동이 꺼졌고 에디터는 몹시 당황하기 시작했다.

'뭐지? 왜지? 생각해 생각해, 병신아!' 신호가 다시 녹색으로 바뀌었고 '엑셀러레이터로 발을 옮기기 위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까리링' 하고 시동이 걸린다. 아무런? 그럼 그렇지. 선풍기도 없고, 스피커기도 없고, 터치 스크린도 없고, 가죽 시트도 없고, 편의료위 보이는 웬만한 기능은 다 생략하면서 절감한 돈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구래!

하지만 오토 스탠트/스톱 시스템은 운전하는 사람을 참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기능이다. 주행 상황에 따라 유용할 수도 있지만 '차리리' 꺼 놓는게 '낮겠다'라는 생각을 지무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토 스탠트/스톱 시스템이 유용하다고 느끼는 건 그야말로 정치 상황이 '스톱' 기능을 사용하기에 '적당한 정지'인도 아닌! 딱히 서울 거리에서 간혹 '교차로' 신호 때문에 걸리는 정도? 기다 서둘을 반복해야 하는 서울 도로에선 10m 갈 때마다 시동을 끄다 켜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골프 블루모션을

타는 9일 동안 '이러다가 전화 플러그가 금방 나가버리는 거 아닌가'하는 걱정이 들 정도였다. 하루에 5~6번 정도 걸까 말까 한 시동을 죽히 50~60번은 가는 거 같았으니까. 그렇다고 차가 뿔 뿔 뿔 고속도로에서 유용할 것도 아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실 일이 거의 없으니 말이다. 아직 완전차 않아 보이는 부분도 있다. 어떤 때는 가끔 정지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꼭 짊고 있어도 시동이 꺼지지 않는다. 그래도 상황에 따라 오토 스탠트/스톱 기능을 아예 꺼놓을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다.

→ TDI

골프 블루모션은 경유를 먹는다. 다른 골프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휘발유를 안 먹는다는 것만으로 상당한 경제적 메리트를 안겨준다. 블루모션 버전에 적용한 TDI 엔진은 Turbo Direct Injection의 약칭이다. TDI 엔진은 폭스바겐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디젤 '터보엔진'으로, TDI라는 명칭 자체가 폭스바겐만 사용하는 단어가. '터보' 차자의 원리에 관한 설명은 이리 과월호에서 여러 번 설명해 바 있으나 생략해도 되겠지? TDI 디젤 분사 시스템의 사용이 좀 낫긴 하지만 '박력' 있는 당시에게 먹이다. 특은한 주를 엔진이기 때문에 고장도 적다.

혹시 평소 당산도 에디터처럼 '구경도 경제적인 차'처럼 없는 차' 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나? 동굴동굴한 골프를 보고 귀엽다고 말하는 애저들도 많지만 골프는 절대 '친화적'인만한 차가 아니다. 출력이 많이 다용엔진에 된 16 '모터'인에도 불구하고, 다이나믹한 가속성은 놀라울 정도다. 게다가 TDI 엔진은 '투입' 쉽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휘발유 차에서는 엔진을 새로 이식해야만 가능한 정도의 마력과 토크 상승을 약간의 튜닝만으로 비교적 손쉽게 '사실' 아주 손쉽게는 없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수무수한 튜닝과 비교 물러나다는 '박가'의 레이스들 중에 골프를 모는 녀석이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

3,190만원



TDI

BLUEMOTION
TECHNOLOGY

2011년 5월

가격별 국내

시판 차량 리스트

대한민국 1수컷 1자동차 갖기 프로젝트



인피니티 콘셉트카 ESSENCE

MOTOR 섹션 첫 페이지의 MAXIMO 선정 한 2011 서울모터쇼 BEST CONCEPT CAR에서 끝까지 우릴 고민하게 만들었던 차가 바로 이 인피니티 에센스 대화장품 아님. 모터쇼 현장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인피니티 에센스가 4월부터 5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 인피니티 전시장을 돌며 단독 순회 모터쇼를 하고 있다. 재수가 좋으면 전시장에서 전 세계에 300개 한정 생산된 인피니티 에센스 스크르프저를 선물로 준다. 책상 위에 놔두면 간지가 그만일 거다.



제조사	가격	연령	제조사	가격	연령	제조사	가격	연령	제조사	가격	연령	연비 (km/L)
GM	274	2011 아베로 1.0 가솔린	기아	1825	2011 투싼 LR	현대	2200	2011 투싼 디젤 1.9D-4WD	현대	2250	2011 Q5S 디젤 4WD	24.1
기아	274	2011 스포츠 달링	현대	1860	2011 스포츠 가솔린	기아	223	2011 그랜저 GLS 디젤 2.0	현대	226	2011 아반떼 2.0D 4WD	24.1
현대	810	2011 벨리타 가솔린 1.4 DOHC	현대	1028	2011 그랜저 세레스 LR 변속용	기아	225	2011 스포츠 디젤 2.0 4WD	현대	230	2011 피렌트 2.0 가솔린 4WD	24.1
기아	860	2011 스포츠 1.0 가솔린	현대	1034	2011 그랜저 세레스 디젤 변속용	GM	225	2011 트루노 2.0 가솔린	현대	230	2011 벨리타 2.0 가솔린	24.1
GM	863	2011 대우 뉴 쉐논	현대	1078	2011 그랜저 세레스 디젤 변속용	현대	230	2011 투싼 CS 4WD	현대	230	2011 투싼 파워 가솔린 디젤	24.1
기아	889	2011 요리닉 세라 가솔린 1.4 DOHC	기아	1078	2011 투싼 울프 2.0	현대	233	2011 Q5S 가솔린 2.0 세라	기아	235	2011 미션서프 2.2 2WD	24.1
현대	102	2011 벨리타 가솔린 1.6 DOHC	현대	1078	2011 투싼 2.0 VVT	기아	235	2011 그랜저 카펠라 LR	현대	235	2011 Q5S 2.5 가솔린	24.1
기아	104	2011 벨리타 디젤 1.5 VGT	현대	1090	2011 벨리타 1.8	현대	240	2011 피렌트 2.0 2WD	현대	24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디젤	24.1
기아	107	2011 요리닉 하이퍼 가솔린 1.4 DOHC	현대	1092	2011 그랜저 세레스 LR 하이퍼 연용	GM	243	2011 투싼 디젤 2.0	현대	248	2011 투싼 파워 가솔린 디젤	24.1
현대	110	2011 스포츠 CE 1.6 가솔린	기아	1093	2011 요리닉 하이퍼 2.0	현대	240	2011 투싼 하이브리드	현대	248	2011 미션서프 가솔린 2.4 2WD	24.1
현대	149	2011 투싼 1.4 CVT	기아	1093	2011 투싼 1.8 2.0	현대	247	2011 투싼 2.0 Turbo	기아	245	2011 투싼 2.0 가솔린 2.4 DO	24.1
GM	153	2011 아베로 1.8 가솔린	GM	1093	2011 투싼 1.8 2.0 디젤	현대	247	2011 미션서프 가솔린 2.4 2WD	기아	245	2011 투싼 2.2 가솔린 디젤	24.1
기아	106	2011 요리닉 하이퍼 가솔린 1.6 VVT	현대	1093	2011 투싼 1.6 VGT	현대	240	2011 미션서프 V2 2.0 2WD	현대	245	2011 아반떼 2.0D 4WD	24.1
현대	120	2011 투싼 하이퍼 1.4 VVT	현대	1093	2011 그랜저 세레스 디젤 하이퍼 연용	GM	250	2011 미션서프 2.0 가솔린 4WD	현대	245	2011 투싼 파워 가솔린	24.1
현대	124	2011 스포츠 1.0 1.6 VVT	기아	1095	2011 투싼 1.6 VGT	현대	250	2011 Q5S 디젤 2.0 2WD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요리닉 하이퍼 디젤 1.5 VGT	현대	1107	2011 투싼 가솔린 2.0 2WD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아반떼 2.0D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GM	1107	2011 투싼 1.8 2.0 가솔린	현대	250	2011 투싼 하이브리드 2.0 2WD	현대	245	2011 투싼 파워 가솔린 2.0 4WD	24.1
기아	125	2011 요리닉 하이퍼 1.6 VGT	기아	1107	2011 그랜저 세레스 디젤 하이퍼 연용	현대	250	2011 투싼 2.0 가솔린 2.0	현대	245	2011 투싼 파워 가솔린 2.0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기아	1107	2011 투싼 1.6 VGT	현대	250	2011 Q5S 디젤 2.0 2WD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현대	1107	2011 투싼 가솔린 2.0 2WD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GM	1107	2011 투싼 1.8 2.0 가솔린	현대	250	2011 투싼 하이브리드 2.0 2WD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기아	1107	2011 투싼 1.6 VGT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현대	1107	2011 투싼 가솔린 2.0 2WD	현대	250	2011 투싼 하이브리드 2.0 2WD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기아	1107	2011 투싼 1.6 VGT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현대	1107	2011 투싼 가솔린 2.0 2WD	현대	250	2011 투싼 하이브리드 2.0 2WD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GM	1107	2011 투싼 1.8 2.0 가솔린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기아	1107	2011 투싼 1.6 VGT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현대	1107	2011 투싼 가솔린 2.0 2WD	현대	250	2011 투싼 하이브리드 2.0 2WD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GM	1107	2011 투싼 1.8 2.0 가솔린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기아	1107	2011 투싼 1.6 VGT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현대	1107	2011 투싼 가솔린 2.0 2WD	현대	250	2011 투싼 하이브리드 2.0 2WD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GM	1107	2011 투싼 1.8 2.0 가솔린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기아	1107	2011 투싼 1.6 VGT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현대	1107	2011 투싼 가솔린 2.0 2WD	현대	250	2011 투싼 하이브리드 2.0 2WD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GM	1107	2011 투싼 1.8 2.0 가솔린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기아	1107	2011 투싼 1.6 VGT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현대	1107	2011 투싼 가솔린 2.0 2WD	현대	250	2011 투싼 하이브리드 2.0 2WD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GM	1107	2011 투싼 1.8 2.0 가솔린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기아	1107	2011 투싼 1.6 VGT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현대	1107	2011 투싼 가솔린 2.0 2WD	현대	250	2011 투싼 하이브리드 2.0 2WD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GM	1107	2011 투싼 1.8 2.0 가솔린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기아	1107	2011 투싼 1.6 VGT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현대	1107	2011 투싼 가솔린 2.0 2WD	현대	250	2011 투싼 하이브리드 2.0 2WD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GM	1107	2011 투싼 1.8 2.0 가솔린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기아	1107	2011 투싼 1.6 VGT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현대	1107	2011 투싼 가솔린 2.0 2WD	현대	250	2011 투싼 하이브리드 2.0 2WD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GM	1107	2011 투싼 1.8 2.0 가솔린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기아	1107	2011 투싼 1.6 VGT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현대	1107	2011 투싼 가솔린 2.0 2WD	현대	250	2011 투싼 하이브리드 2.0 2WD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GM	1107	2011 투싼 1.8 2.0 가솔린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기아	1107	2011 투싼 1.6 VGT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현대	1107	2011 투싼 가솔린 2.0 2WD	현대	250	2011 투싼 하이브리드 2.0 2WD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GM	1107	2011 투싼 1.8 2.0 가솔린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기아	1107	2011 투싼 1.6 VGT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현대	1107	2011 투싼 가솔린 2.0 2WD	현대	250	2011 투싼 하이브리드 2.0 2WD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GM	1107	2011 투싼 1.8 2.0 가솔린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기아	1107	2011 투싼 1.6 VGT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현대	1107	2011 투싼 가솔린 2.0 2WD	현대	250	2011 투싼 하이브리드 2.0 2WD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GM	1107	2011 투싼 1.8 2.0 가솔린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기아	1107	2011 투싼 1.6 VGT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현대	1107	2011 투싼 가솔린 2.0 2WD	현대	250	2011 투싼 하이브리드 2.0 2WD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GM	1107	2011 투싼 1.8 2.0 가솔린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기아	1107	2011 투싼 1.6 VGT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현대	1107	2011 투싼 가솔린 2.0 2WD	현대	250	2011 투싼 하이브리드 2.0 2WD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GM	1107	2011 투싼 1.8 2.0 가솔린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기아	1107	2011 투싼 1.6 VGT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현대	1107	2011 투싼 가솔린 2.0 2WD	현대	250	2011 투싼 하이브리드 2.0 2WD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GM	1107	2011 투싼 1.8 2.0 가솔린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기아	1107	2011 투싼 1.6 VGT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현대	1107	2011 투싼 가솔린 2.0 2WD	현대	250	2011 투싼 하이브리드 2.0 2WD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기아	125	2011 투싼 1.6 VGT	GM	1107	2011 투싼 1.8 2.0 가솔린	현대	250	2011 투싼 블루 가솔린	현대	245	2011 스포츠 2.0 가솔린 4WD	24.1

제회 무료 팅팅 이벤트 당첨자는?

지난 달 무료 팅팅 이벤트에 독자들이 보내는 열화와 같은 성원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수많은 사연들과, 직접 찍어 보낸 예미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지면에 실지 정말 아깝다. 이번 달 당첨 독자는 바로 이 남자. 감개무량이다! MAXIM의 본 사관 차량 리스트가 마이가 지름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에이 이번 달 MAXIM의 팅팅 선물을 받을 남자로 선정됐다.



근대식 맥심과의 인연을 맺은 지 7년차이며 법 없이도 사는 28년산 직장인 수컷이요. 가부감 없는 비주요를 몰라본야 연애사에 골격이 없었으나 미세우름이 늘습습호 예미의 필요성을 매일 느끼고 상가인턴 중이었소. 맥심의 MOTOR 색선 국내 시판차량 리스트에서 스포티저 R 가격을 보고 기아자동차에 백만, 흠자를 보라갔다거 그과 계약해버리리도 말았소. 근대 맥심이 시판차량 리스트에서 일러준 가격거만 시판보다 비싸이다. 맥심의 '수컷 자동차 갖기' 로 인해 총알이 많이 나가서 현행은 그냥 싸구려로 했소. 튜닝의 최고봉인 연연을 만들며 빨리 장바지에 모셔가 하니 난팅부터 해걸을 좀 부탁하오. 본인이나 나그네이 0.00%를 부당해테니 나야만만 부당하오. 부당기자라고 하는 말이오. 재발! - 감개환

이광삼



상품

최근 7년간의 MAXIM 과월호 2건씩 패키지

이광삼까지 고인하게 만든 응모자들에게 이광삼 드리겠습니다.



마쓰다 MX-5를 끌고 다니며 한겨울 열매중진 의사선생 닥터 조
▶ 당신에게 거의 가물었다거 '항상' 맥심을 묵여안서 보는' 에서 실락 배웠소.



자판에서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고, 곧 역사가 이루어질듯 하다는 심경보 독자
▶ 부, 부랴나! 전정, 역사를 한 뒤 뒤로 미루겠소. 다음 달에 다시 응모하오.



지난 3월 9일, 구름 구린후 후 벌써 수채재의 사고를 겪고 한새 입원 중인 나상현 독자
▶ 차가 자리했는데 어찌에 팅팅을 하겠다느 건지? 지공 당신에게 필요한 건, 정말 타겟용 과월호

제조사	가격	모델명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570	2017 제네시스 AS	현대	₩ 2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3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3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3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아디다	₩ 200	2010 G2 42 30000	현대	₩ 580	2017 제네시스 GTS	현대	₩ 3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3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3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3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벤츠	₩ 290	2010 메르세데스 S500 CD	BMW	₩ 580	2017 BMW 650i	현대	₩ 3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3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3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3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00	2011 Q4 56	현대	₩ 590	2017 제네시스 타운	현대	₩ 4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4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4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4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아디다	₩ 200	2010 스포츠 Tuto	제과	₩ 500	2017 MK 쿼트 5.0 NA	현대	₩ 45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45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45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45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00	2018 하이퍼 V10 TD 4WD	아디다	₩ 600	2017 스포츠 EX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BMW	₩ 600	2017 BMW M4 70000000	BMW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BMW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BMW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BMW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제과	₩ 20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BMW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BMW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BMW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BMW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BMW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BMW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290	2017 제네시스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제너 4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0	현대	₩ 600	2017 제네시스 S 8000000			



섹시 가이의 메가 승부욕을 두 바퀴로 굴리다

마초남의 전유물, 두 바퀴의 미법을 아는가? "나 좀 빨라!" (잡자리에서만큼은 이래선 안 된다!)를 외칠 줄 아는 가이들에게 모터사이클은 자신의 스테디마너를 만천하에 보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속칭 '뽕' 가는 머신을 '뽕' 가는 기술로, '뽕' 기계 탈 수 있음을 보인다는 것은 또 다른 수컷들을 기죽게 만들 정력 왕으로 등극한 것과 같은 뿌듯함을 준다. 섹시한 철마를 이리저리 부리는 매끈한 테크닉은 당신을 최고의 수컷 반열에 올리기 충분하다. 남자가 진정한 희열과 보람을 느끼는 건 여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보다, 다른 남자의 부러움을 사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이번 달에는 당신을 정력 왕으로, 진정한 마초로 둔갑시켜줄 이탈리아엔 다크호스들을 선보인다. 우두머리 수컷의 포스를 팍팍 풍기며 주변 남자들을 쫓게 하는 재미를 느껴보고, BY 김태

Aprilia / RSV4 factory 3,800만 원

미친 존재감을 보이는 이 경이로운 바이크는 그 자체로 실물이다. 힘의 상징이며(180마력/12500rpm) 전 세계 슈퍼바이크 장르에서 가장 빠른 바이크의 상징이다(2010 WSBK 월드챔피언). 힘과 빠르다. 이것은 모터사이클의 가장 강력한 미덕이자 매력이다. 이프필리아사(가)가 미국과 매력을 갖출 수 있었던 배경엔 세계 최고의 전자장비를 개발, 장착할 수 있게 한 기술력이 있다.

*APRC라 부르는 전자 컨트롤 장치는 폭발적인 수평 V형 4기통 엔진과 칠백공함을 과시하며 동급의 모터사이클보다 더욱 빠르고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 여가터 엔진, 서스펜션, 프레임, 휠과 타이어, 그리고 브레이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새롭고 훌륭하다. 디자인엔 또 어떤가? 이탈리아의 감성이 살아 있는 바이크의 대명사답게 뻗어 간다. 얼굴 예쁘고 몸이 좋는데, 밤알까지 끝내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맛있는 밥상까지 내줄 줄 아는 여자 같을까?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일몰에 앞차처럼 갈친 차림으로 속삭여 마주 앉아, 빈번한 수의 마초를 자신의 매력으로 길들일 줄 아는 여자. 섹시한 모터사이클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머신이 바로 이프필리아 RSV4다.

*APRC: 이프필리아가 개발한 전자 장비 시스템으로, 임박하기 들리는 것을 컨트롤하는 워터 컨트롤, 트랙션 컨트롤, 런치 컨트롤, 렉시시프트의 장비를 자랑한다.



금데 두른 물건 처음 봐?

▶ MV Agusta / F4CC 2억 원

당신도 이름은 익히 들어봤을 MV 아구스타다. 하늘을 뚫을 듯한 날렵한 라인과 남성다운 근육질이 어우러진 이 바이크는 색시 가이 마초 모터사이클의 영역이나 다름없다. 아프릴리아의 RS4V4 200년 해상처럼 등장해 '중결자'의 칭호를 꿰차지만, 항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과 같은 성역은 오히려 F4CC가 차지하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 녀석은 현존하는 양산차 가운데 가장 고가품이다. 금데라도 들렀나고? 아. 금데 두른 귀한신 품이다. 그러나 페라리의 '엔초'도 부러워하지 않는 자존심과 강인이 있다. 2억이라는 금액은 그저 상품의 가격일 뿐 전 세계 한정 판매하는 이 모터사이클의 가치는 구매 이후에 더 높아진다. 이는 천재적인 디자이너 마시오 탐부리의 모터사이클 설계 테크닉이 집약된 역작이며, MV 아구스타사의 레이싱에 대한 열정을 이탈리아 장인들이 한 밤 꿈 공들인 명품이기 때문이다. 포물러 1기술을 접목하여 완성한 엔진과 각종 부품, 구성품 하나 하나에서 사회 지도층도 만나지 못할 명품 포스를 뽐기에 그저 그림만 걸아놓고 대부분 끝만 꾸는 바이크라는 것도 사회사. 집안 좋고 교양 있으며, 함께 짝꿍을 끼고 다니면 어딜 가도 확실하 주목받을 만큼 아름답고, 장차리에서는 최고의 형출경을 안겨주어 당신을 끌로 보낼 여자차 F4CC다. 그러나 밥은 못한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다. 평생을 함께할 여자로는 부당스럽다. 하지만 이 색시할 하나로 족하지 않을까? 이런 여자화 함께 있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수컷 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에 충분하니까.



▶ MOTO GUZZI / V7 RACER 2,180만 원

우리가 알고 있는 'GUCCI'다. 그리고 이 모터사이클은 GUZZI. 명품 짝꿍이냐고? 아니다. 둘 다 1930년대에 탄생했으니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명성을 떨쳐왔다. 모터사이클을 사랑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이나 어쩌면 명품 패션 브랜드 쿠찌보다 MOTO GUZZI를 더 친숙하게 느끼고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V7 레이서는 먼저 소개한 두 모터사이클에 비해 원초적인 색시함을 지니고 있다. 일단, 다 벗었다. 그 흔한 커버 하나 없이 엔진과 프레임, 서스펜션을 비롯해 모든 면면이 고스란히 노출처럼 드러나 있다. 게다가 엔진은 일반적인 모터사이클과는 다르다. 1970년대 스타일답게 출력도 크게 대단할 게 없다. 아프릴리아와 MV 아구스타에 비하면 매우 빈약한 출력(40마력/6,800rpm)과 왜소한 모습이지만, 스타일만으로 눈을 사로잡는 매력이다. 새로 배치 V형 엔진은 특히 BMW의 모터사이클과 대비되는 육감적인 색시함이 넘쳐, 일명 '탱탱하게 올라온 가슴'이라는 별명을 갖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전체를 크롬으로 도색한 과감함은 마치 누드 비치를 거니는 메간 폭스의 늘씬하고 대담한 걸음걸이를 보는 듯하다. 빠르지는 않아도, 꾸준하게, 고유의 감성이 담긴 시운도로 밤새 몇 번의 잠정을 맛보게 해줄 만큼의 모터사이클. 체 게바라의 포대 로사보다도 더한 강렬함과 가장 원초적인 색시함이 필요하다면 모토쿠찌의 V7 레이서를 만나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국내에는 10대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매년 한정 생산하기 때문이다. 그런 애걸 들으니 몸이 점점 더 달라오르지 않나? ☺

하루 가려 하는 남자만 탈 수 있는 건 아니니 걱정 마.



Kim Jung Tae

양아치, 건달, 오르말, 야쿠자, 개도독을 거쳐 새 영화 (체포왕)에서 경찰 공무원으로 진급한 그와 조근부 만남을 가졌다. MAXIM 1년 전 친구 독권을 조건으로...

BY 이영희
사운드 디렉터 DoubleM Entertainment



늦었지만 독남을 축하한다. 아들이 커서 현인처럼 잘생기면 좋겠다. 이권희 회장 같은 부호가 되면 좋겠나?
당연히 현인! 짐사람은 아들을 제2의 조건성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현인 얼굴이 안 나오면 고쳐주면 된다.

아내 될 뻔을 처음 보자마자 당신 아들을 낳아줄 여자를 걸 잡았잖나?
아니. 우린 동료애, 전우애로 맺어진 부부다. 웅신에서 깨구리복을 맞춰 커플룩으로 입교를 했다.

<빙가? 빙가!>의 노래방 주인 공황의 신들린 '찬찬찬' 열창은 연습만으로 나오기 힘든 연기인 것 같다. 실제로 노래방에서 최종을 일도하?
어떤 술자리나 인연은 맺이나. 술의 양은 어느 정도나 떠먹는다. 다테함을 살린 맞춤형 레퍼토리가 늘 준비돼있다.

재즈 팬이라고 들었다. 왠지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다.
첫 베이커의 음악을 처음 들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낫 12시. 부산 MEC. "첫 베이커의 피아니 벨런타인"입니다." 하고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를 어떻게 할 수 있구나 하고 모티브로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피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영화음악을 만든 기토 바베레의 음악도 최고다. 영화도 음악이 좋은 영화가 좋다. 미셀 파이퍼가 주연한 (사랑의 행로)의 음악도 진짜 좋다. 꼭 봐라. 파이퍼 누나가 파이퍼가 좋아서인지 노래를 참 잘해.

*첫 베이커: 1950년대 활동한 유명 재즈 뮤지션으로, 1989년 테일런드 한 호텔에서 추락해 사망한 비운의 사이다. 절정기 외모였는데 말이야

트위터를 꽤 많이 한다. 주변에 트위터를 너무 많이 해 귀찮은 사람이 있나?
박중훈 씨는 제 자이다기보다는 '참 부자러한 사람'이지.

네이버에서 '김정태'를 치면 하나는 행은행장 김정태가 먼저 뜬다. 하나는 원래 내가 먼저 썼는데 얼마 전에 밀렸다. 하나는행이 내 10년 경력자인데 내 이름보다 먼저 있는데. 요런 빈정 상하는 상황을 만들다니 용인할 수 없다. 네이버에 즉각적인 수정 작업이 요해 차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포왕>엔 박중훈, 이선균을 필두로 굵직한 남자 배우가 많이 나온다. 여배우가 없어서 수작 범생이 진동했잖나. (따사) 굶나... 다들 나보다 가는데? 남자끼리 마음 맞으면 더 편하고 재미 있다. 예전 여배우가 있으면 눈앞만 돌아보고 마음만 아플 뿐이지. 다들 유부남이니까 더 빠르지. 촬영은 겨울이고 개털은 봄이라 얼은 옷 입고 추울 때 촬영해서 힘들었다. 물론 이선균, 박중훈만 미친 듯이 뛰었지. 난 아니고.

출연진 중에서 가장 낯자다운 사람은 역시 본인이었잖나?
부정할 수 없겠어. 농담이다. 다 남자였다. 중언이 형은 불의를 못 참고, 선균이는 호랑이고, 상민이 형은 짐장이다. 선균이는 이 영화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진짜 사이다! 좋은 후배다. 배우들끼리 소주한 잔씩 하면 서로 웃거리고 난리 난다. 여기에 여자분들 오면 완전 끝난다. 자러갈지 기다.

당신 아이는 최고의 주장은?
성동일 친구수는 진짜 날개 없는 천사야
박중훈, 이선균, 이상민 씨와 김정태 씨 네 분 중에 같이 외도 순위를 매기

자연? 굶아...
물어보나 마나 1위 이선균. 2위 나, 3위는 중훈이 형 주고, 4위가 상민이 형.

마포구 송 켄서 캐릭터는 어떻게 표현했나?
가벼운 코믹 터차?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다? "빙가? 빙가?" 이후 나의 진가를 영화계가 알게 됐다? 고 할 수 있다. 인생의 타성 포인팅 같은 작품이다. 고 말게 생각한다. 빙은 작에 더 깊었고 이제 플러스 인생만 남았다.

그동안의 배역들이 거의 다 욕을 입어 달고 사는 인물이었다 참맛없잖나. 잘 살았다.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욕은?
씨발새끼. 특히 운전할 때 배려없고 매너 없는 씨발새끼들이 너무 많다. 특히 우리 매너새 확 잘라버리랴~

<동해>에서 "조각리미아시아"라는 대사를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만난 적이 없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별 의미 없는 쌍용 되었다. 여기서 미아시아란 미아신 황생재 상처 난 데 댕난 데엔 미아신 그리고 '웃가'는 말 그대로 웃을 까라. 일했나?

이번 경찰 공무원을 하게 됐으니 남은 건 멜로뿐이다. 로맨틱 코미디가 좋을까, 판타지 감독한 미친 사람이 좋을까? 딱히 어떤 영화를 하겠다고 영유에 두진 않는다. 괜히 미만 아프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급된 순서대로 한다. 한다면 부산 사이다의 로맨틱 코미디가 괜찮겠다. 지독하고 미친 사랑은 안 해봐서 모르겠다.

상대 여배우를 고를 수 있다면?
아무나 다 좋다. 최근 이상행이 바뀌었. 김혜수에서 이허노로. 진정한 욕감 종결자

역시 여자는 얼굴보다...
그렇게 몸매가 얼굴 뜰어먹고 살 거 아니냐? 난 욕감적인 여자가 좋다.

베드신이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할 건가?
마음 정도? 마음만 가져가겠다.

여자를 유혹하는 당신만의 필살기는?
3시간 정도 그냥 사람~하게 웃겨준다. 그럼 더 볼 거 없이 게임 끝.

'코믹 연기의 달인'이라는 세간의 평이 부담스럽지는 않나?
내 자신이 균형 감각만 잃지 않으면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다.

<마세터> 같은 선수가 남자하면서도 나름의 색깔이 돋보인 8급 액션 영화는 어떤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킬링 타임은 슬레사는 안 좋아한다. 악을 응징하는 전형적인 액션이 좋다. 당선은 그런 걸 좋아하~? 같이 마장동 한번 떠났는데, 선행상자재. 그리고 인생이 8급인데 영화까지 8급 필요 있나?

나도 당신이 '얼굴로 먹고사는 배우'라고 생각한다. 동의하나?
누가 사비 안 갖고, 우병 자재에 가도 광고, 업소에서 술도 편하게 마신다. 여의도 좀 왔다. 배우에게 얼굴이 주는 이익이기는 중요하지. 그 표현에 동의하고 또 고맙게 생각한다.

배우는 타고나는 것일까?
그렇다. 70% 이상은

본인은 타고난 배우인가?
그렇다. 점 보면 배우 필자라고 나온다.

아름을 때 닭 배달 알바까지 했다던데, 마자릭으로 김정태에게 '동담' 이란? 장담, 성숙, 요거 대담 괜찮았나?

격투기 팬 김정태의 UFC 사랑

그의 꿈은 언젠가 종합격투기 선수를 후원하는 거란다.
"김보성처럼 요란하게는 말고."

에델리아네편표 표도르

"그의 물리학 보니 가슴이 뭉개졌다. 잎이 손에 안 잡혔다.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김동현

"UFC가 상향평준화된 필드라 보니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 체력을 더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 원래 KO율이 나
쁘진 않았으니 기대할 만 하다. 팬이다!"

지메스피

"자기 관리 잘하는 만능 테크니션이지만 이상적인 파이터
느낌이 없어 멋있지 않다. 난 슬퍼 타입의 파이터가 좋다."

옥타곤 걸 아리아나 슐레스트(2010년 6월호 MAXIM 커버)

"말이 필요 없다. 안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나? 조인성도
백 갈 거다. 이메일로 사진 좀 보내달라."

“여자는 몸매지
얼굴 들어 먹고 살 거
아니잖아?”



걸스데이



촬영장 참무하기

COOPERATIONS

가이디언(02-347-0398) 알빈콜라오진, 알빈콜라인 언더웨어, 엠도리온 이모매니 언더웨어, 이베네(02-347-7723) 슈즈원(02-343-1703)

제이이앤앰(070-886-7834) 프라디, 타이탈피커, 힐미가제넌, 탑걸, 지이크, 바카루, 사스원음극, 나스(02-546-7704) 베뉴라이비(02-344-7712) 뎀스 코리아(www.borns.co.kr 032-653-0888)

TODAY IS GIRL'S DAY

무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녀들의 숨은 매력을 감상할 준비 됐나?

BY 김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고경희 FILM 김민욱
HAIR 세니 루아 MAKE-UP 정은 정예LIKE A YUKI 02-540-6266~7 ASSISTANT 조유림



표지 >>

민하의 화이트 셔츠 지미크
소치의 화이트 셔츠 시스텔음모
자혜의 블랙 상의 제이미앤벨
구두 슈즈원

민소매 셔츠와 치마 모두 기이아
발리 제이미앤벨
구두 슈즈원



세리클 상의 아래서
몸감이 제이미앤벨
소츠 프렌디
구두 가이아

MAXIM과 두 번째 촬영이다. 소감이 어떤가?

(걸스데이 모두) 와우 우리가 표지라니!

질나는 걸그룹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요즘 인기가
실감이 나나?

아직 잘 모르겠다. 오히려 질문에 '질나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깜짝 놀랐다(웃음).

음악 방송에서 삼촌 팬의 우렁찬 함성소리를 들은
적 있나?

삼촌 팬은 바쁘기 때문에 함성소리를 들은 적
은 없다(웃음). 삼이 친들어도 우리 노래 덕분에 출
근길이 신이 난다는 말을 들을 때면 기분이 좋다.

나미의 '빙글빙글'을 모티브로 한 '벌떡벌떡'으로 대
박을 티뜨렸다. 20여 년 전 우리나라를 주름잡던 가수
의 노래가 아이돌 음악으로 거듭나다니!

그때 나미 선생님이 아이돌 못지않은 존재 아니었
나?(웃음).

나미의 노래 중 '빙글빙글' 외에 좋아하는 게 있나?

음... 우리는 빙글빙글이 좋다(웃음).

지난 음반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잘해
줘 봐야'가 마니아 팬은 많았지만 대중적인 인기를
놓쳤다면 이번 음반은 그 반대다.

둘 다 걸스데이의 모습이다. 우리가 마니아와 대중
모두를 사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주면
좋겠다. 음악의 취향은 온전히 대중의 몫 아니던가.

그나저나 MAXIM 영상 에디터가 걸스데이의 맘마마
춤 따라하던데 그걸 본 순간 기분이 어땠나? 솔직
하게 말해달라, 더러웠다고.

'사람들이 맘마마 춤을 정말 좋아하는구나'란 생각
을 했다. 따라할 때 약간의 어설픜음이 오히려 더 귀
엽게 느껴진다.

그간 예능 프로그램에 소소하게 출연한 보람이 있다.
(개그콘서트)에 출연해 능청스러운 연기를 뽐냈다.
민이의 색소 연기 덕분에 한숨 돌렸다(웃음).

해리

윤아만? 빛 어둠 속의 가면
보아 찬사만? 궁극적인 아트는 파스
걸스데이만? 신기한 화도 행운은 우리
100만 아이들과 그외의 출연진 분들도
화이팅 화이팅! 잘 하는 사랑
정수만만? 비 몸 프로그램 열일

그리고 보면 예전에는 민아가 예능 프로그램을 주름잡더니 요즘은 지혜와 다른 멤버의 예능감도 만만치 않다.
다른 멤버들도 숨은 끼가 만만치 않다. 앞으로 더 기대해달라.

요즘 유행하는 사바이벌 프로그램에 도전할 기회가 있으면 참여할 생각인가?

우리도 가수가 꿈이었다. 음악적인 도전은 언제든 환영이다. 일단 도전할 만한 자격을 갖추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생각이다.

그렇다면 걸스데이이고 싶은 음악은 뭔가?

장르 구분 없이 사랑을 잡아주는 애니지가 넘치는 음악을 하고 싶다. S.E.O.S나 핑클처럼 전 국민에게 사랑받고, 오랜 시간 노래가 회자되는 그룹이고 싶다.

걸그룹 중 처음으로 커피 전문점의 지분을 갖게 됐다. 이 기회에 프랜차이즈 지점을 내볼 생각이 없나? 그간 생계형 아이들은 있어도 사업형(?) 아이들은 없었다.

처음 도전하는 일이라서 아직 너무 어렵다. 거기까진 생각할 겨를이 없다.

볼리람이 실랑거리는 5월이다. 지금 당장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친구들과 길거리 데이트 데뷔 전 광범했던 일상이 정말 많이 그립다.

마지막으로 걸스데이에 충성을 맹세한 MAXIM 독자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걸스데이의 숨은 매력을 모두 보려면 평생 지켜봐야 할지도 몰라요. 매력적인 걸스데이를 언제나 아껴주세요! 사랑해요웃음"

저...정말인거 우리도 사...사랑한다. ☺



빈스에 티셔츠 핏피가래님
쇼츠와 벨트 에디터 소장
팔찌와 반지 도두 제이미만발



입은 활고 뛰는 뎀파스처럼 긴 세츠 가이아
구두 슈조함
곡선미가 돋보이는 폭신편 의자 벤스 코리아



우리

운명이란? 나의 마음
보라 사랑이란? 인생의 대성
결혼이란? 내 인생의 청결함

결혼이란? 관리
애초에이란? 결혼함
차이점이란? 신사처럼 품격 있게

민소매 티셔츠 옐포리오 아르마니 언더웨어
언더웨어 헬빈클라인 언더웨어
시계 닉슨
벨트와 반지 모두 제이이앤엘
쇼츠 에디터 소장
심플하면서도 편안한 디자인의 의지 밴스 코리아

지혜

은하반? 동반자
보카 최사반? 잊으면 좋은 존재
결승반? 인생의 새로운 시작

정반? 허약
홍반? 친구
스하반? 은혁



민소희 티셔츠와
레이스가 달린 가죽 스커트
모두 가이아
필피 제이미앤벨
신발 슈즈원

소진

올해엔? 몸 수제, 원수
보나 신사관?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
결혼은? 가랑사슴, 머리 아플 그도 분명
미미미미? 이 마음의 해방
상업 미미미미? 안수
미미미미? 같이 온 안수







소친 >>

홍미 무니 시스루
민소매 티셔츠
바닐라비
가족 쇼츠 가이아
팔찌 제이미엔벨
구두 슈즈원

자매 >>

민소매 티셔츠 가이아
연드웨어
젤리플라워 언더웨어
팔찌 제이미엔벨
가족 쇼츠와 세팅 모양의
부츠 모두 가이아

해리 >>

확이트 셔츠 탑걸
반지 제이미엔벨
가족 쇼츠 가이아
구두 슈즈원

유리 >>

반소매 셔츠 가이아
쇼츠 버커루
벨트 제이미엔벨
액세서리 모두 제이미엔벨
구두 가이아

민아 >>

민소매 티셔츠와 가족
쇼츠 모두 제이미엔벨
소파기 있는 부츠 가이아
목걸이와 반지 모두
제이미엔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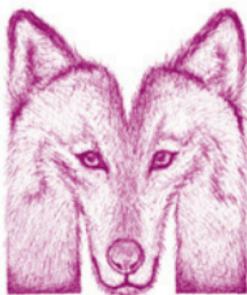
물어보면 나의 모든 것
보다 **신사관** 관심거리
결어보면 또 다른 세계

백서연 나의 플리츠도 형님
유원환 나의 플리츠도 누나
이성민 아이들의 일은 도맡아 하겠!

민아



동물들은 인간에게 없는 능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상어는 수백 미터 밖에서도 음식 냄새를 맡는다. 쇠구리는 자기 몸무로 활을 수 있다. 브라보! 그 경이로운 자연의 신비와 자신 사이에 진정한 몰아일체, 무위자연, 물심일여, 혼연일체를 이룬 인간



1 늑대 인간

본명: 예수스 '츄이' 파야르도 악체베스
36세, 멕시코

능력: 얼굴에서 털이 자란다. 한 울 한 울이 곧 파랗

도대체 어디까지? 츄이는 '다모늑(늑대 인간 신드롬)'이라는 더 멋진 이름도 있다! 을 가지고 태어났다. 말 그대로 털이 보통은 안 자라는 눈꺼풀이나 이마 등의 부위가 털로 뒤덮인 유전병이다. 복슬복슬한 외모 덕에 그는 서커스의 하이라이트를 몇 차례나 장식했다. 100억 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이 희귀 병은 종종 유전된다. 그래서 어릴 적 우이는 여동생더리 '웃생겼다'고 놀리곤 했다. 그의 가족 중엔 27명의 털복숭이가 있다. 그래서 다들 목욕할 때 온몸에 샴푸칠을 하느라 그 집엔 샴푸 마를 날이 없다고.

그가 남긴 말: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다는 점이 제일 좋죠. 여자들은 털 많은 남자를 좋아해요. 나한테 반한 여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2 배트맨

본명: 데이비드 키시
45세, 미국

능력: 돌고래와 박쥐처럼 반향(反響)으로 위치 측정

도대체 어디까지? 키시는 하이킹과 사이클을 즐긴다. 그게 뭐 대수냐고? 그는 생후 13개월 때 시력을 잃은 장애인이다. 그는 사리진 눈 대신 입으로 낸 소리가 반사돼 되돌아오는 걸 듣고 위치와 거리를 재는 능력을 키웠다. 갸만 한 동물 속 박쥐처럼 말이다(그래야 박쥐들이 배트 모티브에 몸을 따지르거나 치어 죽지 않겠지). 키시는 허로 딱딱 소리를 내서 소리가 주위 사물에 부딪혀 돌아오는 소리를 감지한다. 그는 이 기술을 세상에 전파하고 있다.

내 말 심청아~! 열레, 열레. 열레는 누구냐? 너 이 세계 당장 거거 안 속여?

그가 남긴 말: "이 기술을 전파하는 데 장애물도 없었고, 전문가들은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르더라고요."

3 지옥에서 온 막캐비

본명: 로셀 모티도
45세, 프랑스

능력: 쓰레기 먹기

도대체 어디까지? 강철 위장이라는 말은 흥분하지 않다! Mr. Eat Everything (위든 먹는 남자' 라는 별명이다. 그는 못 먹는 게 없다. <생애에 이런 일>에서 충분히 봤다고? 노, 노, 2009년 작고 하기 전까지 그는 몇 톤에 달하는 쇠를 먹어치웠다. 그의 배속으로 들어간 것 중엔 자전거, TV 등은 광범한 축에 속한다. 그는 건넌 동안 꾸준한 비행기 1대를 먹어치웠다! 그가 이 잡종사나들을 어떻게 소화하는지는 아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모든 슈퍼히어로가 그렇듯, 내 예게도 약점은 있다. 소핑 카트 한두 개를 먹어도 고역받는 이 남자는 바나나와 완속 달걀만 먹으면 배탈이 난다.

그가 남긴 말: "관도 먹어봤자 비어있어. 다행히 안에 시체는 없거든."

4 날다람쥐 인간

본명: 제프 코플리스
34세, 미국

능력: 글라이딩

도대체 어디까지? 그는 세계 둘 레벨의 왕-슈트 플라이다. 왕-슈트 플라인은 팔 아래에 날개가 달린 점프슈트를 입고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미친 짓을 일삼는다.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는 이 미친 짓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내려오다가 낙하산을 펼치지 않. 코플리스는 낙하산 없이 자꾸 땅으로 내리꽂는다. 미친 소리 같지? 놀라지 마라. 그는 파리 에펠탑(높이 300m) 사례들의 스페이스 니들(84m)에서 이미 이를 성공시켰다. 2008년 엠미어 스테이트 빌딩(48m)에서 점프를 시도해 체포됐다. 이 날다람쥐, 도도리 한번 요란하게 즐네!

그가 남긴 말: "처참가 부러진 뒤 깨달았다. 등이 부러지면 남의 도움 없이 화장을 못 갖는다는 걸, 실은 아름다운"



게의 1,000배나 되는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친구 멧렁이는 자기 불알을 허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5 레알 스파이더 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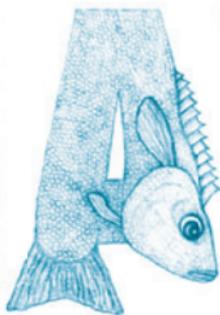
본명: 알렉 로베르

48세, 프랑스

능력: 뱀뿔로 벌집 오르기

도대체 어디까지?: 거미는 물에 난 미세한 털을 이용해 벽을 탄다. 하지만 로베르에게 그런 집들이 필요 없다. 그는 도구 없이 오직 두 손과 등반용 신발 한 켤레로 보기만 해도 아찔한 고층 빌딩을 오른다. 12세 때 처음 8층 건물을 오른 그는 이미 전 세계 최고층 빌딩 120개의 정수리를 모두 찍었다. 지난 3월 그는 세계 최고 빌딩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828m) 등반에 성공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그가 1982년 이집트 기벨 하다 두 번이나 수직으로 추락해서 의사 말로는 '몸의 60%는 병신 됐슈!' 상태였다는 사실이다. 스파이더맨, 너는 짜져있어!

그가 남긴 말: "한번은 양손을 두로 묶고 8m 높이의 건물을 오르려다 균형을 잃고 떨어졌어요. 두 달이나 입원했어요."



6 잉어, 아니 잉어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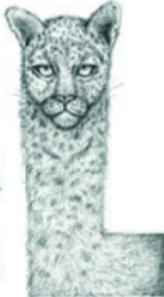
본명: 린든 월버트

30세, 미국

능력: 평탄느님 브로로도 물고 갈 수영 실력

도대체 어디까지?: 월버트의 폐를 가진 자, 사귀포를 평정하리라. 그녀는 호흡한 번으로 28m 아래까지 잠수할 수 있다. 그것도 잠수복이 아닌 바키니를 입고 거기에 칼리우드 특수분장팀이 그녀를 위해 제작한 450g 짜리 실리콘 인어 꼬리를 달고 최장 5분까지 숨을 멈출 수 있는 능력에 인어 꼬리를 더하면 76m/s의 속도로 헤엄치는 슈퍼 헤쳐 월버트가 완성된다. 실제로 그녀는 돌고래를 따라잡을 정도로 빠르게 헤엄친다. 이 드넓은 바다에서 금발의 바키니 인어보다 더 세련한 게 있을까? 없네. 솔직히 생선은 좀나 징그럽잖아!

그가 남긴 말: "상어들과 캐러비안 바다에서 헤엄을 쳤어요. 2m가 넘는 놈들이었는데 오히려 나를 보고 겁을 집어먹더군요!"



7 캠퍼인 얼룩이

본명: 롭 레퍼드

75세, 스코틀랜드

능력: 그냥... 얼룩이 있어. 얼룩이...

도대체 어디까지?: 레퍼드는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그리고 잘 알려진(?) 문신자다. 한때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문신을 많이 한 남자로 가세스에 올랐다가 런던이 여러본. 이 남자의 얼룩은 자연산이 아니예요. 군인 출신의 레퍼드는 스코틀랜드의 작은 섬에서 혼자 수십 년을 살았다. 일주일에 한 생필품을 사러 카약을 타고 마을에 내려오는 게 전부였다. 73세가 되던 해 그는 평범하게 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낚시망과 발가락 사이를 빼고 전신을 뒤덮은 표범 문신은 영원히 함께할 거다. 요즘 레퍼드는 무늬가 유쾌이리는데 거름 조심하쇼.

그가 남긴 말: "28년 복무하는 동안 단독 임무를 즐겼죠."
(군대 공기를 28초만 마셔도 사람이 미치는데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8 인간 뱀

본명: 다니엘 브라운 스미스

31세, 미국

능력: 자기 몸을 꼬아 매듭짓기

도대체 어디까지?: 미국이 자랑하는 고우 인간 스미스는 동아저씨, 아니 패리스 힐튼이 섹스 비디오에서 보여준 것보다 1억 배는 더 유연한 체류가 가능하다. 두 팔과 다리 관절을 빼고 몸통을 180°로 회전할 수 있는 그는 테니스 라켓을 통과하거나 작은 상자에도 몸을 구겨 넣거나 번기 달개를 통과할 수 있다. 유튜브에 올라온 5분짜리 그의 묘기 영상은 그의 진가를 담기엔 충분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우리에게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갈 정도의 충격과 공포를 주기엔 충분하다. 얼마, 나 어떡해. 그걸 본 뒤로는 번기에 앉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가 남긴 말: "아플 때부터 혼자 관절을 넣고 뺄 수 있었어요. 진짜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SUPER MATCH HERO TOP 10

히어로 전성시대!

MAXIMI 잘나가는 히어로 10명을 선정해 등수놀이를 해보았다.

BY 김상현 ILLUSTRATIONS 이윤기

캡틴 아메리카의 죽음

2007년 (사실 위에서 캡틴 아메리카는 사운 카터의 손에 죽은 줄만 알았다. 하지만 인기 히어로를 그냥 보낼 마블 코믹스가 아니었다. 그가 맞은 건 시간 여행을 하게 만드는 총이라는 게드립을 시전하면서 그를 부활시켰다. 하긴 이런저런 스토리를 다 합치면 그가 죽은 횟수만 9회에 달하니 이제는 놀림지도 않다.



어벤저스란?

헐크, 토르, 앤트맨, 와스프, 아이언맨이 주축이 돼서 만든 히어로의 연합체다. 앤트맨이 슈퍼 히어로들에게 팀을 꾸리라고 제안했고, 와스프가 어벤저스란 이름을 제안했다. 2002년 동명의 영화로도 개봉할 예정이다.

THOR 1ST

토르

북유럽 지역의 신 중 썬을 먹는 오딘의 아들이자 천둥의 신이다. 간방이 지나치자 오딘이 닥치고 겸손함을 중 배우라는 의미로 인간으로 강등한 후 지구로 보냈다. 인간 코스프레를 할 때는 블레이크라는 이름으로 블랙잭을 관광 보낼 만큼 뛰어난 의사로 활동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썬니르를 회수한 후 예전의 실력(?)을 되찾아 지구에서도 초특급 히어로로 활동하고 있다. 토르의 능력은 시생하는 이복형제 로키랑 늘 지고 부고 싸운다. 아벤져스 창단 멤버 중 한 명이다.

6	7	6	4	2	6	7	6
---	---	---	---	---	---	---	---

최강 망치 몰니르

토르 힘의 원천인 망치다. 로키의 농간으로 자루가 떨어져 모양은 다소 구리다. 마음씨가 고운 건전 아메리카 원더우먼 같은 히어로는 몰니르를 사용해 토르처럼 만치킨이 될 수도 있다. 부메랑처럼 던져도 다시 돌아오고, 미련도 흡수하고 이걸로 하느님 날 수도 있다. 만치킨로 당신도 이 몰니르 하나면 마블 코믹스를 주름잡는 히어로가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 되시겠다.

토르의 이복형제 로키

북유럽에서 악행으로 이름 높은 신이자 열을 기인 왕의 아들이다. 오딘이 양아들로 입양해 토르와는 배다른 형제가 됐다. 토르를 엿먹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로키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도 변신이 가능하며, 스파이더맨을 괴롭히는 걸로 유명한 노면 오스본이 만든 악당들 패거리인 카뎀에 가깝다.

CAPTAIN AMERICA 10TH

캡틴 아메리카

미국의 성조기 코스프레 히어로대응? 국민 악플 스티브 로저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참여를 거부당한 후 강해지기 위해 슈퍼솔져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덕분에 가장 완벽한 인간 신체를 획득했고 캡틴 아메리카라는 이름의 히어로로 거듭났다. 실수로 얼음에 차버렸지만 빙하 속 맘모스처럼 멸종한 상태로 아벤져스의 손에 구출된 후 다시금 영웅 놀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빌대는 비브라늄이란 금속으로 만들어져 파괴가 불가능하다.

1	3	3	6	5	3	2	6
---	---	---	---	---	---	---	---

BATMAN 9TH

배트맨

DC 코믹스의 초 갑부 히어로다. 현실로 맞닿을 수 있는 건 마블 코믹스의 아이언맨이 유일하다. '다크 나이트'라는 별명답게 우울함과 사나움을 온몸에 차버린 안티 히어로의 대표주자다. 아이언맨과 자주 비교되지만 류 무술 실력과 천재적인 머리가 뒷받침된 엄청난 데 더 가깝다. 다른 히어로나 악당의 정보 및 약점을 기록해두기 때문에 마음먹고 이들을 죽일 생각이려면 배트맨이 아니라 배트스quad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속적 리스 알 굴이 배트맨의 데이터들 손에 넣은 후 다른 히어로를 시련하게 관공시한 진체가 있다.

1 3 3 6 5 4 7 7

SPIDER MAN 8TH

스파이더맨

거미에 물린 후 초능력을 얻어 스파이더맨이 된 피터 파커라는 친서인 히어로의 인생 역정은 잘 알고 있겠지? 힘을 얻었다고 설치면 소중한 사람의 인생을 퇴각시킬 수 있다는 걸 몰스 보여준 삼신성인 히어로다. 위험을 감지하는 스파이더 센서가 초인적인 힘과 속도, 반사 신경을 갖췄다. 손목의 웹슈터로 정액처럼 시련하게(?) 거미줄 발사도 가능하다.

1 4 3 4 4 3 1 4

베놈

스파이더맨의 영원한 숙적. 에디 브록이 베놈이 되게끔 만들어준 심비록이 맥 기간으로 놓이 구매했다. 차세대 베놈이 된 이 나서는 원조 베놈보다 강력한 파워를 자랑한다. 히어로간의 피투어는 싸움 시발워 도 중 샌드볼로써 전격 함유했다.

초인등록법안

미국에서 활동하는 히어로라면 정부에 등록하면 해마다, 히어로가 정부의 법을 따르지 않는 초법적인 존재인 건 사실이다. 문제는 이 등록과정에서 히어로가 자신의 진짜 신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거다. 그것 때문에 초인등록법안을 반대하는 캠페인 아메리카 전쟁과 찬성하는 아이언맨 전쟁이 신나게 패싸움을 벌였다. 그게 바로 전투 유망한 히어로 전쟁 시발점. 더 한마디로 히어로의 공무원화를 추구한 법안이라 볼 수 있겠다. 당연히 서민 히어로 스파이더맨은 여기에 적극 찬성해 자신의 신분을 냈다 공개했다지.

당신 없이는 못 살아야

조커와 배트맨은 거울 같은 존재다. 서로가 알아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만약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를 건너지 못해 전지환축하는 혼데레의 모습을 자주 연출한다. 우리 사랑 이베로 영화해결중?

스파이더우먼

테라리스트 조직 하이드라의 일원이었지만 애초부터이 글의 역요동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진격 발표했다. 시범탐정으로 활동하는 검사 겸시 엑스맨과 함께 힘을 합치고 자전소레 이벤트스에 합류했다. 스파이더우먼과 달리 생체 전기를 배틀 블리스트로 전로 발사해 적을 마비시키거나 죽일 수 있다. 최근에는 하늘을 뚫을 날아다니는 능력도 얻었다.

악당이 힘을 합친 샌더블츠맨?

스파이더맨을 괴롭힌? 그린 고블린 노먼 오스본이 악당으로 꾸민 슈퍼 히어로 관리기관이다. 테어메를의 숙적이자 살인광인 볼스아이, 배틀 등이 속해 있다. 독으로 독을 제거 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탐인데 워너 둘이기가 많아서 오스본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진 않았다. 그래도 태생이 악당이어서 이런저런 눈치 안 보고 시범사원하게 일을 해주려는 모습을 보는 재미는 쓸쓸하다.



아이언맨

미국 MAXIM 표지모델과 메일메일 떡을 치며 살 것 같은 세계 최고의 공룡이 갑부다. 기계 덕후라서 그런지 기계를 민지는데 도가 있지만 사람들의 유대 관계를 쌓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져서 사랑하는 여자를 많이 놓치는? 인터캐온 캐릭터이기도 하다. 현실로 정당한 다양한 아이언맨 슈트를 골라 입으며 영웅 놀이를 즐긴다. 최근에는 전 세계의 컴퓨터에 비로 연결하는 능력을 갖추면서 한층 파워업된 모습을 선보였다. 어벤저스의 창단 멤버로서 한때 미국 국방장관 자리를 지내기도 했다.

6	6	6	3	6	5	7	6
---	---	---	---	---	---	---	---



플래닛 그리고 월드 워 헬크

(플래닛 헬크는 지구의 슈퍼 히어로들이 헬크를 두려워해 외계 행성으로 강퇴시킨 후 벌어지는 이야기다. 사바아르라는 행성에 행성계 헬크는 그런 스키라는 검투사로 삼아간다. 그곳에서 그는 멋진 동료들 만나 복고 레드 킹을 재인 후 왕 자리에 오른다. 결혼에도 골인하고 한창 신혼재미를 맞보려는 삼나 헬크가 지구에 돌아오는 게 싫었던 히어로의 공격으로 아내와 뱃속의 아이가 죽게 된다. 꼭지가 든 헬크가 지구 히어로 사냥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월드 워 헬크다.)



다켄

올버린과 일론인 부인 이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츠는 임신 중에 KGB 암살자 원더 솔저에게 죽지만 다켄은 살아남았다. 노먼 오스본과 함께 행동하다 최근 결별을 선언했다. 올버린의 아들답게 초인적인 오감, 노화 지연 능력, 세 개의 날카로운 손톱을 가졌다. 페르몬을 바꿔 체취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올버린도 추적이 불가능하다.

HULK

6TH

할크

다른 히어로 입장에서 할크는 "할퀴"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강력한 존재다. 비리비리한 부루스 배너 박사가 감마 폭탄 실험에서 대량의 방사선에 노출되어 탄생한 녹색 괴물이 바로 할크다. 화가 날수록 강해지며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를 싸울 줄 한다는 울버린을 찾아버릴 정도다. 재생력도 뛰어나 상처도 금세 회복된다. 어벤저스 창단 멤버였지만 의견 차이로 팀을 떠난다. 동료들조차 두려워하는 히어로 중 한명이다.

1 7 7 4 6 3 3 0

WOLVERINE

5TH

울버린

히어로 중에서 성격 더러운 걸로는 세 손가락 안에 든다. 빠른 치유 능력과 날카로운 손톱을 가졌다. 엑스맨과 어벤저스 사이에서 활동 중이며 웨폰 X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다만티움으로 만들어진 뼈는 부러지지 않 더위 없다. 몸이 잘반으로 떨어져도 핵폭탄이 떨어져도 살아남는 강력한 재생력이 단연 톱보인다.

2 4 4 7 2 2 3 3

SUPERMAN 4TH



슈퍼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히어로! 바지 위에 팬티를 입는 시대를 앞선 나 패션이 인상적이다. 물리적 능력은 무척에 가깝고,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능력이 강해져는 독특한 체질이다. 크립톤나이트라는 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속직 렉터 박사가 이걸 가지고 슈퍼맨을 괴롭히다가 본인의 몸이 상하는 옷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마법에 쟁쟁이라 아족 방편의 고수에게는 가끔 쥐어터지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슈퍼맨이 지구에서 무적?인 이유가 원래 살던 고향과 지구의 중력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이라는 설정도 있었다.

1 7 7 5 3 5 3 5



그린랜턴 (할 조단)

최초의 지구인 그린 랜턴이자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그린 랜턴이라 불린 녀석이다. 전임 그린 랜턴 아빈 수로가 지구에서 사고로 죽자 반지가 할 조단을 직접 후계자로 지명했다. 비행사 출신이어서 겁대리가 없고 실 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포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용감한 새끼만 받아주는 그린 랜턴이라는 작명이 안생각출인 녀석이다. 하지만 그렇게 까탈없는 공포의 화신 패럴렉스에게 감금되어 그린 랜턴의 본가지 오아 행성을 날려버리고,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처럼 동료를 몰살시키는 대형 사고를 쳤다. 이후 시체를 수습하긴 했지만 덕분에 '우주 최고의 영웅이자 우주 최고의 사고뭉치'라는 별명을 피하기 힘들었다. 여자를 제일 많이 따먹은 히어로로 유명하다.

7 3 5 6 4 3 5 6

GREEN LANTERN

3RD





GHOST RIDER 2ND

마블 코믹스의 짜질이들

하나같이 생긴 게 빛맛이란 게 공통점이다.

1. 드래곤 맨

그레그슨 김박트 교수가 만들고 연금술사 다이블로가 생명을 넣어 탄생한 녀석이다. 어리버리해 적에게 쉽게 이용당한다. 다이블로가 어벤저스와 판타스틱을 공격하려고 조르는 바람에 귀찮아서? 다이블로를 배신했다. 갈대 같은 마음을 지닌 녀석이라 누구 편에 붙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2. 돌 맨

푸피트 열대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한 미국의 핵과학자였다. 몬스터 섬을 탐사하다가 이상한 생물들이 사는 지하 세계를 발견하고, 그곳의 지도자가 되어 스스로를 돌맨이라 불렀다. 그는 자신을 왕따시킨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상 세계를 침략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왕국을 지키는 데 주력한다.

3. 스페이스 팬텀

(인생선)으로 유명한 영혼의 감옥 형벌에서 온 존재다.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복제 가능하고, 시로 구분이 안 된다. 스페이스 팬텀은 모든 살아 있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지만 토르 같은 신은 복제가 불가능하다. 그들의 외모를 복제하고, 그들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동안 복제 대상은 말로로 보내 버린다.

4. 룩조

동물 슈퍼 히어로 팀인 팻 어벤저스의 지도자다. 순간이동능력을 사용하여 인류민스의 왕국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준다. 공군이동을 할 때 그의 몸에 접촉하고 있는 사람을 2명까지 데려갈 수 있다.

고스트 라이더

1970년대 처음 등장해서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뜨거운 남자(가)라서 해골 얼굴은 불꽃이 타오르고, 오토바이도 불꽃이 없으면 타지 않는다. 모든 히어로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존재 중 하나라서 지구 정복이 가능한 힘으로도 가볍게 조려 붙여 주신다. 전 매혹적 기술인 '참회의 시선'을 시전하면 정신이 붕괴되기 때문에 우주 최강 쟁패 갤럭시 투스조차 퇴각시키는 위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 기술은 무고한 자의 복수를 위해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 밖으로 써올리는 히어로의 다들에서 볼 일은 없다.

7 6 7 7 3 5 5 7

슈퍼히어로의 옷장

나? 사실은...

BY 고영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ASSISTANT 조유림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재벌
히어로의 럭셔리 패션



베트맨으로 변신한 헤어브러시 35,000원 디에



(좌) 50m까지 방수가 되는 가죽 시계
1,200,000원 예로스
(우) 차가운 메달 느낌의 플라스틱 소재
이이온4 케이스 50,000원 인케이스

BATMAN

절제된 디자인이 멋스러운 실버
반지 130,000원 스와로브스키

I'm a bad girl

DATING WITH...



디크 나이트 2
백기 웨딩백



겉면에 자연스러운 구김이 특징인
노트북 케이스 가격 미정 인케이스



방패 모양의 깔끔한 커프스링크
110,000원 스와로브스키



샤넬 풀무늬백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멋을
연출한 구두 200,000원대 소다폼즈



블랙 크로싱 슈즈 재킷 438,000원,
백스트 218,000원,
화이트 셔츠 98,000원 모두 자이크



감성적 스랭글 보 타이 가격 미정 제이미엔젤



이치정 비글로 세련미를 강조한
벨트 115,000원 시스텀웬즈



베트맨?
미셀 피아피



깔끔한 디자인에 수납공간이 숨어 있는 백팩 348,000원 만다라니액



지퍼가 있어 동전도 빠지지 않는 반지갑 125,000원 프레드메리



장식을 최소화한, 바지풍이 좋은 키고팬츠 99,800원 코데즈컴바인 베이직



빨간색과 파란색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운동화 149,000원 장라키



셀카 사진을 팔아먹고 사는 짜질이의 서민 패션

SPIDER-MAN



체크무늬 카디건 95,000원 겹 빨간색 반소매 티셔츠 39,800원 코데즈컴바인



선동치술과 차약 세트 40,000원 디어



107일까지 방수가 되어, 인디클로 "나이트 라이트" 기능까지 다한 손목시계 198,000원 "나이트 라이트" 약정에 발광물질을 사용해 야광 전체 면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



친 소재라 가볍고 활동적인 벨트 98,000원 프레드메리

내년에 보자.



DATING WITH...

2012년 7월 개봉 예정 엠마스톤



스파이더맨 1, 2, 3 커스틴 던스트

에스스, 자이크, 소디웬즈, 시스웬웬즈, 오로비앙크, 타이힐피카, 만다라니액, 힐피카데님, 지스타로우, 비그스진, 꿀맛에, 로에베, 바이노노, 타이팩스, 시트즈, 힐라(02-546-7754) 인케이스, 프레드메리, 겹, 램블클라, 인진(02-3447-7725) 왓츠온, 코데즈컴바인 베이직, 코데즈컴바인 포맨, 크오코(02-3447-7700) 고메(02-517-4628) 스타트, 스토어일렉트, 장라키(02-3446-9948)



가볍고 실용적인 토트 겸 숄더백
568,000원 오로비앙코



금대를 부분적으로 장식해 지적인 느낌의 안경
400,000원대 콜로에 by 다리안타네사날



허리 다추조차 자취를 감추는 간결한 디자인의
면바지 198,000원 프레드페리



오래 신을수록 멋이 나는 구두
가격 미정 벨 마리오 by 소다



점잖은 기자인 척하다
바지 위에 팬티를 입으려면
활동적인 슈트도 안성맞춤

슈퍼맨 오망의 펜던트
목걸이 가격 미정
제이미앤벨



체크무늬 두 버튼 재킷 388,000원 자이코



(좌) 사선 스트라이프 타이
가격 미정 제이미앤벨
(우) 빛으로 충전하므로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
없고, 진짜 수신을 탑재해 전 세계 어
디에서도 자동으로 시간과 날짜를 볼 수 있
는 시계 2,448,000원 시타존

내 펜던트
목걸이



체크무늬 베스트 198,000원 자이코
데님 셔츠 148,000원 타이힐피거



검정색 플레드 안경 400,000원대
로에베 by 다리안타네사날

DATING WITH...



슈퍼맨 리턴즈
케이트 보스워스



(좌) 가죽을 쓴 모양의 목걸이
215,000원 스와로브스키
(우상) 지가립 방수는 물론 조수, 방위
온도까지 측정 가능한 시계
368,000원 타이텍스
(우하) 심플하면서도 강렬한 디자인의
목매 205,000원 스와로브스키

WOLVERINE

남자다움과 짐승다움은
한 끝 차이!!
패션도 마찬가지



켄버스 천 소재지만 가방 아랫부분의 각이
잡힌 슬더백 659,000원 스톤아일랜드



검정색 사각 프레임으로 무게감을 더한
선글라스 200,000원 쉐라 by 다리인태세샵



영양이 부족한 경향에 싱 장식이 포인트인
블랙진 가격 미장 비고스진



바이크 재킷 219,800원 코데조잡바인 베이직
물감이 된 듯한 프린팅이 멋스러운 티셔츠
59,000원 코데조잡바인 포맨

엑스로드도
잘 고요요

LOVING YOU...



엑스맨, 엑스맨 올버린2, 엑스맨 최후의 전쟁
함께 안전



검정색 러그를 운동화 200,000원대
크레이티브 레크레이션



화이트 인스매 티셔츠 34,000원 코오롱



발목 부분의 지퍼를 바지
등 조절이 가능한 장바지
285,000원 시스템유모



군번을 모양의 목걸이 각 205,000원,
215,000원 스와로브스키



할크 피규어 가격 미정 디에

거대 녹색 괴물을 변신하기 위해 찾기 쉬운 셔츠와 고탄력 스판바치는 필수품!

HULK



남색 셔츠 259,000원 지스타로우



생지데님 바지 198,000원 셀빈클라인진



가만 온도, 고도 방위를 알려주는 시계로, 57킬 방수는 물론 인디글로 나이트 라이트 기능도 탑재했다. 398,000원 타이맥스

데님 재킷 299,000원 지스타로우
체크 셔츠 125,000원 할피가데남



캔버스 천 소재의 토트 겸 숄더백
가격 미정 비아모노



허먼세과 겸정색 조합이 깔끔한
신발 148,000원 지마크



가죽 벨트 75,000원 할피가데남

내 옷도
벗어졌어...



DATING WITH...

트렌디한
미용사
인도어리



아이들의 하느님이 되려면
귀요미 가득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이 생명!

PORORO



짧은 챙에 귀 덮개도 달려 귀여운 노란색의
바이크 헬멧 240,000원 알구정 모토리노



(상) 동그란 형태의 밤색 안경테 129,000원
(하) 바우셔 안경테 119,000원 모두 알포

연둣빛이 도는 노란색 운동화
188,000원 고혜 by 폴킴



나도
여지랍니다~

SOUL PARTNER.



빛에 선풍하게 반사되는 재질의 피란세 첨퍼
1,695,000원 스톤아일랜드



선명한 노란색 벨트 109,000원
스톤아일랜드



노란색 장미 잎상스러운 디자인의 캡
45,000원 헬스링크 by 핫초온



파트너

현재 미국 내에서 인기 몰이 중인
변호사 드라마
《해리스 로(Harry's Law)》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발
미녀가 등장한다.
12세의 아역 배우로 시작해서
이제 어린 티와 더불어
겉옷까지 시원하게 벗어던진
그녀의 이름은
브리타니 스노우다.

LET
IT
SNOW

LET
IT
SNOW

BY DAVID
SWANSON
PHOTOGRAPHS BY
CHRIS
FORTUNA



LET
IT
SNOW



덜이 아니고, 팬티 레이스
장식이라니까.



발랄한 고등학생 연기를 할 때가 엇그제 같은데, 지금은 다 커서 성인을 연기하고 있다. 어른이 된 기분 이 어떤가?

드디어 사람들이 내 나이가 25세고 더 이상 10대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니 무척 기쁘다. 여전히 나를 18세 소녀로 오해하고 출입을 막는 술집이 많지만 말이다!

〈천재 소년 두기〉와 더불어 인기 드라마 〈열리 맥벌〉, 〈보스턴 리걸〉로 유명한 작가 겸 제작자 데이비드 E. 켈리가 새 작품 〈해리스 로〉에 '미저리' 아줌마를 주연으로 출연시킨다는 소식은 별 감흥이 없었다. 하지만 당신이 캐스팅된 덕에 우리는 그 드라마의 팬

이 되었다.

남자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라고 생각할 게 분명하다. 비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무실에서 구두를 만들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저 그런 단순한 여자는 아니다. 걸 으론 머리가 텅 빈 생각 없는 속물로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밤에 대해 무척 박학다식하다.

그녀와 당신 사이에 실제로 닮은 점이 있나?

없다.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 연기할 땐 실제의 나 보다 훨씬 더 영랑하고 쾌활해 보이게 노력한다. 난 진짜 인기 없는 아이였다. 수줍음도 많이 타고 약간 괴짜에 속했으니까.

당신이 학교에서 가장 잘 다니는 여학생은 아니었다는 말인가?

학창 시절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학교에 적응을 잘 못했으니까.

지금은 소피야 부시 같은 여배우들과 친구로 자하고 있는데, 할리우드에서 만난 새 친구들과 평범한 여고 생활처럼 짧잠대며 지내기도 하나?

소피야와 〈존 터커 마스트 다이〉를 찍을 때 무척 즐거웠다. 처음으로 여자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잔에 모여 밤샘 파티도 하고 베키 싸움도 했다. 당신이 상상하는 그 모든 다른 것도 하고



말이다.

오오 당신은 파티걸인가?

그런 편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법적으로 음주기구가 하락되기 전의 이야기다. 알다시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법이다.

지금 싱글인가?

완벽한 싱글이다.

뮤지컬 영화 <헤어 스프레이>에도 출연했다. 노래를 꽤 잘하던데?

음악은 내 인생에서 무척 중요한 존재다. 노래도 좀 부르는 편이지? 팝스타가 되고 싶은 건 아니다. 내 얼굴에서 색사한 가수의 표정을 골아낼 방법을 모르겠다. 나에겐 너무 과분한 일이다.

하지만 MAXIM 화보 속에선 무척 색사해 보인다.

이런 색사 콘셉트의 촬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전혀 새로운 일이고 나에겐 큰 도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MAXIM 화보 촬영이라니 진짜 멋진 것 같대. 촬영도 편안하게 잘됐고 재미있었다.

스스로를 색사 심볼이라고 여기진 않나?

오. 절대. 그건 진짜 아니라고 본다!

MAXIM 화보를 보고 생각을 바꾸는 건 어떨까?

잡지에 제시카 알바 같은 사람들이 나오서 “나는 내가 색사 심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색사하다고 생각하면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걸 볼 때마다 나도 “세상에, 지금 농담하는 거지?”라고 하긴 한다. 내가 방금 한 말이 전형적인 예배우들이 인터뷰에서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건 실지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건대, 나는 내가 색사 심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는 건 좋대.





“ 한집에 모여 밤샘 파티도 하고 베개 싸움도 했다.
당신이 상상하는 그 모든 다른 것도 하고 말이다. ”



그녀 더 알고
싶다면



폭탄도 이제 '스마트' 시대

어리버리 까던 범용 폭탄 X개라 그래 스마트 폭탄이 왔다! WORDS BY 리재

자잡대 다니던 바보가 한 큐에 카이스트급 영재로 업그레이드되는 일 따위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폭탄의 세계에서는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폭탄은 당신이 여자친구에게 휘둘리듯 중력과 바람의 영향을 받아 낙하 지점이 정해졌다. 그러다 보니 정확도가 떨어져 목표물을 공략하려면 물량 공세가 답이었다. 그러나 명칭한 폭탄이라도 적절한 유도 키트를 장착하면 낮밤은 물론이고 악천후에도 정확히 목표를 타격하는 스마트한 폭탄으로 거듭난다. “우왕ㅋ 굿 ㅋ.”



전장을 바꿔놓은 스마트 폭탄 싸움

스마트 폭탄은 1991년 걸프전에서 실시간 TV 방송으로 위력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특히 걸프전은 대규모 목표물 동시에 타격하는 새로운 작전 개념을 도입해 목표물 150여 개를 불과 24시간 만에 무차별 공격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1942~1943년에 걸쳐 B-17과 B-24 같은 대형 폭격기로 유령을 공습했던 것보다 많은 목표물을 단 하루 만에 해치웠다. 더 놀라운 건 이때 사용한 스마트 폭탄이 전체 폭탄의 8%에 불과했던 사실이다. 2003년 이라크전 때는 스마트 폭탄의 비중이 68%로 대폭 늘어났다. 그 결과 이라크전은 '충격과 공

포'라는 말을 남긴 채 덩어리에 실겁게 마무리됐다. 최근의 라비아 공습도 마찬가지다. 다국적군의 스마트 폭탄은 기세등등하던 카다피군을 불과 며칠 만에 오합지졸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개발 완료다!



레이저 유도폭탄의 '정석 시리즈' 페이브웨이

레이저 유도폭탄은 범용 폭탄에 레이저 유도 키트를 장착한 녀석이다. 전투기나 지상군이 목표물에 레이저 빔을 비추면 전투기 조종사가 목표 근처 상공에서 레이저 유도폭탄을 투하하고, 폭탄은 목표물에 반사된 레이저 빔을 감지해 날아가 명중한다. 여기에 사용하는 유도 키트 중 '수학의 정석'만큼이나 유명한 브랜드가 미국의 '페이브웨이 시리즈'다. 페이브웨이 I는 1980년대에 처음으로 상용화됐고, 페이브웨이 III는 전개식 핀을 장착해 사정거리가 늘어났다. 1986년부터 배치된 페이브웨이 III는 레이저 유도 전개식 다차셀 자동조종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2단계 유도 방식을 적용했고, 대형 핀을 사용해 낮은 고도에서 투하해도 먼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게끔 개량되었다.



요즘은 복합형이 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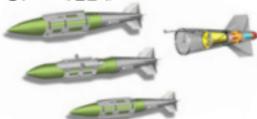


최근 스마트 폭탄은 유도 방식 통합형이 대세다. 레이저 유도폭탄 페이브웨이 시리즈에는 GPS 유도 기능을, GPS 유도폭탄 제이담에는 레이저 유도 방식을 추가하는 식이다. 이렇게 두 가지 유도 방식을 병행하면 각자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 그렇게 탄생한 녀석이 바로 레이저 제이담(Laser JDAM)과 페이브웨이 IV다.



GPS 유도폭탄 제이담의 위엄!

알기도 어려운 '합동직격탄(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의 약자인 제이담은 1986년부터 미국 보잉사가 생산했다. 폭탄 후미에 페이브웨이와 같은 유도 키트가 있어 폭탄을 정밀 유도한다. GPS와 INS관성항법장치가 내장됐고, 날개 부분에 비행조종용 플랩이 달려 있다. 제이담은 GPS 위성의 정보를 받아 목표물까지 정확하게 날아가는데, 적의 전파 방해가 있다면 INS관성항법장치를 활용한다. 대신 GPS 유도일 경우, 13m이 오차가 30m로 커지는 단점이 있다. 기후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한 번에 다수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사정 거리는 고도 14,000m에서 투하할 경우 28km에 달한다.



하지만 레이저 유도폭탄도

완전체는 아니라!

목표 지점의 2~3m 이내에 명중할 만큼 정확도를 자랑하는 레이저 유도폭탄도 약점은 있다. 레이저로 목표 지점을 비추어야하므로 일단 '눈에 보아야' 한다. 그래서 약한 후 상공에서 고차기 되는 경우 구름 종종 생긴다. 1999년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연방의 코소보 지역 공습 작전은 신악 지형이라서 상공에 심하게 안개가 끼거나 낮기 구름이 짙었다. 이때문에 레이저 유도폭탄이 반사된 레이저 빔을 찾지 못해서 폭탄 투하가 불가능하거나 엉뚱한 곳에 떨어지는 오욕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은 걸프전 이후 레이저 유도폭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GPS 유도폭탄 제이담이다.





토종 스마트 폭탄도 있다!

우리나라 공군 역시 페이브웨이 시리즈와 제이탑 유도폭탄을 사용 중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GB를 개발 중이다. GPS 유도방식을 사용하는 제이탑과 달리 KGGGB는 활공형 유도키트로 글라이더가 달려 있어 사정거리가 더 길다. 투하 후 유도도트에 입력된 표적으로 날아가는 건 물론 경우에 따라 목표물의 변경도 가능하다. 이와 비슷한 스타일로는, 지난 1989년부터 개발해 운용 중인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롱스카트기가 있다. KGGGB는 한창 개발 중이며 2013~2014년에 실전체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스마트폭탄 아니라 스마트 폭탄도 자체 개발하는 스마트한 나라에 살고 있다. 후임후임

Military Issue



오폭의 사전적 의미는 폭탄을 정해진 대상이나 위치가 아닌 곳에 폭격하는 것을 말한다. 명종릉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마트 폭탄과 미사일들이 대안인 요즘이지만, 오폭은 여전히 존재한다. 스마트 폭탄을 최초로 광범위하게 사용한 결투전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적군에 의한 이군 피해보다 이군의 오폭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았다. 다만 기술의 발전으로 오폭의 비율은 점차 줄고 있다. 특히 공중과 지상의 목표 지시 장비의 해상도가 높아졌으며, 적과 이군을 구분하는 피아 식별 장치도 발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로버(ROVER: Remotely Operated Video Enhanced Receiver)라는 장비도 개발했다. 로버는 지상에서 공군의 폭격을 유도하는 전술항공통제사(FAC)가 사용하는 장비로, 공중의 항공기나 무인기가 지상의 목표물을 촬영한 영상을 지상에서 실시간으로 보는 장비다. 이 장비의 사용으로 조종사가 보는 지상의 목표물이 실제 목표물과 다르거나 적군이 아닌 민간인이 목표물에 있을 경우, 지상의 전술항공통제사가 폭격을 취소할 수 있다. 그만큼 오폭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 폭탄의 대표 주자

스마트란 이름은 폭이 아니다.



> 범커 버스터 GBU-28

이름 그대로 범커 파괴자 결투전에 데뷔한 이 녀석은 BGM-102 초고관용 폭탄과 페이브웨이 III 레이저 유도키트를 합쳤다. 초고관용 폭탄 BGM-102은 이미 육군에서 은퇴한 8인치 표식을 개조해 만들었다. 일반 폭탄에 비해 관통력을 대폭 강화해 지하에 숨은 표적물을 파괴하는 데 효과적이다. 폭탄에 장착된 2의 탄두는 지하 30.5m(콘크리트는 6m)까지 뚫고 들어간 후에 폭발하도록 설계했다. 방커에 숨어봤자 헛일이다.



> 작지만 강한 SDB

SDB는 소직경폭탄(Small Diameter Bomb)의 약자다. SDB는 크기를 줄여 5세대 스텔스 전투기처럼 제한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수의 폭탄을 유가성을 목적으로 개발했다. 무게는 250파운드(136kg)에 불과하지만 500파운드(227kg) 폭탄보다 관통력이 뛰어나다. GPS 유도 오차가 5~8m에 불과해서 쓸데없는 인명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레이저 유도장치를 결합한 SDB II도 개발 중이다. SDB II는 이중 인종 목표물도 공격이 가능하다.

<p>6 개월 정기 구독</p> <p>정가 32,400원</p> <p>할인가 29,400원</p> <p>3천원 할인 + 1000씩 적립</p>	<p>12 개월 정기 구독</p> <p>정가 64,800원</p> <p>할인가 57,800원</p> <p>7천원 할인 + 2000씩 적립</p>	<p>24 개월 정기 구독</p> <p>정가 129,600원</p> <p>할인가 114,600원</p> <p>15천원 할인 + 4000씩 적립</p>	<p>36 개월 정기 구독</p> <p>정가 194,400원</p> <p>할인가 164,400원</p> <p>3만원 할인 + 6000씩 적립</p>	<p>48 개월 정기 구독</p> <p>정가 259,200원</p> <p>할인가 209,200원</p> <p>5만원 할인 + 8000씩 적립</p>
--	---	--	---	---

➔ MAXIM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 1 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 2 무통장 입금(예금주,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69-910012-03904 국민은행 166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 약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택=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XIM의 정기 구독 사은품!



사은품은 조기 품절되는 경우가 많으나, 끊임없이 새 선물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시점의 사은품을 확인하시려면 위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scape Presents THE HOTTEST PARTY in Seoul

THE MAXIM

MODEL 2010 MISS MAXIM 정유진 PHOTOGRAPH ARC STUDIO
HAIR 고영 MAKE-UP 조희나 (메이크업 02-548-7787)

PARTY

2011 May 21st



Music by AstroVoize

plus

Dguru / Gon / Drill / Hyde
Insidcore and VJ The Maze

SEXY Pole Dance PERFORMANCE

Free Giveaway

 by **ALO**
EYEWEAR SPACE



@Club
ANSWER
gates open at 10:00pm



cover 30,000won
reservationsVIP 01089788017

Exclusive!
Maxim
Gift Bag
Package

**No Minors
Allowed**

MAXIM PARTY

Glamorous Party
Sat. April 9th

GLAMOROUS

BY 김희정 PHOTOGRAPHS BY 김영호 COOPERATIONS CLUB GENE, 필살닷컴(www.40401.com)

PARTY

가. 가슴이 벅쳐오르는 밤이었다!

손 만 대도 터질 것 같은 그녀들이 대거 몰려든 그곳, 4월 9일 이태원 클럽 지나 (GENE)는 출렁이는 실들의 황연으로 어느 때보다 더 뜨거웠다. '글래머러스 파티'라니, 한 글래머 한다는 예쁜이들이 모두 모인다는데 MAXIM 이 빠질 수 없지 않나. 그래서 갔다! 글래머러스 파티의 색가장 밝은 포스터에 이끌려온 클러버들 때문인지 이날 이태원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적당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녀들이 있어서 세상은 아직 실 만한가 보다~ 진짜 실만 나는 이야기 하나 더. 글래머러스 파티는 이제부터 매달 클럽 지나에서 만날 수 있다.

"이태원 프리덤~ 저 찬란한 불빛 오오오~"





ESCAPE AIR PARTY

BY 김홍성 PHOTOGRAPHS BY HOSPITAL PHOTOGRAPH COOPERATIONS CLUB ANSWER, ESCAPE KOREA

이렇게 섹시한 천사 왔나?

+ 지난 화이트데이 파티 때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던 천사들이 4월 2일에 다시 자리에 내려온다는 소식에 MAXM 직원들은 침을 줄줄 흘리며 클럽 멤버로 향했다. 아나나 다들께 이미 클럽 안에는 천사의 손길을 갈구하는 영혼으로 가득했다. 아직 그 천사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HOT ESCAPE DOLLS

벨런티인디에는 물론 화이트데이에도 클럽 엔씨에
등장해 외로운 솔로들을 위로해준 4명의 천사. 그들은
바로 파티 레이블 이스케이프의 마스크이자 섹시
아이콘인 'ESCAPE DOLLS'다. 이날도 순백의 천사로
변신해 어김없이 수컷들을 골추서게 만든 4명의 예쁜이는
"이건 빙산의 일각이며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콘셉트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살짝 귀띔해주었다.
아아, 누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



미리 본 올 가을/겨울 유행 패션

BY 김혜성 IMAGES SEOUL FASHION WEEK

"나는 왜 이렇게 패션감각이 떨어질까" 하며 겨울 앞에서 백날 고민해 보아 답 안 나온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2011 F/W 서울패션위크에서는 어떤 옷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보고 왔다.



BY WYNG CLOSET

코듀로이 소재의 부활
"코넛도 그만큼은 훈훈하게"

어릴 때 한 번씩은 다 입어봤을 코듀로이가 부활했다. 유행에 덜 떨어진 느낌으로 취급받을까 봐 옷장 어딘가에 처박아두었던 올 겨울이 기회다. 디자인-님들도 지난 겨울이 유난히 추웠는지 재킷, 비치, 면방바지를 가리지 않고 코듀로이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얼마, 나와 '고르방' 비치 사주세요!



BY WYNG CLOSET

체크무늬 전성시대
"내 옷에 옷두지 마요"

체크무늬에 제대로 꽃힌 디자이너 고대음이 슈트, 코트 심지어 모자의 쟁까지도 체크무늬로 모인트를 했다. 체크무늬 셔츠를 하나만 입으면 이차재 소리 들지만 색깔과 디자인이 살짝 다른 체크무늬 셔츠를 여러 벌 겹쳐 입으면 오빠 소리 들을 수 있다. 물론 '얼굴'이 오빠일 때만 가능한 일이지.

유행색 아웃도어 룩

"패킷을 입고 훔치려 하니 만나리"

착직한 등산복은 죄다 벗어 던져라. 산에서 일행을 잃어버릴 염려는 조금도 없는 다양한 원색의 패션-님들한 아웃도어 웨어를 입고 산 정상에 누벼보자. 이렇듯 누님처럼 등산을 좋아하는 미녀를 만나는 행운이 찾아올지 모르다. 요즘 들른은 산에서 시작한다는 거 다 알지?

가족의 다양한 변신

"가족이 좀 모자랐나?"

옷이 가족이 들어가 있으면 웬지 짝지는 짐작 같아 보이지만 가족 재킷은 날 티가 딱박 나니까 부담스러웠다? 올겨울엔 온전히 가족으로만 된 옷보다는 가족을 모티브로 활용된 옷이 유행할 거다. 무난한 소재의 옷에 가족 소재의 벨트, 부츠, 장갑을 곳곳에 코디하면 간지 풀풀 쳐드님으로 빙의할 수 있다.



정상에서 막걸리?

BY GENERAL IDEA



트만 겁나?

RECONSTRUCTION BY JAYDONG

넉넉한 피트 감

"아호 다이아몬드 이제 안녕~"

그동안 할애 순환 장애와, 그보다 더 치명적인 민망함을 주는 스키니진 때문에 서러했...? 다행히도 이번 패션쇼에 등장한 대다수 남성복의 피트 감이 바지, 코트, 슈트 가릴 것 없이 넉넉해졌다. 사진 속 무릎을 덮고도 남는 길이의 박시한 코트를 멋있게 입으려면, 도넛 가리키어야 할 텐데, 다시 테에-야 하-?



MAXIMI 패션위크에 간 진짜 이유

정작 우리의 시선을 잡아끄는 건 따로 있었다.



일이 없어요

© 2011



통색이 간지

BY RECONSTRUCTION

SEINZOO



1

정종익(25세, 구제습 운영)
바지 자체 제작
신발 일본에서 구입
가방 완제품
그 외의 아이템 보세
★ 쇼핑지 동대문

2

김훈재(30세, D4에디션 MD)
아우터 필스보이
그 외의 아이템 모두
해외에서 구입
★ 쇼핑지 신사동 가로수길

3

이강형(26세, 학생)
트렁크로드 프라다
카드건 빔바지
셔츠 톱도 경라리
반지 라드류저션
신발 탁테마틴
가방 배네통
★ 쇼핑지 경창시장,
신사동 가로수길



Guys on the Street

2011~2012 F/W 서울패션위크의 화려한 디자인의 쇼보다
치열했던 건 무대 밖 패션이었다. BY 박한빛(나래, 조유림)



1. 신호철(25세, 학생)
모자 황간 / 스키모 보세
코트 아베세 / 바지 맞춤 제작
신발 레페토 / 가방 본호 앤 피터너
★ 쇼핑지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2. 고윤(27세, 학생)
신발리스 보세 / 신발 수제작
스카프 편집숍에서 구입
그 외의 아이템은 자체 제작 및 구제
★ 쇼핑지 은라인 쇼핑을 바이머어
(www.byure.com)

최진현(35세, 현대 무용가)
안경 빅터앤블루프
아우터와 셔츠 모두 프레드페리
카드건 제너럴 아이디어
반지 리버이스
신발 나이키 / 가방 호제
★ 쇼핑지 영동



4

3. 장세중(25세, 학생)
안경 보세
재킷과 티셔츠 모두
디올 옴므
반지 골데가르송
신발 도미너스웨이
★ 쇼핑지 압구정동

4. 이상우(24세, 학생)
케이트 스펀니 재킷
디올용 크레슬롬
가방 코르누자이
신발 리복
그 외의 아이템 모두 보세
★ 쇼핑지 홍대,
신사동 가로수길



5

5. 송현준(29세, DJ)
헤드론 닥터드레
신발리스 레이팬
재킷 크리스찬 라크루와
티셔츠 아메리칸에어펠
카드건과 바지 모두 보세
신발 칸버스 / 시계 윌리스
★ 쇼핑지 홍대,
가정 크리스찬 라크루와
★ 쇼핑지 용두문 투타

Pick Up, Pique Shirts

STYLE

가슴팍에 새겨 있는 로고 하나로 아우라를 뽐내던 피케 셔츠 시대는 갔다.
테니스공처럼 통통 튀는 색감과 디자인으로 혁명을 꾀하고 있는 놈들이 온다.

BY 고경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ASSISTANT 조유림

COOPERATIONS 핼피가데넌, 올하우스, 타이힐미거, 시스원오오, 퀴스텐베로우, 헤지스(02-542-7764)
라코스테(02-3427-7701) 사이먼, 스포아일랜드, 티니위니, 라틀레티크(02-3442-9943)
스피어(02-3444-7722) 브라우브레시(www.browbresh.com)



큰 공, 시계 필항으로

- ① 오한지서 피케 셔츠(단추 2개) 82,000원 핼피가데넌
- ② 인디언 추장의 깃털 머리 장식을 단 초록색 피케 셔츠
(단추 2개) 39,000원 헤인진
- ③ 단추 여덟 시아로 살짝 보이는 스트라이프 무늬가 시원한 느낌을 주는
하늘색 피케 셔츠(단추 2개) 93,000원 타이힐미거
- ④ 광택한 공들이 로고를 단 보라색 피케 셔츠(단추 2개) 39,000원 티니위니
- ⑤ 클래식 악어 로고를 단 노란색 피케 셔츠(단추 3개) 118,000원 라코스테
- ⑥ 원숭이 로고를 단 빨간색 피케 셔츠(단추 3개) 가격 미정 올하우스



(왼쪽) 작은 공, 위부터

- ① 해군 로고를 영보성 처리한 감성적 피케 셔츠(단추 2개) 199,000원 시스웰옴므
- ② 브랜드 로고를 단 화석 피케 셔츠(단추 2개) 259,000원 스펀이일편드
- ③ 상조기 패턴의 영문자 R 로고가 돋보이는 플간색 피케 셔츠
(단추 2개) 39,900원 라플라티크
- ④ 하얀색에서 하늘색으로 자연스럽게 접어지는 색감의 피케 셔츠(단추 2개)
가격 미정 타이일피커 프랩필드레이티티에디션

(오른쪽) 위부터

- ① 다양한 색감의 작은 불방울 무늬로 멋을 낸 피케 셔츠
(단추 3개) 125,000원 리코스태
- ② 가슴에 포켓이 달린 펄 무늬 피케 셔츠(단추 3개) 34,000원 스파이시칼라
- ③ 대비되는 색으로 옷깃이 포인트를 준 분홍색 피케 셔츠
(단추 3개) 120,000원 리코스태
- ④ 베이즐리 무늬의 옷깃을 엮은 초록색 피케 셔츠
(단추 4개) 108,000원 커스텀얼로우
- ⑤ 빨간 색과 흰색 스트라이프 무늬가 경쾌해 보이는 피케 셔츠
(단추 3개) 100,000원대 헤지스
- ⑥ 사선으로 나뉜 노란색과 녹색 배합이 더욱 역동적이고
상큼한 느낌을 주는 피케 셔츠(단추 3개) 100,000원대 헤지스
- ⑦ 차차 로고를 단 감색 피케 셔츠(단추 2개) 52,000원 브라운브레스





Look Smart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BY 고정세 PHOTOGRAPHS BY ARC STUDIO ASSISTANT 조유형

- ① 짙은 반색 반 플테 안경 400,000원대 존 갈리야노 by 다리안테네서날
- ② 다리 디자인이 독특한 얇은 테 안경 550,000원대 풀플랑 by 다리안테네서날
- ③ 흰색 곡선으로 포인트를 준 안경 200,000원대 풀후먼 by 반도광학
- ④ 감성적 반 플테 안경 가격 미정 예나 로이드 by 올티칼 더블유
- ⑤ 벵골식 호피 무늬 반 플테 안경 530,000원 올리버 골드스미스 by 올티칼 더블유
 - ⑥ 초록색 다리가 포인트인 안경 300,000원 호건
- ⑦ 끝족색 다리를 한 금색 반 테 안경 500,000원대 몽블랑 by 다리안테네서날
- ⑧ 플테와 무테를 결합한 독특한 디자인의 안경 가격 미정 보슬레이 by M2ic
- ⑨ 끝족색 반 테 안경 400,000원대 클로에 by 다리안테네서날
- ⑩ 입쪽달룩한 색의 다리가 상큼한 짙은 호피 무늬 플테 안경 133,000원 레노마
 - ⑪ 빈티지한 디자인의 원형 안경 129,000원 힐로
 - ⑫ 반색 반 플테 안경 170,000원대 오후루 by 반도광학
 - ⑬ 둥근 플테로 인공의 핑크색 태두리가 포인트 119,000원 힐로

COOPERATIONS 오후루, 레노마, 풀후먼(S&W, 7088) 보슬레이(100-77-030) 힐로(100-344-9449) 올티칼 골드스미스, 예나, 로이드(100-520-4343) 몽블랑, 클로에, 존 갈리야노, 호건(100-566-7804)



Sun & Sunblock

요즘 선크림은 번들거리지 않고 면상을 가 부기로 만들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저너는 아직도 하얀 속살과 따로 노는 거무튀튀한 얼굴을 자랑스럽게 쳐들고 다니는 거?

BY 곽경희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 조유림

COOPERATIONS 라네즈 올리드(02-546-7786) 피터모라스(02-3479-6090) 오베리스(080-301-6523) 키엘(080-022-3332) 오리진스(02-3440-2763) 비오넬몰디(02-3467-9769) 클라리انس(02-3014-2915) 덴트클레어스(02-2086-0183)

5 맨즈 플렉식 Sun Power Cream SPF 50+ PA+++

다른 제품보다 무겁게 발리고 다공성 피부대를 함유해 피부가 뽀송거린다. 제품 특유의 색이 비비크림 같은 커버력을 발휘하는데,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바르면 x텐데 펄프 타입이라 기법 속에서 텅공다 보면 제품이 쉼수 있어 휴대하기가 힘든 게 단점이다. 65g 18,000원

6 피터모라스 우버드라이 선크림 SPF 30

요즘처럼 자외선 받기 날씨가 조심해야 한다. 야외 활동을 할 때를 제외하고 선크림 따위 발바른 적이 없던 당신도 피부양을 걱정해야 한다는 거다. 미국 피부양 재단의 추천 제품으로, 크림 같은 색감과 질감이 부드럽게 발리고 끈적임과 잔여감이 전혀 없다. 118g 51,000원

7 오리진스 브라이팅 앤티 스트레스 UV 페이스 프로텍트 SPF 50 PA+++

하얀 제이퍼처럼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린다. 우유처럼 맑았을 땀 유분감이 남는 시간이 지내면 사라진다. 일본 바질 잎과 자외선 차단력이 피부 스트레스를 방지해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본. 병사는. 인. 40ml 45,000원

8 라네즈 울트라 선 BB 로션 SPF 41 PA+++

비비크림 바르던 당신도 얼굴을 맑게 꾸민다. 인형처럼 만들 땀기. 선크림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당신의 얼굴빛을 피부 톤을 하나로 정돈해주는 기능을 더한 기특한 눈으로 만족해라. 당신 옷속에서 머리를 빼내며 맑고 고인하는 볼레 헤드나 여드름 자국을 다 지워주진 않지만 얼굴의 과다 피지를 조절해 기분을 밝게 만들어 준다. 60ml 23,000원

1 클라리انس UV 프로텍션 SPF 40 PA+++

첫 만남은 번들거릴 뻔했지만 5분도 안 돼 맑고 보송하게 변신했다. 태양 아래서 오징어처럼 말라가는 피부를 살리기 위해 선안정 같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이당류를 추출해 당신 피부에 수분을 오랫동안 머물게 도와준다. 30ml 45,000원

2 키엘 울트라라이트 데일리 UV 디펜스 SPF 50 PA+++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출시 1주년 만에 크기를 2배로 키운 리미티드 에디션이 나왔다. 노화를 유발하는 UVA를 차단하는 실험에서 PA+++지수 기준보다 2배 더 차단하는 것을 증명했다. 수분 크림은 바르도 될 만큼 촉촉하다. 한병몰이나 사투를 깬다. 60ml 65,000원 (30ml 45,000원)

3 비오넬 울트라 UV 디펜스 SPF 50 PA+++

남성 전용 자외선 차단제만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강력할 방어 능력을 보여준다.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매일 얼굴과 목에 발라주자.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와 외부 활동이 많은 일간 가방 안에 넣어 다니기 좋다. 30ml 45,000원

4 오베리스 UV CUT 선 스크린 슈퍼 SPF 50+ PA+++

스킨케어나 수분 타입이라 제품을 쓸 때 물러가지도 않고 유분이 없다. 번들거림이 약간 남는 편인데 뽀송 막은 모습 같진 않으니 안심이다. 워터프루프, 샌드프루프(오래가 못 어도 물러가지 않고 서로 밀어지는) 기능까지 있다고 하는데, 아직 휴가를 못 가면서 테스트해보진 못했다. 끈적임도. 저 지수 휴가 좀. 50ml 18,000원

MAXIM BUYER'S 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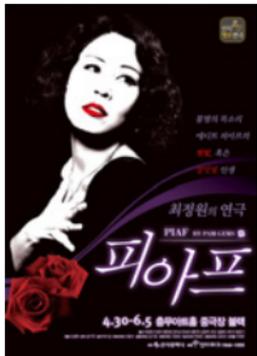
카시오의 G-SHOCK GD-200 RM Series

카시오가 올해 더욱 강해진 디자인과 심플한 디자인을 장착한 신형 G-SHOCK을 출시했다. 내구성이 뛰어난 가법 고강인 소재의 글라스 피이버 인서트 밴드(Glass Fiber Insert Band)를 새로 채용한 G-SHOCK GD-200 RM Series는 밝은 고휘도 LED 백라이트와 합 메요리 60계 등의 성능으로 실용성을 높였다. 가격 2만 원



'우리들체어', 오피스 라인 출시

착주 보호 의자 브랜드 '우리들체어'에서 사무실용 의자 신제품을 선보인다. CEO를 위한 FOLEE와 직장인을 위한 FOLEE3로 이루어진 이번 라인업은 가용한이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팔걸이를 세팅한 후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해 실용성을 높였다. 착주도 보호하면서 실용성 있는 디자인을 가미한 이번 라인업을 주목해보자. 문의: 1599-7689 www.woorildchair.com



Musical Play <피아프>, 최정원의 재발견

신시컴퍼니는 4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뮤지컬 <피아프>를 공연한다. <피아프>는 천상의 목소리를 지닌 에디트 피아프의 실화를 그린 작품으로, 그녀의 주목가는 음악에 감성할 수 있다. 2009년 공연 당시 90%가 넘는 객석 점유율을 기록한 작품으로, 초연 때의 최정원이 다시 한번 주인공으로 열연하니 열광을 감성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가격 R석 5만 원, S석 4만 원 문의: 02-577-1997



한국타이어, 글로벌 광고 캠페인 'Be One With It' 시작

한국타이어는 4월 19일부터 독일, 미국, 영국 등 세계 9개 주요 시장 중심으로 세계 5대 프리미엄 타이어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광고를 전개했다. 한국타이어의 이번 'Be One With It' 캠페인은 타이어와 운전자 사이의 믿음과 교감을 통해 도로와 하나가 되는 운전자의 감정을 표현한 광고로, 다양한 글로벌 광고를 제작한 제프리 달링(Jeffrey Darling) 감독이 연출했다. 한국과 중국에서 판매를 위주로 기록하고 미국과 독일 등 선진 시장에서도 판매와 인지도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한국타이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세계 5대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세 쿠엘보 리제르바 델라 파밀리아' 출시

전세계 No.1 프리미엄 테킬라 '호세 쿠엘보'가 테킬라의 걸작 '호세 쿠엘보 리제르바 델라 파밀리아(Jose Cuervo Reserva DE LA FAMILIA)'를 출시했다. W 시를 워키펀, 신라, 하트드 호스팅을 만날 수 있는 '호세 쿠엘보 리제르바 델라 파밀리아' 에디션은 호세 쿠엘보 가문에서 기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테킬라로 인해 디 잔셰 스트레이트로 마시거나 온더락 볼을 들끓은 오프닝 캠페인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다.



소니만의 엔터테인먼트 기술, '이크'와 조우하다

얇고 가벼운 소니 엑스페리아 '이크'는 최신 안드로이드 OS 진보네드 기반에 소니가 자랑하는 카메라와 TV 기술을 접목했다. 특히 소니 카메라에서 호평 받은 이안 촬영 센서 모바일 엑스모어와 iZ센즈로 이안에도 80만 화소의 생생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곡선의 아름다움을 살린 세련된 디자인은 덩달다. www.sony.co.kr

젠하이저, 아이폰용 이어폰 'MM30' 출시

애플 제품은 애플용 리시버로 들어야 한다. 젠하이저에서는 아이폰을 비롯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블랙프린트와 맥프로까지 사용 가능한 인이어(in-ear) 방식의 이어폰 'MM30'을 출시했다. 주파수 대역폭이 17,000~20,000hz로 초저역까지 강력한 베이스로 감성할 수 있다. 가격 99,000원 문의: 02-771-9275 www.sdfinc.co.kr





'타임 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제안하다

스페인 의상 브랜드 '타임포스'가 2011년 여름과 일렉 시즌을 맞아 특별한 선물 이벤트를 제안한다. 바르셀로나 출신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컬렉션이다. 한정 생산이며 그의 친필 사인과 함께 이중 인증 비닐 봉투와 고무 밴드, 유입 필러 기능, UV 차단 향수 크로스그레인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격 6만 원 문의 02-57-9888@milmis.com www.milmwatch.co.kr

2011년 신학기, 아수스의 게 임용 노트북 종결자

아수스가 2세대 샌드 브리지 7 노트북 K53을 출시했다. K53은 기존 제품 대비 최대 30%까지 성능이 향상된 26300M CPU와 데스크톱 못지않은 3D 그래픽 성능을 지원하는 지포스 540M GPU를 탑재했다. 가격은 이전 6 모델과 동일하지만 4GB DDR3 메모리와 750GB의 하드디스크를 장착해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을 자랑한다. 가격 120만 원 문의 02-702-7900



감사의 달 5월, 고마운 마음을 크레메스로

맛과 디자인 2011 토크를 동시에 잡은 커피머신이 등장했다. 크레메소 캡슐 커피머신은 캡슐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60초 안에 바리스타급의 커피를 맛볼 수 있다. 빼어난 맛은 물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는 크레메소는 감사의 달 5월 부모님과 소승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에 최고의 선물이다. 가격 588,000원 문의 1577-3265



도심 속 바세린 뷰티 버스를 찾아라!

140년 전통의 유니클레 바세린(Unilever Vaseline)이 바세린 뷰티 버스를 운영한다. 바세린 뷰티 버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천,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의 도심을 방문하여 쿠키, 맞히기, 스크래치 카드, 포토 이벤트, 선물 증정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5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바세린의 다양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샘플까지 풍성하게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라. www.unilevervaseline.co.kr



닛산 큐브(CUBE), '2011 서울모터쇼를 빛낸 베스트카' 선정

4월 4일 일산 컨벤션(INTER)에서 진행된 '2011 서울모터쇼' (모터쇼를 빛낸 베스트카) 시상식에서 닛산의 큐브(CUBE)가 승차 부문에 선정됐다. 본 어워드에는 모터쇼 취재 기자단을 대상으로 디자인과 기술력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닛산 큐브는 3세대 모델 체택을 거치며 오는 8월 국내에 공식 출시 예정이다. 문의 080-010-2323 www.nissan.co.kr



필렉스트라로 젊음을 채우자!

굿스킨 랩스에서 새로 출시한 필렉스트라는 피부 볼륨감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인터메이징 제품이다. 노화가 진행되면 수축해지는 볼륨감은 기승을 아니라 당신의 피부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필렉스트라는 일층 전체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의 투명도를 높게 하여 자연적인 글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볼륨감을 높인다. 가격 50mL 6만 원 문의 02-3440-2750

아디다스, 클라이마클 라이드 출시

발에 유난히 힘이 많은 당신을 위한 아디다스 '클라이마클 라이드(Climate Ride)'가 출시되었다. 230g의 무게에 최소화한 갑피와 워킹 안창 모두 통풍이 잘되는 클라이마클 소재를 사용해 30도 이하의 온도에서도 공기가 통한다. 신발 속에 습기가 생기기 않고, 발의 온도를 낮춰주어 오랜 운동에도 신맛함과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가격 128,000원 shop.adidas.co.kr



현대자동차, 2012년형 투싼 ix 출시!

현대자동차는 향상된 연비와 함께 동급 최고 수준의 편의와 안전성을 갖춘 2012년형 투싼을 출시했다. 2012년형 투싼은 연비를 높이고, 고급 인조가죽 시트 등 기본 적용했으며, 오트 크루즈 컨트롤과 열선 스티어링 휠을 새롭게 채택했다. 현대차는 5월 말까지 투싼 ix 출시 고객을 초청하여 5만 9천 원 스페인과 프랑스를 여행할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격 1,977~2,879만 원

팔목의 자신감 폴스미스 워치

폴스미스에서 슬림한 스트랩과 노노톤의 다이얼 컬러가 돋보이는 오토메틱 워치 OKFORD를 출시했다. 도마뱀 가죽 소재를 사용한 스위스 칼레션 특유의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케이스 뒷면에 새겨진 폴스미스가 직접 디자인한 ART DECO 드로잉은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다. 문의 02-3284-1300 www.galaxydock.co.kr



올림푸스, 프리미엄 하이엔드 카메라 SZ-30MR 출시

올림푸스가 출시 시론인 5월을 맞아 더욱 슬림해진 본체에 DSAR 기능을 더한 프리미엄 하이엔드 카메라 SZ-30MR을 출시한다. 이번 신제품의 주요 특징은 FHD 동영상과 최대 1600만 화소의 사진 촬영이 동시에 가능한 멀티 레코딩, 또 광학 2배 초안형 줌에 300도 스티로 파노라마 촬영 및 3D 모드도 탑재했다. 가격 498,000원 문의 02-544-3300

푸마 코리아, 소셜 클럽 파티 개최

푸마 코리아는 지난 4월 4일 일구정동 '베제로 스트라 이브'에서 '푸마 소셜 클럽 파티'를 성공리에 마쳤다. '푸마 소셜 클럽 파티'는 스포츠 장소를 담은 견본 소셜 회화를 일상 속에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마련한 자리로, P.P.P., U.I.C, M.Music, A/S의 테이로 구성 되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문의 070-702-6539



지프(Jeep) '와넌 장식 피케 티셔츠' 출시

멋을 내지 않아도 멋스러운 스타일링이 가능한 지프(Jeep) '와넌 장식 피케 티셔츠'는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어떤 패션에도 어울리는 아이템이다. 일복 기술에 지프 고유의 와넌을 부처해 포드트를 준 지프 '와넌 장식 피케 티셔츠'는 데님 팬츠뿐만 아니라 카고 팬츠 등과도 잘 어울려 스타일링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가격 88,000원 문의 02-548-9381



컨버스, 네온컬러 로드머신 출시

올봄, 컨버스(Converse)에서 이번 시즌의 비버리 칼리 트렌드를 반영한 로드머신 라인을 출시한다. 무채색과 네온 컬러의 조화로 역동적인 느낌과 생동감을 주는 컨버스 로드머신 라인으로 윙클, 활동적인 패션 스타일링을 완성해보자. 가격 98,000원 문의 02-2046-8214

컬럼비아, 해충 방지 '인섹트블로커' 라인업 출시

인섹트블로커는 국화류 꽃에서 추출한 천연 방충 성분을 의무 소재에 함유한 것이다. 모기, 파리, 진드기, 개미 등 각종 해충의 움직임을 둔화시키고, 옷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아줘 야외 활동 시 벌레에게 물리지 않게 도와준다. 가격 98,000원 문의 02-6909-0218



스피커 달린 가방, 피델리티 스테레오 백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몰이 중인 피델리티 스테레오 백(Fidelity Stereo Bag)은 백팩, 칼라백, D백 등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그중 주력 제품인 백팩은 가격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음악을 듣는 용도 외에도 패션-활용 아이템으로 활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www.speakrbooks.co.kr

노스페이스, '화이트 라벨' 카툰 티셔츠 출시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NORTH FACE)'에서 이번 2011년 S/S시즌을 맞이하여 '아웃도어 DNA'를 담은 '화이트 라벨'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시즌 새롭게 출시된 '화이트 라벨'은 노스페이스의 자랑인 아웃도어의 '기능성'을 바탕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도 패셔너블한 아웃도어룩을 트렌디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차별화했다. 가격 45,000원



리바이스 워치, '스스로브스키 LTH05' 시리즈 출시 소식

리바이스 워치가 5월을 맞아 사랑하는 연인 또는 친구에게 선물용으로 적합한 불링블링한 '스스로브스키 LTH05' 시리즈를 새롭게 출시한다. 기존에 선보인 리바이스 워치는 캐주얼하면서도 스포티한 이미지가 강했던 반면 새롭게 출시하는 '스스로브스키 LTH05 시리즈'는 스스로브스키의 개성을 워치 다이얼 주변에 세팅함으로써 한층 더 고급스러움까지 표현했다. 문의 02-543-7685



BMW, '750Li 코리아 아트 에디션' 선보여

BMW 코리아는 2011 서울모터쇼에서 BMW의 플래그십 모델인 7시리즈에 'BMW 750Li 코리아 아트 에디션(BMW 750Li Korea Art Edition)'을 선보였다. 서울시 무형문화재인 손대현 장인이 제작한 나전칠기 인테리어 장식이 장착된 모델로, 섬세한 독일 장인의 정성이 깃든 BMW 최고의 플래그십 7시리즈에 한국적 미감이 아우러져 차려내면서도 정교한 한국 특유의 디자인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리겐 텔러, 'Touch me' 대림미술관 전시

대림미술관은 해외 유명 브랜드 루이비통, 마크 제이콥스, 비버안 웨스트 우드, 셀린느, 미소나, 일생 로랑, 루이 등의 광고사진을 찍어왔던 유리겐 텔러의 작품을 국내 최초 소개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작가의 사진 촬영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경험 할 수 있는 미디어 공간을 따로 마련해 기존 전시와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전시는 2011년 7월 31일 까지 문의 02-720-6667

'벤스 코리아' 의 이태리 모던 디자인 가구

BENS는 Beautiful(아름다운) Elegant(우아한) Natural(자연스러운) Style(멋진)의 단어를 조합한 브랜드로, 최고의 품질인 디자인,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각종 TV 광고 및 드라마, 영화에서도 벤스 코리아(BENS KOREA) 제품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문의 032-653-0888 www.bens.co.kr



'버카루'와 함께 피케 셔츠의 계절이 돌아왔다!

여름철의 마스트 해브 아이템, 피케 셔츠의 계절이 돌아왔다. 47치 칼라로 출시된 버카루 피케 셔츠는 깔끔하고 단정한 슬림 피트로 어떤 하의와 매칭해도 어울린다. 다양한 색상으로 완성된 버카루 셔츠와 외면적 자수 장식은 디스 심심할 수 없는 피케 셔츠의 멋을 살렸다. 가격 5만 원대 www.buckaroo.co.kr

골드문트의 엔트리급 명품 오디오 'METIS' 라인

골드문트에서 새롭게 선보인 METIS 라인 은 골드문트의 명품 사운드를 그대로 적용한 하이엔드 오디오 입문자를 겨냥한 제품이다. 신중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불필요한 진동을 잡아주는 메카니컬 그라운드 구조를 그대로 적용해 안정된 음질을 제공한다. 깔끔한 디자인과 세련된 실버 컬러가 젊은 신혼부부의 감각에도 잘 맞는다. 문의 02-926-9085



루미노스의 아웃도어 워치와 도전하러!

루미노스(LUMINOX)의 352 Steel Colomark는 이 해 특수부대의 아간 직전 수행을 통해 그 진가를 인정받은 시계로, 강화 유리섬유와 스테인리스틸 케이스를 사용했다. 또한 200m 방수 기능은 물론 별도의 동력 없이 빛을 빛을 25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경교한 스위스 오토매틱 쿼츠 무브먼트가 자리 잡고 있다. 가격 568,000원 문의 02-757-8666(이메일) www.luminowatch.co.kr



COME AND PLAY WUHAN

빅키를 담은 여신과 놀이동산에서 데이트를 할 당시 상상 속에서만 접했을 일이 벌어졌다.
2011년 한국타이어 레이싱 퀸과 함께 꿈과 사랑이 가득한 세계로 떠나보자!

BY JIAPHO PHOTOGRAPHS BY ACE STUDIO FILM MAKE-UP
HAIR GUEST MAKE-UP ARTIST: S2P ASSISTANT: S2P





촬영장 방문하기



5000여대의 출력을 자랑하는 한국타이어의 드림프터머신(제네시스루페)
정착된 타이어는 한국타이어의 초고성능 타이어 Venus V12 ev0

윤승연

들어본 말 중 최고의 직업 멘트는?

"뭐 갖고 싶니?"

남자 친구 있나?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 괴롭다. 몸치매

촬영 소감은?

날씨가 시원해서 좋다. 모터쇼 때문에 킨텍스에만 있었는데 밖에 나오니 정말 좋다.

놀이동산을 마저락으로 간 건 언제인가?

얼마 전 헤어진 남친이랑 1년 전에 간 잠실 L월드. 우싸~ 남친 이야기 묻지 말라니깐

이상형은?

나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남자. 지금까지는 내가 더 많이 좋아하는 쪽이었다. 결혼할 때는 나만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면 되지 않겠는가?

남자를 보는 조건으로 몸, 마음, 돈 중 딱 하나만 고른다면?

돈

본인의 장점은?

덜덜한 성격. 새침해 보이지만 성격은 '남자다.'

레이싱 모델로서 고충이 있다면?

치얼미, 존스런게되

중임 서 있으면 다리가 피곤할 텐데, 그 피로는 맥주 병으로 푸나?

요즘 누가 맥주병으로 다릴 미나? 미사지나 핏질이 최고다.





→ 표지로 다시 돌아가자.
윤승연 씨 엉덩이 밑에서 웃음
짓고 있는 타이어의 정체는?

- DTM 전용 레이싱타이어
Venus F200(dry circuit 전용)
- 초고성능 타이어 Venus V12 evo
- DTM 전용 레이싱타이어
Venus Z20(wet circuit 전용)

DTM독일 투어링카 마스터즈는 세계
3대 투어링카 대회 중 하나로, 독일
명차메카인 AUDI의 자존심 대결로
유명하며, 한국타이어는 DTM의 공식
타이어 공급회사로 선정되었다.

빙글 스포이스킬라
구두 슈즈원, 키사



빙글 제이이출판
구두 슈즈원

엄은실

장동건, 현빈, 추성훈 중 한 명만 고른다면?

외모로만 보면 현빈. 하지만 까도남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는다.

남자를 보는 조건으로 몸, 마음, 돈 중 딱 하나만 고른다면?

마음. 나머진 가본

오늘 촬영은 어땠나?

봄나들이 나온 기분이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키가 그렇게 클 수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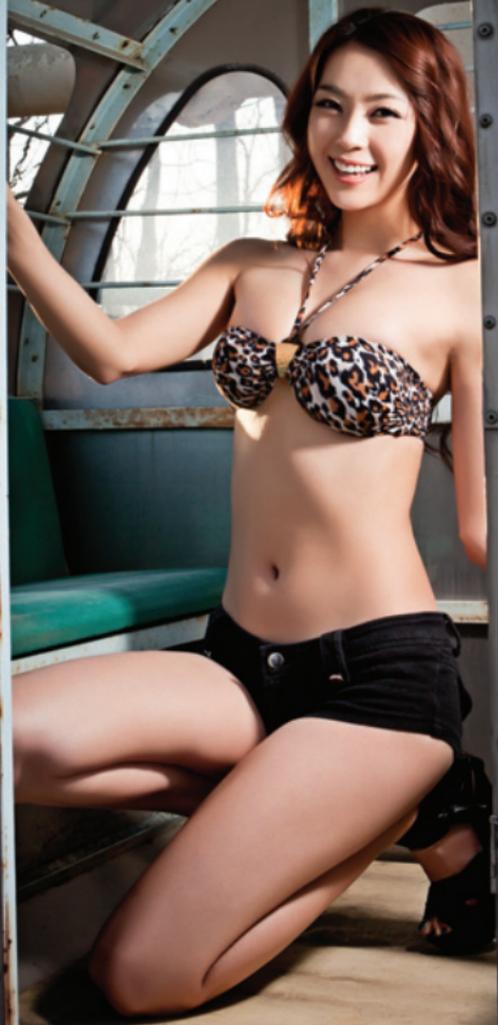
나는 음식을 안 가린다. 아마 그래서 키가 이렇게 크지 않을까.

피곤할 땐 무얼 하나?

별 거 없나? 마사지를 받거나 그냥 잔다.

다리 부기를 빼는 레이싱 모델만의 노하우는?

신발 밑창에 파스를 붙인다. 그렇게 하는 모델이 은근히 많다.



주다하

싫어하는 남자 유형은?

개인적으로 B형 남자를 싫어한다.

다른 모델을 보고 질투한 적이 있다면?

업은심의 다리는 정말 길고 예뻐서 부럽다. 전유현의 작은 얼굴도.

당신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

미소, 그리고 골한 성격

장동건, 현빈, 추성훈 중 한 명만 고른다면?

음, 추성훈.

남자를 보는 조건 중 몸, 마음, 돈 중 딱 하나만 고른다면?

모든 걸 짝퉁한 남자, 굳이 뽑자면 마음.

레이싱 모델 일을 할 때 치맛가나 볼래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

모터쇼에서 어떤 남자가 내 다리 사진만 찍더라.

어떻게 차라라? 골하게 한 때 했나?

조용히 경호원을 불러서 해결했다. 참고로 경호원이 무척 멋있었다.



진유현

정동진, 형빈, 후성훈 중 한 명만 고르다면?
후성훈. 가진 남자가 좋다.

당신이 만난 최악의 남자는?

준 선을 다시 뺏아가는 남자. 얼마 전 헤어지고
늦은 내가 춤다고 입혀줬던 잠바를 도로 달라
고 했다. 그래서 착불로 보내버렸다. 더러운 걸
진득 묻혀서.

놀이동산을 마지막으로 간 건 언제인가?

오래됐다. 2년 전? 나는 바이킹을 가장 좋아한다.

오늘 촬영장은 맘에 드나?

7080 놀이동산 같아서 좋다.

운전은 잘하?

스피드를 엄청 즐기는 편이다. 한남동에서 일산
까지 20분이면 간다. 물론 교통 법규를 어기진
않고 요리조리 잘 빠진다.

**왼쪽에 보이는 당신도 다른 모델을 보고 부러
운 게 있나?**

주디라 연나의 다리는 정말 예쁘다.

오, 그것뿐인가?

또 있다. 먹어도 살찌지 않는 체질도 부러움!



MAXIM

KOREA

DRIVING EMOTION

F200
K110
Z207



 EXCLUSIVE
PHOTOSHOOT

COME AND PLAY
WITH ME



INTRODUCING
한국타이어
RACE QUEEN

윤승연 / 엄은실 / 주다하 / 전유현

